금주의 법구–〈법구경〉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9월 11일) 2019년 10월 9일 수요일



"초심으로 중생제도 진력하길" 조계종 대덕 · 혜덕 법계 품서식이 10월 2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됐다. 이날 품서식에서는 비구 스님 67명이 대덕 법계를, 비구니 스님 36명이 혜덕 법계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법납 20년 이상으로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스님들이다.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불조와 시주 은혜를 잊지 않고 초심으로 중생제도에 진력하라"고 당부했다. 대덕 · 혜덕 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머리를 낮추고 초심을 되새긴다. 글= 신성민 기자, 사진= 박재완 기자

시대 맞게 종단 포교 시스템 정비한다

20년 만의 정비, 조계종 포교법 개정안 살펴보니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종단 포교법이 포교원 체제 정비와 포교 의무 고시 등을 골자로 2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포교 목적과 원칙, 방향 등을 현실에 맞게 고친 '포교법 전부 개정안'을 9월 30일 입법 예고했다.

포교법 개정안은 2000년 3월 포교법이 공포된 이후 그동안 일부 개정을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다변화된 포교환경에 맞는 포교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포교원은 법 개정작업을 이어왔다. 포교법 전부개정안은 입법 예고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열리는 중앙종회 정기회에 재발의 된다.

사찰 포교사 활동 진흥될까

먼저 이번 포교법 개정안에서는 포교사의 정의, 사명, 자격,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변경하고 종무원의 포교사 자격 취득 의무 대상도 일부 변경했다. 5000여 명이 넘는 포교사들의 경우 그동안 사찰에서의 활동 연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서는 교구본사와 문화재구역 입장료 사찰이 포교사를 1인 이상 두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포교사단 관계자는 "사찰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포교원 관계자는 "포교사의 사찰 활동에 대해서는 스님들의 시각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라며 "포교법 개정 이후 포교 의무에 대한 신도관리 연계 등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교원 체계, 법적 뒷받침 박차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특히 총무원 종무회의와 교육원 교무회의에 준하는 '포교원 교무회의'를 신설해 포교원 사업과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포교원 내 포교국과 신도국, 포교연구실의 관장업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 명문화했다. 종헌에 명시된 위원회 사항을 포교법에 규정하고, 포교위원회와 신도연구위원회로 구분했다.

포교사 사찰 활동 구체화
전법단, 종법기구로 격상
기존 전법활동 근거 확충
입법예고 · 의견수렴 거쳐
오는 11월 종회서 재발의
행정력 강화 법안은 과제

포교원 포교부장 가섭 스님은 "20년 만의 전면개정은 포교 현실에 맞는 법체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며 "법개정을 통해 전법포교의 근거를 갖고 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포교원 종책 실천 체제 구축 과제로

포교법 개정안과 함께 그동안 한계로 지적되어 온 포교종책 실천 체제 구축이 과제로 떠올랐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법단의 종법기구화이다. 전법단은 그동안 시행령에 의해 조직, 운영되어 왔다. 개정안에는 전법단이 종단 직속기구임을 명시하고 이에 따라 전법지원단과 전법후원단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가섭 스님은 "종법기구로 격상된 전법단은 현장 스님들의 활동 근거가 마련돼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법단 외에도 포교원이 구체적으로 일선사찰에서 종책 실천이 가능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포교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교구본사 포교국장이 연 1회 이상 교구 및 사찰 신도임원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게 하는 포교 교육의 의무를 규정했다.

사찰 주지나 본사 포교국장 등 스님들의 포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총무원과 교육원 역할이기에 신도교육에 대한 역할만 제한 받은 것이다. 또한 일선 사찰과 포교원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한 부분도 문제로 꼽힌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포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포교분야 전반에 대해 지도, 교육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사찰에서 실질적인 포교모델을 만들어 내고 이를 다른 사찰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권한 또한 실효성있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법단 외에도 포교행정력 강화를 위한 제도나 추가 법안이 삼원 협의를 통해 제정되는 등 강력한 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유일 문화재 윤장대 보물서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 '예천 용문사 대장전 · 윤장대' 국보 승격 예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가 국보로 승격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보물로 각각 지정돼 있는 보물 제145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보물 제684호 윤장대를 통합해 한 건의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승격 예고했다"고 10월 1일 밝혔다.

현재까지 국보로 지정된 건축물은 총 24건으로, 예천 용문사 대장전이 국보로 승격되면 지난 2011년 '완주 화암사 극락전' 이후 8년 만에 다시 국보 건축물이 탄생하게 된다.

국보로 승격 예고된 예천 용문사는 신라 경문왕대 두운선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초암을 짓고 정진한데서부터 비롯됐으며, 후삼국 쟁탈기에 왕건과 관계를 맺으며 사찰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대장전과 윤장대는 고려 명종 3년(1173년) 국난이었던 김보당의 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응 선사가 발원하고 조성한 것으로, 고대 건축물로는 매우 드물게 발원자와 건립시기, 목적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이후 대장전과 윤장대는 여러 차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최근 동 윤장대에서 확인된 '천계오년(天啓 午年, 1625)' 묵서명과 건축 양식으로 미뤄볼 때 17세기에 수리돼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대장전은 일반적으로 불교경전을 보관하는 전각을 의미하지만,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건립된 건물이라는 특징을 지녔다. 윤장대는 불교 경전을 보관하는 회전식 경장(經藏)이면서 "한번 돌리면 경전을 한번 읽는 것과 같다"는 '공덕신앙'을 상징하는 성보이기도 하다.

이처럼 예천 용문사 대장전은 "윤장대를 보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경장 건축이라는 독특한 가치가 있다"는 게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예천 용문사 윤장대는 고려 초 중국 송대(宋代)의 전륜장 형식을 받아 들여 제작한 것으로 보여지며, 영동 영국사와 금강산 장안사 등에도 윤장대 설치 흔적과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는 예천 용문사 윤장대만이 유일하게 같은 자리에서 846년 동안 그 형태와 기능을 이어오며 불교 경장신앙을 대변하고 있다.

대장전과 통합 승격 추진
건축물 국보 지정 8년만
국보 윤장대 탄생도 처음

윤장대는 대장전 내부 양쪽 옆면 칸에 좌우 대칭적으로 1좌씩 설치돼 있으며, 8각형의 불전 형태로 제작돼 중앙의 목재기둥이 회전축 역할을 한다.

두 성보의 국보 승격 이유에 대해 문화재위원회는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는 불교 경장 건축의 특성과 시기적 변천 특징이 기록 요소와 함께 잘 남아있다"면서 "윤장대는 불교 경전신앙의 한 파생 형태로 동아시아에서도 그 사례가 흔치않고 국내 유일이라는 절대적 희소성과 상징성에서도 국보로 승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한 예천 용문사 대장전과 윤장대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예천 용문사 대장전 내부에 조성된 동 · 서 윤장대. 보물 제684호다. 보물 제145호인 대장전과 통합돼 국보로 승격될 예정이다.

혜암대종사 수행도량 통도사 극락암 순례법회



조계종 제10대 종정과 해인총림 방장을 역임하신 혜암대종사께서는 출가이후 평생토록 일종식(一種食)과 장좌불와(長坐不臥)를 하시며 고행정진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으로 후학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혜암선사 문화진흥회에서는 혜암대종사의 탄신 100주년(2020년)을 기념하고 위법망구(爲法忘軀)의 수행정신과 사상을 널리 선양하기 위하여 수행도량을 찾아서 봄·가을 순례법회를 봉행해 오고 있습니다.
본회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 통도사 극락암**에서 해인총림 방장 원각대종사를 증명법사로 모시고 **제5차 순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서울 · 경기지역 출발 일시와 장소 안내

■ 출 발 일 : 양력 10월 26일 토요일
■ 출 발 지 : ①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구 : 오전 6시
② 조계사 앞 : 오전 6시 50분
③ 강남 뉴코아 백화점 앞 : 오전 7시 20분
■ 동 참 금 : 5만원 (점심공양 제공)
■ 입금계좌 : 국민은행 535902-01-626693
예금주 이유승(만법회)
■ 문 의 : 순례단 사무국장 이유승
010-4509-7308

사단법인 혜암선사 문화진흥회 이사장 **성 법**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후보에 현봉 스님

1년 6개월여 만에… 11월 중앙종회 정기회서 방장 추대



조계총림 송광사 새 방장후보로 현봉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조계총림 송광사(주지 진화)는 9월 30일 경내 자재원에서 방장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3월 전임방장 보성 스님의 임기만료 1년 6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이날 현봉 스님의 방장후보 선출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현봉스님뿐만 아니라 현 조계종 원로의원인 현호 스님, 현묵 스님 등이 후보로 함께 추천되고, 쉽게 최종후보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광사는 장시간 논의 끝에 방장후보를 임회에 위임해 추대키로 하고, 임회는 광원암 감원인 현봉 스님을 최종 방장후보로 추대했다. 이후 송광사는 바로 산중총회를 다시 열고, 이같은 임회 결과를 추인했다.

방장후보로 선출된 현봉 스님은 1974년 구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송광사에서 수련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조계총림 선원 유나를 지냈으며, 송광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 정광학원 이사, 재심호계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봉 스님의 방장 추대는 오는 11월 열리는 중앙종회 정기회서 최종 확정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조계종 종도사업제안 총 13건 접수

출가진흥책 비롯해 키즈카페, 영상위원회 설치 등

조계종이 최초로 실시한 종도사업제안에 총 13건이 접수됐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에 따르면 9월 30일 마감한 종도사업제안 결과 출가진흥책을 비롯해 조계사 키즈카페 운영, 불교영상위원회 설치 등 13건의 사업제안이 이뤄졌다. 출가자는 5건, 재가자는 8건의 사업을 제안했다.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사업은 봉녕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의 현서 스님이 제안한 '불교수행문화 콘텐츠와 연계한 출가문화 프로그램' 이다. 이 사업은 주 1회 또는 월 1회 출가체험을 바탕으로 1회에 1알씩 구슬을 만들어 총 50알을 엮으면 완성되는 출가문화프로그램이다. 특히 현행 출가교육과정에 마음치유, 불교명상, 상담 등을 접목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남수행원을 월정사, 여수행원을 봉녕사 등으로 지정하는 등 세부적인 계획도 제시돼 있다.

이외에 유아와 젊은 부모의 유입을 위한 조계사 키즈카페 운영,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춘 불교영상위원회 설치,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부에게 신생아 물품을 지원하는 '선재의 요람' , 사찰 길라잡이 전문 영어 교육과정 등도 시대 흐름에 따른 사업제안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조계종 총무원 윤승환 기획차장은 "올해 처음 선보였지만 많은 사업들이 접수돼 물꼬를 텄다고 생각한다.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성과가 나온다면 향후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 제8대 교육원 부국장 인사

9월 30일 임명, 교육부장 진광 · 연구소장 정운 스님

조계종 제8대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부국장 인사를 단행했다.

진우 스님은 9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신임 부국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 연수국장 산성 스님, 사무국장 영조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진우 스님은 "이번 인사로 교육원 인선이 완료돼 본격적인 업무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면서 "6~7대 교육원 성과를 잘 계승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승가교육 개혁불사로 나아가도록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원장 스님의 교육철학에 따라 승가교육이 내실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깨달음 지상주의 전환 필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깨달음과 보살행' 주제 토론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탈종교화 따른 종교 신뢰 하락
神 아닌 인간행위에 관심 높아
보살행 강조하는 불교엔 기회
보살원력 가치 대중에 알려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화합과혁신위원회 기획위원 제4차 토론회 장면.

부처님이 강조한 지혜와 자비로 각각 대변되는 깨달음과 보살행. 국내에서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돈점논쟁' 을 비롯해 '깨달음은 이해의 영역' 이라는 주장으로 촉발된 '깨달음 논쟁' 까지, 깨달음과 관련된 논쟁이 여러 차례 일어났다. 이로 인해 정작 함께 주목받아야 할 보살행은 마치 후순위의 가치인 것처럼 평가되는 경향이 짙은 한국불교에 깨달음 지상주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본부장 정념)는 9월 30일 서울 견지동 전법회관 3층 대회의실서 '깨달음과 보살행, 보살행과 깨달음' 이라는 주제로 화합과혁신위원회 4차 기획위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수많은 수좌들이 선방에서 수행하지만 보살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세간의 목소리에 깨달음이 무엇인지 되짚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명법 스님(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은 최근 철학에서 논의되는 '인간성' 의 개념에 주목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간과 기계인간의 차이가 모호해지고, 믿음과 신앙이 새롭게 정의되는 현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가치 중 하나가 '인간행위' 라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명법 스님은 "신을 전제하지 않는 신앙은 인간행위에 주목한다. 인간행위는 바로 타자를 향한 열린 행위"라며 "불교에는 보살도에 이 같은 가치가 녹아 있다.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의 경지로 이끌겠다는 보살도는 타자에 대한 믿음이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어 "깨달음과 보살도는 동전의 양면이고, 서로를 성취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깨달음도 1960년대 전후세대가 주장한 자아중심적 해석이 아니라 보살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회복이 필요하다. 승가공동체 복원과 함께 사부대중공동체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재영 성균관대 초빙교수는 2016년 초 급부상한 '깨달음 논쟁' 과 관련해 불교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재해석했다. 서 교수는 '깨달음은 이해' 라는 일각의 주장을 부정하면서 "깨달음은 불교가 불교여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핵심 가치"라고 역설했다.

서 교수는 "깨달음을 이해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종교성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교수나 학자가 가장 종교적이고, 헌신적 보살행을 해야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깨달음의 가치를 〈법화경〉 화성유품의 화성(化城)에서 찾았다. 화성은 존재하지는 않지만 험난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사막의 신기루 오아시스와 같다. 깨달음에 대한 도달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깨달음이 있기에 이를 향한 원력을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깨달음은 탈종교화 시대에 버릴 전통이 아니라 오히려 부각해야할 대목"이라며 '육방예경 교훈' 처럼 깨달음의 의미를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육방예경 교훈은 한 장자의 아들이 의미를 모른 채 부친의 유언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서남북과 위아래를 향해 절하는 모습을 부처님이 보고 각 방향의 의미와 윤리를 설한 이야기다.

서 교수는 "깨달음 지상주의에 대한 문제는 수행의 양태나 잘못된 수행문화를 고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광덕 스님이 '보현행으로 보리 이루리' 라고 설했던 것처럼 '보살행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 는 방향의 해석이 한국불교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고명석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 역시 현재 한국불교가 지나치게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현대인들이 종교에 깨달음이나 해탈, 영생보다 개인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위로를 바란다는 2014년 대국민여론조사를 제시했다.

고명석 연구원은 "모든 존재와 나 자신이 둘이 아님을 이해하고, 이는 모든 존재에 대한 이타행으로써의 보살원력의 길이 된다"며 "〈반야심경〉에서 언급되는 보살행 그 자체가 한없이 자유롭고 공포도 없는 위없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기에 대승불교는 공에 대한 통찰과 이타적 보살행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대충대종사 유지, 바르게 잇자"

천태종 10월 1일, 제2대 종정
대충대종사 26주기 열반대재



천태종은 제2대 종정을 역임한 대충대종사의 26주기를 맞아 10월 1일 열반대재를 봉행했다.

천태종 제2대 종정을 역임하며 종단 중흥을 이끈 대충대종사의 26주기 추모 열반대재가 단양 구인사에서 엄수됐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10월 1일 구인사 광명전 5층에서 '대충대종사 제26주기 열반대재' 를 봉행했다. 열반대재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문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감사원장 진덕 스님 등 종단 스님, 류한우 단양군수,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 유족과 신도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대충대종사께서는 상월원각대조사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고, 깊은 수행으로 일심삼관의 묘리를 득도하셨다"며 "지혜와 자애한 덕성으로 제방의 불자들에게 원만각행의 명철한 심지를 일깨워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문덕 스님은 "대종사님은 '자각각타의 대승보살행은 진심을 다해 실천 궁행하는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므로 쉬지 말고 정진하고 끊임없이 자비를 실천하라' 고 하셨다"면서 "오늘 대종사님의 열반일을 맞아 법체와 우렁찬 설법이 그리워진다. 우리는 추모의 법석을 통해 대종사님께서 펼쳐 보인 대승보살의 큰 자비와 지혜를 더욱 바르게 이어갈 것을 다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한우 단양군수는 추도사에서 "대종사님은 자신에게 엄격했고, 신도들에게 자상하고 따뜻하셨다. 상월원각대조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중생구제 불법홍포에 일생을 바치셨다"며 "단양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와 대조사 · 대종사님의 은덕 덕분이다.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자"고 당부했다.

김영주 단양군의회 의장도 "지금같이 혼란한 시기 대종사님의 실천적 불교가 필요할 때"라며 "오늘 이 자리는 대종사님이 이룬 은덕을 되살펴 보는 자리다. 우리 모두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다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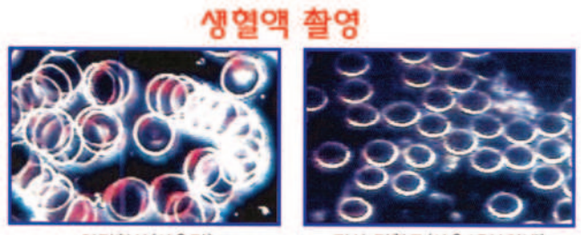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8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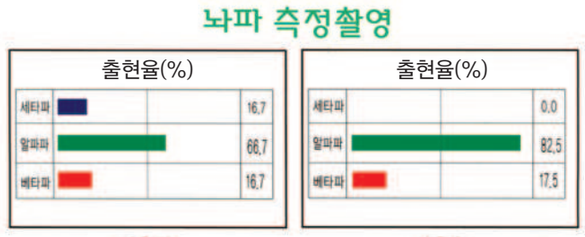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어깨, 허리통증, 방사능 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놔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검버섯 제거 현상



“이전삼기로… 수마노탑 국보 승격 도전”

〈二顚三起〉

정암사 · 정선군,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원 ‘한창’

강원도 정선=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1년부터 2차례 추진해 탈락
부결 원인 분석 · 보완 3번째 도전
9개면 100개 단체 응원 현수막

분황사계 모전석탑 전통 전승해
석회암 갈아서 만든 벽돌로 조성
조선 초 형성된 보궁신앙 대표塔

한국 5대 적멸보궁 중 한 곳인 강원도 정선 정암사(주지 천웅)로 가는 길. 정선 곳곳에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을 기원합니다.”

그렇다. 초가을에 찾은 정선은 지금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원’ 으로 뜨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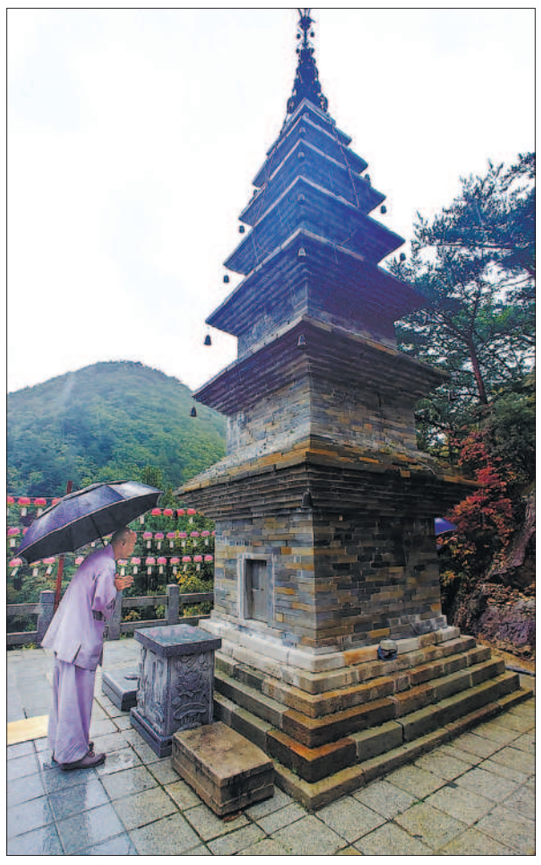
이는 10월 2일 제18호 태풍 ‘미탁’ 의 영향으로 인한 장대비에도 아랑곳 않고 정암사 수마노탑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탑돌이를 하는 주지 천웅 스님과 정선군 관계자들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었다.

정암사와 정선군은 지난 2011년부터 수마노탑 국보 승격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화재위원회에서 2차례 심의가 이뤄졌지만 모두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국보 승격을 위한 3번째 도전에 나선 정암사와 정선군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배수진을 쳤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학술대회만 4회가 개최됐고, 3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또한 탑에 대한 정밀실측 및 모니터링 조사도 2차례 진행됐다. 지난 6월에는 정암사와 창건주 자장율사, 수마노탑을 대중에게 알리고 의미를 전하기 위한 ‘자장율사 순례길’ 도 개통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8월 문화재청의 실사가 이뤄졌으며, 이달 안에 관련 보고서가 작성되면 이르면 11월 중 국보승격 여부가 결정된다.

현장에서 만난 서건희 정선군 문화관광과장은 “두 차례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해 많은 준비를 했다. 그 만큼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면서 “4만여 군민이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을 기원하고 있다. 이 같은 기원 물결에 지역 개신교, 가톨릭계도 동참했다. 문화재청도 정선군의 염원을 실사를 통해 확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던 10월 2일,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이 수마노탑 앞에서 탑의 국보승격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인 정암사 수마노탑은 국보로 지정돼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문화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마노탑은 고려시대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전석탑이다. 기단 6단 · 탑신 7층 · 상륜부로 구성돼 있으며 탑의 높이는 9m이다.

한국에서도 드문 모전석탑은 재료를 벽돌처럼 쌓아서 탑을 조영한 ‘전탑계’ 와 석탑처럼 적층해 조성한 ‘석탑계’ 로 나뉜다. 국보 제30호 경주 분황사 모전석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 ‘전탑계 모전석탑’ 이며, 정암사 수마노탑도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모전석탑은 국보 4개, 보물 5개이며, 이중 전탑계 모전석탑은 총 4개(국보 2개 · 보물 2개)다.

정암사와 정선군 측은 수마노탑이 분황사 모전석탑 계열 전통을 충실히 계승해 건립된 탑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진한 정선군 문화관광과 학예연구사는 “수마노탑은 분황사 모전석탑에서 확립된 전탑계 모전석탑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으며, 기단부터 상륜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춘 국내 유일 모전석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장율사, 사리신앙과 연관된 보궁신앙의 대표성을 가진 성보이며, 국내 유일 석회암 모전석탑인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암사 주지 천웅 스님은 “조선 초기 오대산을 중심으로 사리신앙이 일어나면서 자장율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는 정암사가 부각되고, 이에 따라 수마노탑이 사찰 가람배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수마노탑은 자장율사 및 사리신앙과 연관된 보궁신앙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탑”이라고 밝혔다.

정암사와 정선군은 수마노탑이 국보로 승격되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 · 무형문화재가 공존하는 문화유산 도시로 발돋움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정암사 수마노탑은 정선군 최고의 유형문화유산”이라며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이 된다면 정선군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 · 무형문화재가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문화유산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암사는 실사가 이뤄진 지난 8월부터 수마노탑 국보 승격을 기원하는 100일 기도에 들어갔다. 기한을 100일로 잡았지만, 국보 승격 발표가 날 때까지 기도는 이어질 예정이다.

천웅 스님은 “실사를 기점으로 승격 발표까지 100일 기도를 하고 있다. 승격 이후 순례객들에게 신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신행프로그램을 개발하려 한다. 이를 통해 정암사를 보궁신앙의 대표 성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화합과 나눔으로 새로운 30년 맞자”

조계사 불교대학 설립 30주년 기념 문화축전 개최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이 총동문회기를 흔들고 있다.

조계사 불교대학이 설립 30주년을 맞아 9월 28일 조계사 경내에서 문화대축전을 개최했다.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해 불교대학 총동문회와 재학생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즉다 다즉일 문화대축전을 열었다.

1989년 10월 조계사는 현재 불교대학의 모태인 여성불교교양대학을 신설해 2년 동안 500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왔다. 매년 100명 넘는 동문 배출로 2006년 총동문회를 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오늘 ‘총동문들이여! 조계사로!’ 의 표어처럼 조계사 불교대학 동문들이 함께 발전을 이끌어 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조계사 불교대학 기수별 동문들이 참여하는 금강경 합송 경연대회도 열렸다. 또 쌀 500석으로 자비의 탑을 쌓아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을 통해 불우 이웃에게 전달하고, 불교인재 지원을 위해 15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수여했다.

노덕현 기자

봉은사, 서울 생전예수재 보유단체 지정

2016년 보존회 구성 후 성과…
국가 무형문화재 기관 추진



2018 봉은사 생전예수재 회향 무대서 진행된 의식의 한장면.

서울 봉은사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회장 원명)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52호 보유단체로 최근 지정됐다. 서울시는 10월 10일 시보를 통해 고시예정이다. 서울시보는 주간공시로, 지정 후 10월 3일 예정됐으나 개천절로 인해 10일 공시된다.

생전예수재는 전생에 지은 죄와 금생에 지은 죄를 살아 있을 때 참회하는 불교전통 의식이다. 조선 후기 〈동국세시기〉에 생전예수재 설행 기록이 있는 봉은사는 2016년 생전예수재보존회를 구성한 이후 올해 1월 서울시무형문화재 52호 종목지정까지 이끌었다.

사단법인 생전예수재보존회는 조계종 어산작법학교와 함께 생전예수재의 설행과 전승 교육을 통한 보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계종 어산어장 인묵, 어산작법학교 학장 법안, 인오, 도피안스님 등을 지도교수로 하여 조계종 교육법과 어산학교 설치령에 따라 교육을 진행한다.

생전예수재보존회와 봉은사는 2018년 8월 종목지정을 앞두고 대규모 생전예수재를 설행한데 이어 올해도 8월 19일 입재, 10월 6일 회향까지 49일간 생전예수재를 설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조선시대 풍속을 기록한 〈동국세시기〉에는 봉은사에서 윤달이면 생전예수재를 지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번 봉은사의 서울시 생전예수재 등재로 생전예수재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추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문화재청은 생전예수재의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천태종 단양 구인사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범음범패연구보존회와 생전예수재보존회 등이 보유단체 지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노덕현 기자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 7기 65명 배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가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 과정’ 수료생 65명을 배출했다.

민추본은 9월 19일 ‘7기 민족공동체 불교지도자과정’ 수료식과 토론회에 이어 21~24일 백두산 및 북중접경지역 현장순례를 실시했다. 수료식에서 본부장 원택 스님은 “수료식이 진행되는 날은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이다. 지난해 특별수행원으로서 평양을 다녀온 입장에서 감회가 남다르다”며 “비핵화나 평화가 쉽게 오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이 무력을 쓰게 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인사했다.

원택 스님은 이어 불교지도자과정을 마친 65명의 수료생들에게 각각 수료증을 수여했다. 아울러 마지막 강의인 4강은 ‘시대정신으로의 평화통일을 말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김진환 통일교육원 교수가 사회자로 나섰으며, 정영철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연희 사단법인 겨레하나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문화도시 부산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불교대축제

“1천 분의 스님과 10만(십만) 불자가 참여 합니다”

일시 : 2019. 10. 20(일) 오후2시
장소 :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축제의 시간”
송가인, 모모랜드, 더보이즈

| 주 최 | 사)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주 관 | 불교문화대축제조직위원회
| 특별후원 | 범어사, 삼광사, 통도사, 해인사, 쌍계사, 진각종, 태고종, 법연종, 건봉사
| 후 원 | KBS부산방송총국, 부산MBC, KNN부산경남방송, BBS부산불교방송, BTN불교TV, 부산일보, 국제신문,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e-붓다, 맑은소리 맑은나라, 부산시설공단
| 협 찬 | (주)동원개발, (주)경동건설, (주)삼정, (주)삼정기업, (주)BNK금융지주 부산은행, (주)고려화공, 은산해운항공(주), (주)국제식품, (주)대원플러스건설, 선보공업(주), 금상건설(주), 나라·동일의료재단, (주)송우산업, 세무법인 덕림, (주)금호, (주)DS종합건설, (주)건양산업, (주)동영골드프라자, (주)세강, 이진종합건설(주), (주)삼미, (주)고려노벨화약, 태금정(주), 누네빛안과, 고운세상김양제피부과, (주)와이씨테크

축제 당일 혼잡이 예상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대산 가을 적시는 문화 축제 열린다

2019오대산문화축제 '마음의 빛깔'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오대산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불교문화축제가 열린다.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는 10월 11~13일 오대산박물관 마을, 오대산자연명상마을OMV 일대에서 2019오대산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오대산문화축제는 16회를 맞이해 독특한 주제로 열린다. 바로 '마음의 빛깔' 이다. 월정사 측은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기운이 있다. 이심전심(以心傳心), 말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되는 빛깔"이라고 설명했다.

무형문화재 월정사 탑돌이 알려

이번 오대산문화축제 개막식은 강원도무형문화재 제28호인 월정사 탑돌이로 시작된다. 특히 개막식에서는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이 새롭게 작곡한 탑돌이 노래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월정사 탑돌이는 불교전통 신앙형태의 하나로 강원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 탑돌이 노래는 이런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개막식에서는 이밖에 김성녀, 주병선, 국악관현악단, 강원연합합창단 등의 무대와 오대보살 가면을 쓰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탑돌이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이다.

개막식에 앞서서는 백만원력 결집불사법회도 함께 봉행된다. 백만원력 결집불사법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참여하며 100만 사부대중의 원력을 모아 불교 미래를 밝히기 위해 열리는 법회다.

소리공양으로 불교수행 미적 승화

그 다음날 열리는 산사음악회는 음악성을 강조한 음악가들의 공연으로 열린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 음악감독이자 크로스오버의 거장인 양방언이 시공을 초월한 음악 세계를 보여준다. 또한 세상의 하나뿐인 목소리 가수 더원과 소프라노 차보람의 노래로 오대산사에서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다.



소리공양대회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불교의 수행법 중 하나인 염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대회로, 염불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되, 새로운 방법을 추구 장단, 랩 등 창작적인 요소를 더해 염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 캐릭터 · 이모티콘 공모전' 은 과거의 문화재가 미래의 문화재로 재탄생 되는 시간이며, 문화재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 강원도무형문화재인 방짜수저, 춘천필장, 불교목조각, 강릉단오제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대산 의궤박물관도 개관

이와 함께 오대산 사고에 있던 조선왕실 의궤를 전시하기 위한 오대산 의궤박물관과 월정사의 성보를 전시하는 월정사 성보박물관도 10월 11일 문을 연다. 오대산박물관마을로 구성된 이들 기관에서는 각각 '조선왕실과 오대산' 특별전, '오대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귀향전' 등이 11월 30일까지 열린다.

또한 '금강경을 품다' 라는 주제로 혜안 스님 서각 특별전과 가구디자이너 문승지가 탄허 스님이 강의 했던 서별당의 마루로 의자를 만들어 전시하는 특별전 등도 진행된다.

월정사 관계자는 "오대산에는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쉰다. 단풍과 오대산 문화축제의 각양각색의 마음이 어우러져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즐거운 한마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033)339-6616

"모교 후배 안전 도움 줘 기뻐요"

불자 선수 모태범 가족, 은석초에 소방물품 기부

불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모태범 씨와 그의 가족이 모교인 은석초등학교에 소방 안전 물품을 기증했다.

모태범 씨와 누나인 모은영 소방제품 전문제조 업체 '신영' 대표는 9월 30일 은석초등학교 소강당에서 '안전한 교실환경 조성 및 소방 안전 교육을 위한 소방 안전 물품 기증식' 을 개최했다.

이날 기증식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법산 스님을 비롯해 양형진 은석초교 교장, 정시화 동대부고 교장, 이영숙 동대부중 교장, 박현식 동국대 법인 사무처 총무부장, 모태범 씨 가족, 학생 및 학부모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모태범, 모은영 대표와 함께 자리한 모은영 대표 남편 이덕수 씨는 모두 은석초등학교 졸업생으로 후배들의 안전을 위한 물품을 기증한 것이어서 의미가 깊다. 이날 이들 가족은 가스계 · 분말 · 스프레이 소화기 · 휴대용 조명등 · 유도등 · 소화전 발신기 등 총 1491점 6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했다.

기증 직후 이사장 법산 스님은 "살면서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같이 은석 가족이 된 것은 귀한 인연을 얻은 것과 같다"면서 "모태범 씨와 모은영 대표가 후배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물품을 기증해줘 감사하다. 더불어 살며 소통하는 후학들을 양성하는 데 학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제품 전문제조 업체 '신영' 은 9월 30일 은석초등학교 소강당에서 '안전한 교실환경 조성 및 소방 안전 교육을 위한 소방 안전 물품 기증식' 을 열고 6200만원 상당의 소방물품을 기증했다.

모은영 대표는 "최근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예방 미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저와 가족이 모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일조해 기쁘다. 앞으로도 꾸준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태범 씨도 "10년 만에 모교에 와서 기쁘다"며 "좋은 기운을 받고 간다. 부끄럽지 않는 선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 신성민 기자, 사진= 노덕현 기자

육 · 해 · 공군 불교군종병 수련회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혜자)는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주 황룡원에서 육 · 해 · 공군 불교군종병 수련회를 실시했다.

수련회에 참석한 군종병들은 군종병 주특기를 부여받은 인가 군종병들로 육 · 해 · 공군 불교 군종병 총 80명이 참가했다.

이번 수련회서 군종병 참가자들은 군포교 현장의 핵심인력으로 군 사찰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불교 힐링 명상, 불교문화 유적답사 등을 진행했다. 또 군종교구장 선묵 혜자 스님의 법문과 함께 평화의 불 봉안도 함께 진행됐다.

혜자 스님은 "여러분들은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동료 병사들을 부처님 도량으로 인도하는 아주 막중한 의무를 맡은 분들"이라며 "군승법사와 함께 동료 병사들의 종교 활동을 잘 도울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군종병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마지막 날에는 소감문 작성 및 회향식을 끝으로 부대복귀가 이뤄졌다.

노덕현 기자

불교 크리에이터를 만나다 ②

"애들아! 사찰서 우리 친구 돼 볼까?"

강산 나투다픽처스 대표

"친구들을 꼬시고(?) 싶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누면 더 좋듯이 불교를 함께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불교사찰 탐방 콘텐츠 '아이고절런(IGO절RUN)' 으로 유명한 크리에이터 강산 나투다픽처스 대표는 최근 조계종 1기 불교크리에이터로 선정됐다.

강 대표는 이번 크리에이터 공모에서 '안녕, 불교' 라는 뮤직비디오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였다.

강 대표는 "제가 만드는 모든 컨텐츠는 흥미를 유발하려 만들고 있다"며 "불교에 대한 흥미가 불교를 더욱 알게 하리라고 믿고 있다. 이번 '안녕, 불교' 라는 뮤직비디오도 청년들이 조금 더 흥미를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사찰여행 프로젝트-아이고절런' 을 시작으로 다 같이 사찰여행을 가는 '위고절런(WEGO절RUN)' , 불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나가는 '불리버리(불교+딜리버리)' , 스님의 청년들에 대한 조언을 담은 '선문선답' , 불교 교리강좌인 '불경' 까지 여러 콘텐츠들을 제작했다.



강산 대표는 홀로서기였던 지난 불교 크리에이터 진용에 점차 젊은 세대들이 가담하는 것이 든든하다고 기대했다.

강 대표는 "처음 사찰에 갔을 때 그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 매료됐고 영상제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상 콘텐츠의 연출과 편집 등 모든 작업은 모두 강 대표의 몫. 하지만 오히려 1인 제작인 만큼 B-boy 활동을 한 그의 톡톡 튀는 감각이 담겨 있다.

"이번 불교 크리에이터에 저를 포함하여 7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우선 너무나 기쁩니다. 불교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생겼다는 것이 이제 불교도 젊어지고 있구나라고 느껴집니다."

앞으로 보다 새로운 콘텐츠로 불자들을 찾을 강 대표. 강 대표는 유튜브 아이고절런 구독을 당부하며 밝게 웃었다.

"아직은 비밀이지만 더욱 새로운 콘텐츠도 준비 중에 있어요. 현대불교신문의 많은 구독자님들 나투다픽쳐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아이고절런 구독!"

노덕현 기자

'나눔' 노래한 수국사 산사음악회

수익금 3050만원 장학금 · 복지기금으로 기탁

서울 수국사가 산사음악회 수익금 전액을 지역복지기금과 장학금 등으로 회향해 눈길을 끈다.

서울 수국사(주지 호산)는 9월 28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제6회 나눔의 노래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사진> '힐링 자비 음악회' 를 주제로 열린 음악회에는 불자와 시민 3000여 명이 몰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축제의 위상을 뽐냈다.

특히 수국사는 지정좌석 1000석에 대한 수익금 총 3050만원을 인재불사 장학금과 저소득계층 복지기금으로 기탁했다.

주지 호산 스님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복지기금을 비롯해 동국대 장학금, 은평구민장학재단 장학금, 리틀붓다합창단 장학금, 스노보드 알파인 국가대표 최보군 장학금, 구산동주민자치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후원금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호산 스님은 "한 표 한 표 수국사 나눔 음악회에 매년 표를 구입해주신 여러분이 최고의 내빈"이라며 음악회에 참석한 사부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음악회에는 한국적인 목소리를 대표하는 소리꾼 장사익 씨를 비롯해 불자 가수 우순실, KBS전국노래자랑 상반기 결선 대상 수상자 국악인 권미희,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8호 승무 전수자 정현숙, 세계 비보이 대회서 30여 차례 우승한 비보이그룹 퓨전엠씨, 수국사와 정해사 연합합창단, 제주 약천사 어린이합창단, 김경호 밴드 등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대중에게 선사했다.

한편 수국사 음악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일면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윤성이 동국대 총장, 강병원 국회의원, 김미경 은평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한글법화경 및 한글 · 한문사경노트



성파스님

• 1939. 출생
• 1960. 10 통도사 월하선사로부터 사미계
• 1970. 04 통도사 월하선사로부터 비구계
• 1971. 01 통도사 승가대학 졸업
• 1980. 02 학교법인 원효학원 해동중고등학교 이사장
• 1981. 03 통도사 주지 역임
• 1984. 06 성파 시조 문학상 제정
• 1985. 03 전국 시조 백일장 제정
• 1988. 05 학교법인 영축학원 (해동고등학교) 이사장
• 1990. 03 서법전 (PRESS CENTER SEOUL GALLERY)
• 1996. 08 전통염색문화강좌개설
• 2000. 05 십육만 도자 대장경 조성 완료
• 2007. 02 법인설립 (사)한국 전통 문화 연구원 이사장
• 2013. 04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위원
• 2014. 03 '도자대장경' 16만장 제작 (장경각 완료)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의원
• 2016. 06 성파 서법전 (한국미술관)
• 2017. 06 옻칠회화전_월인천강지화 (경남도립미술관)
• 2017. 09 성파 옻칠 도자전 (아라아트센터)
• 2018.03.20 통도사 방장(현)

性坡스님 쓴 『般若心經』 사경노트
값 20,000원





한글법화경



통도사 서운암편 『한글법화경』, 값 20,000원



한글법화경 사경노트



통도사 서운암편 『한글법화경 사경노트』, 전 7권(1질), 값 40,000원



모조지 노트



통도사 서운암편 / 전7권(1질) 70,000원

『한글법화경 모조지 사경노트』



모조지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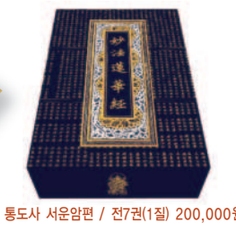


통도사 서운암편 / 전7권(1질) 70,000원

『한문법화경 모조지 사경노트』



한지 노트



통도사 서운암편 / 전7권(1질) 200,000원

『한문법화경 한지 사경노트』



(주)이화문화출판사 구입문의 02-732-7091~3 전국유명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중!!



범어사가 12년간 숙원사업으로 건립을 발원한 선문화교육센터가 10월 2일 개관했다. 완공된 선문화교육센터의 도량이 장엄하고 웅장하다.



선문화교육센터 개관식에서 범어사 방장 지유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개관식은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우중(雨中)에 진행됐다. 기념테이프 커팅 모습.

禪문화 대중화 원력, 하화중생 터전 닦다

범어사 선문화교육센터 개관… "중생 위한 禪요람으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341년 전 의상대사가 화엄도량으로 문을 연 범어사가 중생의 마음을 위로하는 새로운 터전인 '선문화교육센터'를 개관했다. 범어사는 먼저 개산대재를 봉행하며 의상대사의 화엄도리를 창건의 의미로 되새겼다. 천년을 넘게 이어온 수행정신을 이어받아 현대인을 위해 선문화교육센터 문을 열며,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위한 도량으로 도약했다.

금정총림 범어사(주지 경선)는 10월 2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개산대재를 봉행하고 이어 새롭게 문을 연 선문화교육센터로 자리를 옮겨 개관식을 진행했다. 18호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쏟아졌지만 범어사 대중스님과 불자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화엄도량으로 세워진 선문화교육센터의 개관을 축하했다.

개산대재에서는 헌향 및 헌다로 의상대사를 기리고, 참여한 내빈과 불자들은 범어사 개산의 의미와 현대인에게 미치는 선 정신의 정수가 소중하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선사이자 범어사 방장인 지유 스님은 "금정산 아래 의상대사가 세운 범어사는 지금까지 수행처로서 상구보리 역할을 했다면, 오늘 문을 새롭게 연 선문화교육센터는 중생에게 선의 도리를 여러 방편으로 설명하는 하화중생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사 개산대재 및 선문화교육센터 개관식에는 방장 지유 스님, 주지 경선 스님, 부주지 범산 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정미영 부산금정구청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동참했다.

범어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625~702)가 부처님의 가피로 왜구를 막고자 하는 염원에서 창건된 호국 사찰이다. 창건 이후 선 수행 도량으로 경허 스님, 성월 스님, 동산 스님 등 수많은 선사들의 수행처였다. 선찰대본산으로서 한국불교의 선풍을 이끌어 온 도량으로 역할을 다해왔다. 하지만 현대인의 힐링 안식처로 발돋움하기엔 장소가 협소해 법회 및 문화행사 때마다 한계를 직면해야 했다.

범어사는 12년 동안 숙원사업으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선문화교육센터 건립을 발원하며 준비했고, 2014년 전통문화사업 국고보조사업에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활기를 얻었다. 2016년 5월 범어사 임회에서 추진안이 통과됨에 따라 최종 부지를 사자암 아래 터로 선정, 설계 용역 입찰 및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 준비에 들어갔다. 2017년 2월 5일 착공식을 시작으로 불사를 진행했고 이날 개관을 맞았다.

중생 마음 위로하는 공간 불사
선문화관 · 템플스테이관 비롯
4개동에 수행 · 편의시설 담아
시민선방과 문화공간 운영 계획

선문화교육센터는 부산 금정구 상마1길 20 일원에 위치한다. 대지면적 6,077㎡(1,838평), 연면적 3,513㎡(1,062평)이며 지상 1~2층 4개동(선문화관, 선문화교육관, 템플스테이관, 다음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사업비는 95억 원(자부담 선문화교육센터 28억 원(40%), 템플스테이관 3억7500만원(15%))이 투입됐다.

선문화관은 1,472.58㎡(445평) 규모로 1층에 세미나, 연수교육, 문화공연뿐만 아니라 결혼식, 전시회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한 400석 규모의 대강당이 있으며 2층에는 다용도 문화공간 및 다양한 차를 시음할 수 있는 시설로 구성된다.

선문화교육관은 1,317.26㎡(398평)이며 1층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강당과 식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체계적인 불교 교육 공간으로 집중 활용되며 2층은 90여 평 규모의 시민선방이 운영될 예정이다.

템플스테이관은 499㎡(151평)이며 1층은 대방, 남녀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있고 2층에 화장실이 구비된 2인실 10개과 대방 등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총 100여 명의 인원을 수용하여 템플스테이 및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음관(茶音館)은 50여 평 규모의 다용도 공간으로 차문화 교육을 비롯해 회의, 세미나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개관을 축하하며 내빈들은 축사를 통해 범어사가 제공할 선문화와 정신은 현대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대독을 통해 "현대인들은 바쁜 삶속에서 자신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며 "이처럼 각박한 환경 속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고 바른 정신을 일깨우는 최고의 방책이 바로 선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박수관 범어사 신도회장은 "2년 7개월 만에 완공된 선문화교육센터다. 선 수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고 현대인들의 마음이 피폐한 가운데, 범어사는 행복의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시대의 부름에 답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원경 스님,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정미영 부산금정구청장도 축사로 선문화교육센터 불사를 축하했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외형적인 불사 완공보다 내실 있는 운영으로 선문화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경선 스님은 "현대인의 정신적 고통의 해답은 선문화에서 찾아야 한다. 범어사는 선문화관을 거점으로 부산시민들을 위한 선문화 대중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개관식은 외향적인 불사 완수를 축하하는 자리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개관식 후 불사 완공을 축하하는 문화공연이 펼쳐졌으며 불교문화를 알리는 사진전도 함께 열렸다. 개관식은 △테이프 커팅 △삼귀의 및 반야심경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감사패 전달 △격려사 △축사 △사홍서원 순으로 마무리됐다.



오곡이 무르익는 풍요로운 가을에,
부산 해운정사에서는 제5회 불조심인전등 다례대재를 맞이하여
오는 10월 20일부터 2박 3일간 '사부대중 주야용맹정진법회'를 개최합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스님들의 은혜를 기리며 참나를 찾는 참선 용맹정진과
함께 정성어린 공양을 올리는 뜻깊은 행사에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2박 3일 주야용맹정진

- 입 재 : 10월 20일(음9.22) (일) 오전 10시
- 회 향 : 10월 22일(음9.24) (화) 오전 11시
- 동참금 : 6만원 (스님은 무료)

※행사준비 관계로 참가하실 분은 미리 접수바랍니다.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

- 일 시 : 10월 22일(음9.24) (화) 오전 11시
- 장 소 : 해운정사 불심인 조사전(佛心印祖師殿)

대한불교 조계종 해운정사 주지 능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2로 40-6 (해운대역 뒤편 5분 거리)
문의접수 051) 746 - 2256, 744-4812
팩 스 051) 741 - 8882
홈페이지 http://www.seon.or.kr

키워드로 보는 Green Buddhism

6. 에필로그- 녹색불교로의 길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신도들이 EM발효액을 나눠 담으며 즐거워 하고 있다.



조계종에서 진행되는 '채식데이 기부데이' 협약식 모습.



통도사성보박물관 지열시스템 설비 현장을 스님이 살펴보고 있다.

녹색사찰, '그린부디즘' 나아가는 교두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최근 16세 소녀의 발언이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다. 그레타 툰베리라는 스웨덴 출신의 소녀는 뉴욕에서 진행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해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기후 변화 책임을 물었다. 그는 뉴욕에서 진행하는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무려 15일 동안 480km 바닷길을 태양광 보트로 이동했다. 비행기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도착한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그는 이렇게 일갈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고, 긴급함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도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은 악마나 다름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6세가 된 심지어 자폐증을 앓고 있는 그녀의 발언은 말과 행동을 일치하지 않는 어른 세대를 위한 준엄한 경고였다.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편리를 위해 '실천' 하지 않고 있는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했다.

이는 한국불교의 사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분명 불교는 생태적이며 순환적인 삶을 강조한다. 하지만,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사찰은 이 같은 문화가 어느 정도 퇴색됐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발간한 〈환경과 불교〉에 따르면 사찰의 환경 훼손은 지자체나 업체들로 인한 개발사업으로 인한 외부 요인과 사찰 관계자들의 무지 · 무관심으로 벌어지는 내부 요인으로 나눠진다.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진행한 주요 25개 사찰 대상 조사에 따르면 사찰 평균 일반쓰레기 발생량은 3만9385g이, 음식물쓰레기는 1만8039g이 발생했고, 재활용쓰레기는 1만8419g이, 재(齋)쓰레기는 60g이 평균적으로 나왔다. 이를 환산하면 사찰 평균 1일 1인당 발생 쓰레기량은 1401g이다. 이는 국민 1인 쓰레기 발생량보다 높다.

'필(必)환경' 시대, 사찰은 내부 문화를 생태 · 순환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가는 것이다.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다.

크게 발생하지 않는 양이지만 재를 지낸 후 나오는 쓰레기들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적지 않은 사찰에서 재 쓰레기 중 망자의 유품을 무단으로 소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품을 재활용하고 재의식품을 소각 가능한 종이류로 대체하는 방안이 장려돼야 한다.

일회용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다면 본지 기획을 통해 소개된 사찰들의 사례를 참고했으면 한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이 주지로 있는 고양 금륜사는 사중에서 일회용품을 최소로 사용한다. 금륜사는 신도들도 각자 머그컵을 사용하며 떡을 나눠줄 때는 비닐 대신 뻥튀기 과자를 활용했다. 동지팥죽은 유리로 된 용기나 다회용기로 나눠주니 신도들도 자연스럽게 가방이나 빈 통을 들고 다니게 됐다.

사찰음식의 대가인 정관 스님이 주석하는 백양사 천진암은 건강한 식자재 수급을 위해 일회용품을 줄이기 시작했다. 정관 스님은 직접 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사중의 일회용 종이컵을 전부 없앴다. 그리고 창고에 묵혀두던 스테인리스컵과 그릇들을 꺼냈다. 주말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에는 개인 전용 텀블러를 제공하고 각자 사용 · 관리하도록 했다.

한마음선원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EM(Effective Microorganism, 유용한 미생물군)은 순환적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아이템이다.

> **必환경시대 '녹색불교' 필수 과제**
>
> **사찰, 종단-불자 녹색화 연결고리**
>
> **사중 문화, 생태적 전환 · 실천 필요**
>
> **채식 · 일회용품 줄이기 등 나서야**
>
> **신도교육 통해 환경보살 이끌어야**

사실 일반 가정부터 사찰까지 하수구에 버리는 쌀뜨물은 수질오염의 주범이다. 쌀의 주성분인 녹말은 분해되며 산소를 소모하고 이에 따라서 쌀뜨물이 하천에 방류되면 물 속 산소가 급격히 줄어 생물이 살기 힘들어진다. 이 같은 쌀뜨물을 발효시켜 EM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다. EM은 탁월한 항산화력으로 최근에는 수질오염 저감 효과도 보고됐다.

EM 역시 불교계 몇몇 사찰을 중심으로 보급과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곳은 한마음선원이다. 한마음선원은 현재 안양본원, 포항, 대구지원 등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한마음선원 지원 15곳에서 EM실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마음선원은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전국지원에서 정기법회 후 발효액 만들기 체험학습과 발효액 나눔 행사가 진행된다. 어린이법회와 청년회 등을 통해 청년세대들에 대한 환경교육도 이뤄진다.

또한 EM 관련 활동을 배가하고자 지난 2018년 4월 비영리 환경단체인 'EM지구사랑작은실천'을 발족했으며, 이는 조계종 교육원이 지원하는 전법교화활동단체인 승가결사체로 선정됐다.

법륜 스님의 정토회는 산하 환경기구 에코붓다를 통해 2010년부터 EM교육과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다. 에코붓다는 외부업체의 도움으로 매주 한 차례씩 정기법회 후 교육을 진행, EM발효액을 만들어 무료배포 한다.

포항 보경사 주지 철산 스님은 조청 생산을 하며 발생한 잔여물로 EM발효액을 만들어 신도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지자체, 학교 등의 연못 정화나 하수도 청소를 위해 EM을 뿌려주고 있다.

이밖에도 위봉사, 망월사, 용주사, 범어사, 해운정사, 파계사, 상원사, 고운사 등 30여 곳에서 EM을 활용 중이다. 이를 감안하면 5000여 전국 사찰 중 EM활용이 많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다. EM활용을 불교 전반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스님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야는 불교계가 오래 전부터 고민해오던 환경 과제다. 특히 일선 사찰 중심으로 노력들이 이어져 왔다. 지열분야에서는 포항 천곡사, 통도사 성보박물관 등이 도입해서 활용 중이다.

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에너지 집중돼 있다. 평창 월정사, 광주 문빈정사와 전력 수급이 원활치 않은 산내암자인 설악산 영시암, 오세암, 봉정암, 아산 옥련암 등에도 태양광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어느 정도 생태적 전환이 이뤄진 방생문화는 이제 '자리이타형'으로 나아간다는 제언도 있었다. 단순히 포획되거나 구호된 동물을 풀어주는 것에서 이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방생문화가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방생프로그램은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법만)의 버드나무 방생법회다. 2018년부터 운영 중인 버드나무 방생 법회는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고 물고기와 새들에게는 산란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버드나무를 강과 하천 주위에 심어 생태계를 보존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불교환경연대는 여주 신륵사에 버드나무 묘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방생법회 요청이 들어오면 이를 분양하고 있다. 또한 4대강 수질 정화를 위한 자체 방생법회도 정기적으로 봉행 중이다.

세계적인 트렌드인 '비거니즘(Veganism)'을 방생문화에 접목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 '비거니즘'은 완벽한 채식이라는 '비건'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자연과 동물권 보호 등 전반적 생활습관을 포괄하는 것이다.

고기 1인분을 생산하기 위해 8인분의 곡물이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채식은 훌륭한 현대적 방생문화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방생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시즌에 맞춰 '채식 방생 주간'을 일선 사찰에서 진행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다.

사찰의 녹색화는 '녹색불교'로 나아가기 위한 교두보다. 종단이 추진하는 환경 종책을 실천하는 도량이자 교육과 실천운동을 통해 신도들을 환경보살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일선 사찰에서의 작은 실천들은 종단-불자로 연계되는 '녹색불교' 순환 고리의 시작이다.



10·27법난 제39주년 기념법회

지난 1980년 10월 27일 신군부 독재정권에 의해 자행된 '10·27법난'은 군인과 경찰 등 3만여 명의 공권력이 전국 5천여 개 사찰을 군홧발로 짓밟고 2천여 스님과 불교 관계자들을 연행하고 고문한 한국불교 근현대사에 있어서 최대의 수난사입니다.

올해로 '10·27법난'이 자행된 지 어느덧 3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역사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고통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불법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10·27법난'의 아픔을 역사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전달해야 합니다. 이에 '10·27법난 제39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일시 | 불기2563(2019)년 10월 24일(목) 오후 3시

장소 | 전통문화예술공연장(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문의 | 02)2011-1824(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

대한불교조계종 총 무 원

“통도사, 한국전쟁 야전병원이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용화전 미륵불 복장물 공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통도사가 한국전쟁 당시 부상병을 위한 치료 공간으로 활용됐음을 알려주는 사료(史料)가 발견됐다. 전쟁 당시 유물이 훼손되고 스님들이 머물 공간을 내어주는 등 시대 아픔을 위로하고 민생과 함께 한 통도사의 역사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귀감이 되고 있다.

통도사(주지 현문)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용화전(龍華殿) 미륵불소조좌상 복장 유물을 공개하며, 호국불교로 활동한 통도사 역할을 설명하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도사 경내에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주지 현문 스님은 용화전 미륵불 소조좌상 복장 유물인 연기문을 설명하며 “한국전쟁 당시 3000여 명의 부상병을 치료하는 육군병원이 통도사 내에 설치됐고 부상병 치료를 위해 스님들이 도움을 줬다. 연기문에는 당시 통도사 사찰과 각 법당, 요사채 및 암자는 무너지고 깨져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용화전 미륵불은 파괴돼 못 볼 지경이라고 설명돼 있다”면서 “이는 당시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연기문은 “불기 2977년 경인년(1950) 6월 25일 사변 후(佛紀二千九百七十七年庚寅六月二十五日事變後) 국군상이병 3000여 명이 입사하야(國軍傷痍兵三千餘名이入寺하야) 2979년 임진년(1952) 4월 12일에 퇴거(二九七九年壬辰四月十二日에退去)”라고 밝혀두고 있다. 이어 “즉 사찰 각 법당 각 요사 각 암 전부 퇴패되는(則寺刹各法堂各寮舍各庵全部頹敗는) 불가형언중 용화전 미륵전은 (不可形言中龍華殿彌勒佛은) 영위파손 돼 불가견여(永爲破損되야不可見餘)”라며 미륵불소좌상 조성 이유를 밝혔다.

확인된 연기문서 증거들 발견
6.25 전쟁 당시 3000여 군인
부상자 치료 위해 전각 비워줘
내년 한국전쟁 70주년 천도재

현문 스님은 “당시 군인들이 있는 동안 수많은 불상과 경판, 문헌 등 성보문화재가 훼손되고 유실됐다”며 “지장보살을 모신 명부전은 군교회로 사용되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목격한 김진조 의학박사는 군인들이 군홧발로 용화전을 드나들고 불상 앞에 재떨이를 놓고 담배를 피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설명에 따르면 설법전 자리는 당시 텃밭으로 군인들이 소를 잡아먹는 장소로 이용됐고, 종이로 만든 경책은 불쏘시개나 휴지로 사용되는 등 경내는 혼란을 겪었다. 하루 10명이 죽어나가며 사중에서 장례를 치러야 하는 힘든 일들이 매일 이어졌으며 정진하던 스님들은 걸망을 꾸리지도 못한 채 통도사를 비워야 했다. 하지만 일부 스님들은 부처님을 모신 도량을 떠날 수 없다며 부상병 치료를 도왔고 또 사하촌에 머물며 부상병 간호에 힘을 보탰다.



통도사가 한국전쟁 당시 부상병을 위한 치료 공간으로 활용됐음을 알려주는 문건이 발견됐다. 주지 현문 스님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용화전(龍華殿) 미륵불소조좌상 복장 유물을 설명하고 있다.

현문 스님은 “전란 중에 축산 구하 스님은 통도사로 피난 온 스님들을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비록 살림이 어렵고 세상이 어지러웠지만 대중을 위한 자비심으로 맞이한 통도사였다”고 강조했다.

통도사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영혼을 위로하는 수륙고혼천도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또 용화전 수리 및 보존과 미륵불을 모시게 된 연유를 널리 알린다는 의지를 밝혔다. 용화전 미륵불은 당대 율사였던 자운 성우 스님과 월국 정기 스님이 모연했으며 1952년에 조성됐다. 미륵불은 한국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발원한 스님들의 마음이 담긴 증거로 중요도가 높다. 복장 유물에는 연기문 외 미륵상생경, 일체여래전신사리보치진언, 진언, 오륜종자진언, 화취진언, 진언봉투, 복장봉투 등 8점이 함께 담겨 있다. 현재 복장 유물은 통도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

통도사는 수륙고혼천도재를 통해 1000미륵불을 봉안하고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나라가 융성하도록 국태민안을 기원할 예정이다.

현문 스님은 “내년이면 6.25 한국전쟁이 70주년을 맞는다”며 “통도사에서 발견된 이 자료는 격동기의 중요한 사료가 된다. 국가에서조차 기록되지 않은 내용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어 “선대스님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항상 함께 한 호국불교 역할을 보여주며 통도사가 전쟁 당시 31육군병원 통도사분원으로 활동한 사실을 국민들과 공유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불교사암연합회장 도완 스님이 장병들에게 연비를 하고 있다.

정읍 이순신연대 호국사 수계법회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 “행복한 병영생활 기원”

정읍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완)가 향토부대인 이순신 연대 장병들을 위해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정읍사암연합회는 9월 28일 이순신연대 호국사에서 불자장병들을 대상으로 삼귀의계, 오계, 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내장사 주지 도완 스님을 전계화상으로 진행된 수계법회는 정읍불교대학 학감 우일 스님, 정토사 주지 일묵 스님, 내장사 가운 스님, 노명종 연대장을 비롯한 장병 60여 명과 정읍불교대학 재학생들이 동참했다.

도완 스님은 “계를 받아 수지하는 것은 진실한 불제자로 거듭 나겠다는 다짐”이라며 “불제자로서 행복한 병영생활 보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명종 연대장은 호국사를 신축하고 장병들의 종교활동을 적극지원해준 도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지난 1년간 법회를 이끌어온 권태정 군법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강한 상병은 “수계법회를 마련해준 정읍사암연합회 스님들과 내장사 도완 스님에게 감사드린다”며 “계를 잘 지키고 생활하는 불자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찬란한 가야문화, 시민과 함께

제3회 가야효문화축제, 10월 12~13일 김해서

가야문화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축제로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사단법인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송산)은 10월 12~13일 김해 수릉원 일대에서 제3회 가야효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는 12일 오후 5시 국악과 현대음악의 콜라보를 보여주는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해 오후 6시 30분 개막식을 진행한다. 가수 김재경의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특별공연으로 가수 김연자의 화려한 무대가 막을 올린다.

13일 오전 10시에는 ‘제2회 가야청소년 국악 · 민속무용 경연대회’와 ‘제2회 가야문화권 청소년 백일장’이 열린다. 어르신을 위한 만발공양 후 오후 1시에는 효 콘서트 및 경연대회 시상식이 이어진다. 오후 3시에 제2회 가야 ‘극’ 페스티벌이 열리며 마지막으로 김해시민과 함께하는 금강경 독송과 클래식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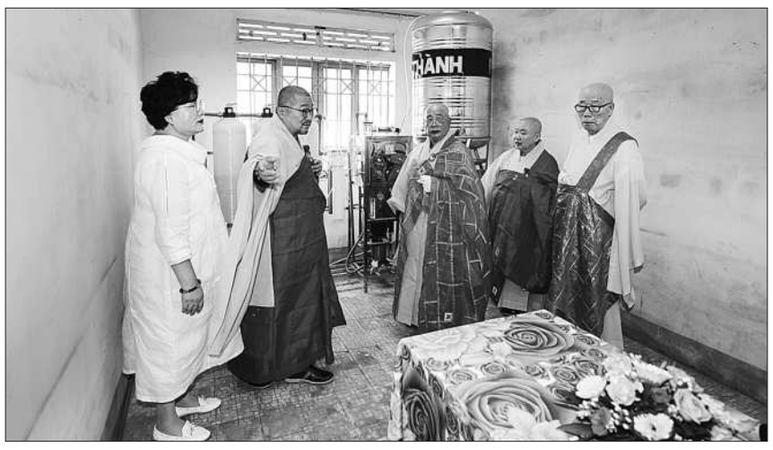
이사장 송산 스님은 “가야문화진흥원은 가야역사 문화를 바로 세우는 지렛대가 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베트남 아이들 행복 발원한 태고종

전북종무원, 노쩔럼초교에 태양열전기 식수대 설치

태고종 전북종무원(원장 진성)은 9월 22~27일 베트남을 방문, 24일 부오흔시 노쩔럼초등학교에서 정수식수대 준공식을 개최했다. 23일에는 베트남 닥락성 프억빈사(주지 민후엔)와 광푸시문화회관을 방문해 초 · 중학생 등하교용 자전거 100대를 전달했다.

24일 노쩔럼초교에서 열린 식수대 준공식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前총무원장 도산 스님,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 지방종회의장 법전 스님, 전북영산재보존위원회 원경 스님, 총무국장 행담 스님, 명현 스님, 탑사 총무 정해 스님과 박금태 복성산업개발 회장, 박용주 주일건설 대표, 이경희 혁신금속 대표 등이 참석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왼쪽 두 번째)이 종단 스님들에게 새로 설치한 식수대를 설명하고 있다.

노쩔럼초교에 설치한 식수대는 태양열전기를 이용한 정수기로 학생들이 보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원했다.

준공식에서 진성 스님은 “한국과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충과 효를 중시하고 불교가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등 많은 점에서 닮았다”며 “비슷한 정서를 갖고 있는 양국은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식에 앞서 베트남방문단은 23일 닥락성에 위치한 프억빈사와 광푸시문화회관을 방문, 복성산업개발의 후원으로 초 · 중학생 등하교용 자전거 100대를 전달했다.

진성 스님은 “이 자전거를 타고 힘차게 달릴 어린이 여러분을 상상하니 먼 길도 피곤할 줄 몰랐다”고 기쁨을 표했다. 스님은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발원했던 부처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힘껏 달리기 바란다”며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후원해 주신 복성산업개발과 탑사 신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 홍보대사 ‘동자 스님’ 체험을

홍법사, 동자승 단기출가자 모집

홍법사가 천진불의 미소로 시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동자 스님들을 모집한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제14기 동자승 단기출가 참가자를 사전 모집한다. 홍법사 단기출가 동자스님은 행자 생활과 삭발수계식을 거쳐 정식 스님 생활을 체험하게 된다. 이어 부처님오신날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통도사, 부산연등축제,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지방경찰청 등에서 활동을 펼친다. 4~6세 아동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단기출가 기간은 2020년 4월 10일부터 31일까지 총 21일이다.

홍법사는 “어린 시기 부처님을 향한 불심의 씨앗을 심는 선근의 기회이자 포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좋은 기회”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051)508-0345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종정 대행 : 혜 인
총무원장 대행 : 법 광 사서실장 : 천 산 율원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 원로원 :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법성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동오
문화부장: 태산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율조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호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무공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법광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송산
포교국장: 영암
국제포교원장: 천산인월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대덕화
호계원장: 법철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명원
규정국장: 지산
호법부장: 법안
호법국장: 지호
감찰원장: 정오
감차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금산
감찰2국장: 인산
비구니회장: 지성
비구니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혜산, 해원
재무: 도은, 정해
교무:본각, 수정
교육: 보림, 성담
문화: 남산, 진화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해인
복지: 화광, 무연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의식: 련성, 지해

▣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현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울산종무원장: 법철
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남종무원장: 도명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베트남종무원장: 청목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기자: 나윤하
사회부기자: 이근진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문화국장 황산, 사회국장 법산
이사: 혜원, 정산, 각원, 덕산,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경기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경북총림 대국사

▣ 전국신도회
전국신도회장: 홍창석
고문: 설주성
수석부회장: 윤근
여신도회장: 김준자
서울신도회장: 서우연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 청년신도회
회 장: 손정일
홍보처장: 이근진
기획대리: 나윤하
기획실장: 홍의현

◆ 학교법인 삼화학원 ◆

▣ 불교조계종 대학림
학 장 : 혜일
교 수 : 해운, 진산, 태산, 덕산, 현조, 혜승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오,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 불교조계종 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 중국남경중의약대학
교 장 : 혜인
부 교 장 : 손영진
한국총장 : 홍창석
교학처장 : 손 정
학생처장 : 지안영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2026~7 / 팩스 :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kr (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 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우주와의 조화로 자유 꿈꾸다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⑱ 팻 슈타이어의 폭포

잔잔한 연못에 비친 파란 하늘과 물결에 반짝이는 아침 햇살이 문득 삶에 대한 작은 경이감을 불러 일으키듯, 어떤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의 심상은 때로는 인간의 내면에 깃든 정서를 일깨운다. 물은 생명과 창조의 근원적 상징이며 시간의 흐름, 변화와 사멸 그리고 부활과 재생의 메타포이다.

커다란 화폭에 물이 흘러내린다. 어두운 배경에서 돌출된 빛나는 흰 물줄기는 무언가에 부딪쳐 무수한 포말과 물방울을 만들어 내기도 하며, 마치 화폭을 벗어나 아래로 끝없이 떨어질 것처럼 느껴진다. 평면인 화폭에서 공간감을 자아내는 기법은 전통적으로는 르네상스 이래 알베르티가 고안한 투시원근법이나 여타의 방법이 있지만, 팻 슈타이어(Pat Steir, 미국, 1940~)의 작품 〈폭포 Waterfall〉에서는 배경의 무겁고 정적인 어둠에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역동적이고 빛나는 물의 움직임의 대조를 통해 감상자로 하여금 신비한 깊이감을 불러 일으킨다.

팻 슈타이어의 그림은 많은 현대 추상화 작품과는 달리 우리들에게 익숙한 느낌을 준다. 현대 많은 작가들은 일상의 시각적 경험에서 인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식별 가능한 형태보다는 인간 정신에 내재하는 추상성과 정신성에 주목한다. 현대 미술의 흐름에 익숙하지 않은 감상자에게는 이러한 그림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생경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슈타이어의 그림은 추상표현주의의 기법과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불러 일으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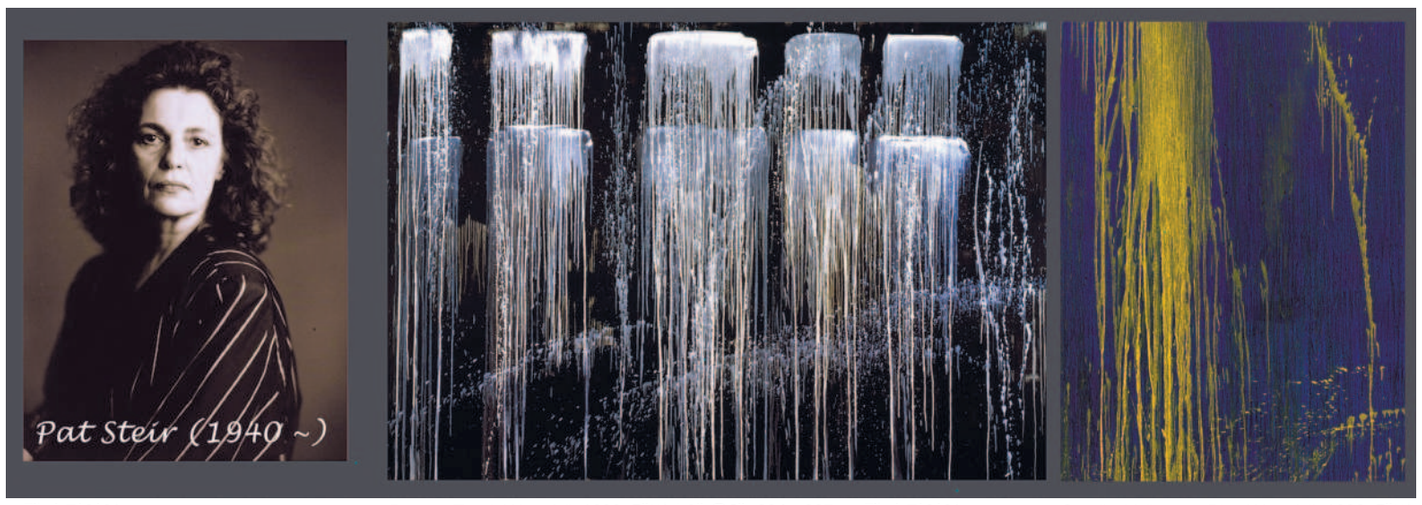
팻 슈타이어는 유대계 러시아인 이민자 집안의 장녀로, 1940년 미국 뉴저지주의 뉴어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실크 스크린 기술자, 윈도우 디스플레이, 네온사인 디자인 등의 일을 했지만, 여건만 되었다면 아버지도 예술가가 되었을 것이라고 슈타이어는 회상했다. 그녀의 기억으로는 자신은 5세 때부터 예술가가 되거나 시인이 되기를 꿈꿨다고 한다. 슈타이어는 성장하여 예술 분야에서 유명한 뉴욕의 프랫 인스티튜트 (Pratt Institute)에서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판화, 타이포그래피 등을 공부했고 거기서 예술학 학사 학위를 받았다.

슈타이어는 학창시절 필라델피아 미술관을 자주 찾았다. 전시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들고 다니던 책과 입고 있던 코트를 벗어 옆에 내려 두고, 반쯤 베어 먹은 사과까지 바닥에 놓아 둔 채 전시된 그림에 몰입했다고 한다. 그녀의 기이한 행동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미술관 경비원은 늘 "여기서 이러면 안됩니다. 나가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알았다고 나갔던 그 학생은 이내 다시 돌아와서 여전히 그러고 앉아있었다. 이러한 일을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경비원은 "아이구, 또 왔네… 할 수 없군!"하며 포기했다고 한다.

이처럼 젊은 시절의 그녀는 다분히 고집스러운 기질이 있었고, 때로는 페미니스트적인 경향과 결부되어 언급되기도 한다. 물론 슈타이어가 당시 페미니스트 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기 보다는 화가로서 최초로 그린 그녀의 자화상과 그에 관한 다수의 인터뷰 때문이기도 하다.

폴 세잔의 영향을 담고 있는 여성 누드 자화상은 작가 자신의 설명에 따르자면, 일종의 '투쟁의 기록'이다. 20세기 중반의 미국은 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젊은 여성 화가가 느끼는 정신적 갈등은 적지 않았으리라. 팔이 뒤로 젖혀져 묶인 여성의 누드에서 아랫배(자궁을 상징하는)에는 신비한 불꽃이 묘사되어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슈타이어는 그 그림을 "물감 자국의 느낌, 매끄러운 물감 자국, 거친 물감 자국의 느낌, 이것은 싸우면서 자기의 길을 헤쳐나가는 여성의 그림이며, 작가로서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강한 욕구"라고 이야기한다. 이어서 그녀는 "지금 시대(1940~50년대)에는 여성은 가정과 직업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 불꽃은 세상에 발을 내 딛고 홀로 직면하여 자신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는 충동과 '정상적'이고 수용 가능한 보통의 여성이 되고자 하는 욕망 사이의 투쟁"이라고 증언한다. 상징으로서의 이미지를 탈피하여 캔버스 위에 여러 겹 덧칠되어 교차된 물감의 질감들이 자유롭게 뿜어내는 뉘앙스에 귀기울인다. 그녀는 어떤 구체적 이미지 벗어나 비로소 끝없는 생성되는 이미지의 세계를 만난다.

슈타이어의 작품 세계에서 전환점은 브뤼헐 연작(1982-1984)이다. 바니타스(Vanitas) 회화는 16세기 중, 후반에서 17세기에 이르는 바로크 시대에 성행했던 미술 사조로 삶의 덧없음을 일깨워주는 정물화 그림들이다. 얀 브뤼헐(Jan Brueghel the Elder)은 정물화로 알려진 17세기 네덜란드 화가로, 당시 네덜란드의 민속을 주제로 한 우화적인 그림들을 남긴 바로크 시대의 대가인 피터르 브뤼헐(Pieter Bruegel the Elder)의 아들이다. 아름다운 꽃은 언젠가 시들기 마련이고, 건강한 젊은 육체는 세월이 흘러 늙고 병들어 결국 해골만 남는다. 바니타스 회화에서는 꽃과 해골이 흔한 소재로 쓰인다.



팻 슈타이어.

Dragon Tooth Waterfall, 1990, 캔버스에 유채, 234 x 337 cm팻 슈타이어

Smaller Yellow on Blue Waterfall, 1992, 캔버스에 유채, 305 x 213 cm

슈타이어의 〈브뤼헐 연작〉은 어떤 의미에서 크로스워드 퍼즐(글자 맞추기 놀이)과 유사하다. 3점의 작품 가운데 가장 큰 것이 가로 8개, 세로 8개 총 64개의 그림 조각의 격자 형태로 만들어진 이 연작은 하나하나의 화폭이 제각기 다른 스타일로 그려져 있다. 어떤 그림 조각을 보면 전통적인 정물화의 기법을 읽을 수 있는 반면, 다른 그림 조각에는 인상파적인 필치가 전해지고, 또 다른 곳에선 마크 로스코의 색면 추상과 같은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거대한 하나의 바니타스 작품이 된다.

6미터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그림을 하나의 캔버스에 그리는 것은 과거에 비해 20세기의 기술 수준으로는 어렵지도 않고 값비싼 작업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고 수많은 사각형의 화폭으로 이루어진 격자 형태로 작품을 제작한 것은 피에트 몬드리안 이후 이어진 모더니즘, 기하학적 추상 및 개념 미술에 대해 던지는 하나의 질문이었다. 바니타스 회화의 여러 상징들처럼 슈타이어의 마음 속에서는 그 시대에 유행하던 추상 미술, 개념 미술들의 사조는 이미 퇴색하고 박제화된 그 무엇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시기에 슈타이어는 수묵화를 비롯한 중국 예술작품을 접하게 되었다. 서양 회화에서 그림은 화가가 붓으로 화폭의 모든 부분을 칠하고 묘사하며 다듬어 가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동양의 수묵화는 용묵(用墨)의 방법에 따라 먹과 물, 그리고 종이 또는 천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성질에 따라 흐르고, 번지고, 심지어 먹물이 흩뿌려지고 스며들며 그림이 완성된다. 슈타이어는 중국의

우연이 만든 변화 중시
자유로운 무위의 '도' 구현
변화 해방감 · 자유의 감각 전해

수묵화를 통해 깨달은 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중국의 문인화, 그리고 남송(南宋) 시대의 도자기, 여러 그림들을 보면서 나는 그림을 그리는데 반드시 붓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호방한 붓질로 특징 지워지는 일품(逸品) 화풍 수묵화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슈타이어는 화가로서의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폭포 waterfall〉 작품군을 시작하였다.

살짝 기울인 캔버스의 상단에 물감을 듬뿍 묻힌 붓을 사용하여 가로로 칠한다. 그러면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감의 흔적이 다양하고도 불규칙적인 리듬을 만들어내며 스스로 그림을 완성한다. 붓을 사용하는 대신 물감이 든 통으로 직접 캔버스에 물감을 뿌려서 흘러내리게 하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의 제작은 간단하게 생각되지만 그 결과 얻어지는 이미지는 매우 풍부하고 복합적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시각적 상상을 불러 일으킨다. 물론 얼핏 단순하게 보이는 이러한 작업에도 작가 자신의 독특한 기획과 디자인, 그리고 작가의 오랜 작업 과정에 따른 고도의 숙련성과 심미안을 필요로 한다.

팻 슈타이어는 우연성을 회화 작품에 도입했다는 측면에서 추상표현주의의 대가인 잭슨 폴록(Jackson Pollock)의 액션 페인팅을 떠올리게 하지만, 슈타이어 작품의 본질은 우연성 그 자체보다 우연이 만들어내는 시간의 변화와 흐름을 중시한다. 화가의 영혼과 아무것도 칠해지지 않은 하얀 캔버스가 조우하는 순간을, 잭슨 폴록은 즉각적인 내적 충동과 우연의 산물로 빼곡히 채운다면, 슈타이어는 자신의 붓끝을 떠난 물감들이 스스로 흘러내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기다린다. 이런 점에서 슈타이어는 잭슨 폴록보다는 조용하고 명상적인 아그네스 마틴(Agnes Martin)의 작업방식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이는 슈타이어 자신의 표현에 따르자면, "그림이 스스로 그림을 그리도록 내버려두는", 말 그대로 '과정의 예술'이다. 슈타이어의 작품에서 마음의 모든 것을 잊어버려 허(虛)에 이르는 장자의 심재 좌망(心齋 · 坐忘)의 상태와 무위(無爲)의 경지에 대한 체험을 엿보게 된다.

1980년 만년의 존 케이지를 만난 일이 팻 슈타이어의 작품 세계에 〈폭포〉와 같은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킨 동기 중 하나였을지 모른다. 존 케이지는 당시 전위 예술의 선구자이며 작곡가였으나 전통 조형예술의 장르인 페인팅과는 직접적인 관련을 찾기 어렵다. 화가인 슈타이어가 존 케이지에게서 받은 영감은 도가(道家)의 노장사상과 선불교(禪佛敎)의 정신세계였다. 8년 후 케이지는 작고했지만, 그에게서 받은 정신적 유산은 슈타이어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었다. 자연, 인간 그리고 우주의 조화를 추구하는 티벳 철학과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무위의 도가 사상은 그녀의 작업세계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쳤다.

슈타이어의 작업에는 작가와 캔버스 사이, 치밀한 긴장과 집착 사이 조용한 여백이 빛난다. 두터운 붓질, 격렬한 액션,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인위적인 세부 묘사들은 슈타이어의 작업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어둡고 건조한 배경에 묽게 희석한 물감이 자연적인 흐름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릴 뿐이다. 슈타이어는 한 인터뷰에서 "모든 작업은 탐색과 실험의 과정입니다. 나는 작품에서 완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

물감이 흘러가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작품의 완성을 위한 모든 집착을 버리고 시간의 흐름에 맡기는 슈타이어의 작업에서 에고를 벗어나 텅 비어 충만한 마음의 실체를 바라보고, 매 순간 마주하는 무한한 삶의 신비를 만난다.

사물은 고정된 상태로 머물지 않으며 그럴 수도 없다. 그리고 삶에는 단 하나의 정답도, 확고부동한 진리도, 고정된 실체도 없다. 우리는 때때로 그 예측 불가능함을 형벌처럼 견뎌야 한다. 아마도 변화에 대한 두 가지 태도, 즉 불안감에 휩싸여 변화를 거부하는 방식과 변화를 통해 일종의 해방감과 더불어 자유를 느끼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알지 못함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러한 자각 속에 기꺼이 머물겠다는 의지를 통해 불가지성과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 과정은 우리를 삶의 그 고정되지 않은 무상의 측면을 통해 살아있음의 생생함과 눈부신 환희로 이끈다.

무심에는 일체의 마음이 없다.
여여한 바탕 그대로여서
안으로는 나무나 풀과 같아 동요함이 없고
밖으로는 드넓은 허공과 같아
막히거나 걸리는 경계가 없다.
여기에는 일정한 시공도 모습도 없고
얻거나 잃을 것도 없다.

(無心者無一切心也 무심자무일체심야) (如如之體 內如木石 不動不搖 여여지체 내여목석 부동부요) . (外如虛空 不塞不礙 외여허공 불색불애) (無能所 無方所 無相貌 無得失 무능소 무방소 무상모 무득실)

황벽선사(希運:?~850) 〈傳心法要〉 중에서

〈미술학자〉

종도로서 종단소속감 고취와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의 증대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불기2563(2019)년 10월 14일(월) 14:00~17:00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
■ 토론회 내용
- 진행사회 : 지상스님(총무원 총무국장)
- 좌장 : 보각스님(승려복지회 위원,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 주제1 : 종단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제도 도입안
발제 – 박종학(승려복지회 사무국장)
● 주제2 : 원불교의 노후보장제도(후생사업회비를 중심으로)
발제 – 이인광교무(원불교 공익복지부)
● 주제3 :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도입 시 스님들의 정서상 고려사항
발제 – 주경스님(수덕사 부주지)
● 종합토론 : · 묘장스님(중앙종회의원)
· 미수스님(동화사 박물관장)
· 해덕스님(화엄사 복지국장)
· 동준스님(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이천시장애인복지관 관장)
· 공방환(승려복지회 위원, 전 부산식약청장)

■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및 승려복지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드립니다.
- 전화 : 02-2011-1727/ 010-2926-1726 팩스 : 02-733-3603
- E-mail : pjh65@buddhism.or.kr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에너지(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고 급 : 개인의 기에너지 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기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노래에 살고 잔치에 사는 불교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⑱ 전국노래자랑과 독일맥주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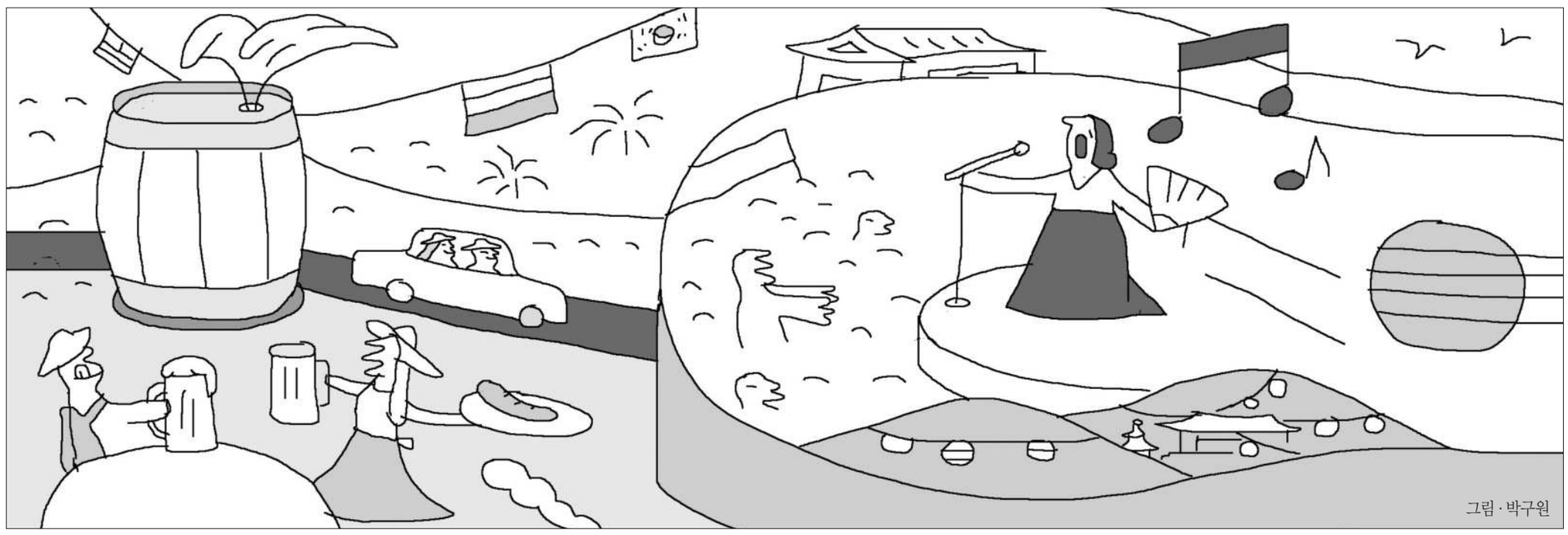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남해에는 숨겨진 자랑거리가 많다

지난 주 남해에서는 넉넉한 가을만큼이나 풍성한 들을 거리와 볼거리 행사가 비단결처럼 펼쳐졌다. 우리나라 사람이 옛날부터 음주가무(飮酒歌舞)를 즐긴다고 중국 사람들도 혀를 내둘렀지만, 남해 분들처럼 흥이 많고 신명 잡히면 엉덩이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다. 국군의 날이었던 1일에는 오랜 만에 남해에서 '전국노래자랑' 녹화가 있었고, 개천절인 3일부터 5일까지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독일맥주축제'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묘하게도 그 사이에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가 이 뜻 깊은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뻔했다. 작년에도 태풍 때문에 '맥주축제'가 취소까지 되 버려, 너나 없이 많은 분들이 걱정이 태산이었다. '노래자랑'은 남해유배문학관 광장에서 실내체육관으로 옮겨졌고, 축제 때는 구름은 조금 끼었어도 내내 날씨가 좋아 다들 한 시름 놓았다.

아닌 게 아니라, 남해군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요즘 너무 비가 잦기는 하다. 며칠 걸러 큰 비가 내리니, 남해처럼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은 고장은 가을걷이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염려스럽다. 벼를 거두면 이어 마늘이나 시금치를 심어야 하는데, 땅이 마를 틈이 없으니, 근심이 더욱 커진다. 남해에 사는 우바이 우바새를 위해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한 보름만이라도 허락해 달라고 부처님께 통사정하고 싶은 심정이다.

며칠 전 나는 내가 사는 고현면에서 읍으로 버스를 타고 오다가 아주 유쾌한 경험을 했다. 진주에서 들어오는 버스를 탔는데,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이 성품과 인정, 게다가 언변까지 두루 갖춘 분이었다. 그날따라 면 지역에서 버스를 타신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기사분이 이 분들과 재치 있는 재담을 주고받아 무료함을 달래주었다.

이 분 들 중 상당수가 보건소를 가시는 분이었나 보다. 보통 때는 버스가 보건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승객들을 내리는데, 나이 들고 몸 어딘가 아파 가시는 분들이라 그 거리도 고역이었다. 한참 버스 안 분위기를 돋우던 기사분이 앞을 내다보면서 "대사(고현에 있는 마을 이름이다.) 아지메들, 보건소에 내리재. 요 앞에 내려드릴 테니, 딴 데 가선 여기서 내려줬단 말 마소." 하며 갓길에 차를 정류시켜 주었다.

다들 "고맙구로! 고맙구로!" 하시면서 입에 웃음을 가득 담고 내리시는데, 보는 나도 기분이 절로 좋아졌다. 버스 운전, 그것도 시외버스 운전은 무척 중노동이라 피로도가 높을 텐데도 저렇게 유쾌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낙천적인 남해 사람의 선한 품성을 보는 듯했다. 저런 정겨움을 보고 느끼면 한 번 올 관광객도 인정에 감동해 두 번 세 번 오지 않을까?

다시 돌아가, 노래자랑은 그야말로 입추(立錐)의 여지가 없을 만큼 인산인해였다. 광장보다 비좁은 공간 탓이기도 했지만, 만석을 넘어 서서 볼 자리도 없어 밖에서 서성거린 분들이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동네 사람이 올라와 노래 솜씨를 자랑할 때면 곳곳에서 플래카드가 꽃잎처럼 나부꼈고 덩달아 박수를 치며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과장 좀 섞어 체육관 지붕이 날아갈 정도였다.

다른 약속이 있어 끝까지 보고 오지 못해 섭섭했지만,(비를 쫄딱 맞았다.) 한 해 내내 농사와 어업 때문에 시달린 몸을 목청껏 부르는 노래로 훨훨 날려버리셨을 것이다.

맥주축제의 떠들썩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앞에 '독일'이란 곁말이 붙은 것처럼 이 축제는 삼동면 '독일마을' 일원에서 벌어지는데, 워낙 유명해 전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일부러 축제에 동참하려고 오는 분들도 많다. 맥주와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가 학익진(鶴翼陣)처럼 어우러져 찾는 수고가 아깝지 않다. 독일산 소시지와 다채로운 맥주를 즐기노라면 정말 독일의 어느 마을에 온 듯한 기분이 든다. 독일마을에는 '파독(派獨) 기념관'도 있어 함께 구경하면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

그렇게 남해는 이번 한 주 노래와 축제의 향연 속에서 인심도 나누고 시름도 덮으면서 행복한 날들을 만끽했다. 한 해 내내 축제가 끊이지 않는 남해군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다.

전통 깊은 불교 축제와 화방사 산사음악회

중생들을 고해(苦海)에서 제도(濟度)해 해탈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만들어진 불교니, 해묵은 번뇌를 씻어줄 불교 축제가 없을 수 없다.

가장 큰 축제라면 역시 음력 4월 8일에 있는 '부처님 오신 날' 축제다. 이 날은 불교 4대 명절의 하나인데, 그 밖에도 2월 8일의 '출가일'과, 2월 15일 보름날의 '열반일', 그리고 도를 깨치신 12월 8일의 '성도일(成道日)'이 여기에 들어간다. 속세의 축제와는 분위기가 다르지만, 부처님의 큰 뜻과 한량없는 대자대비심을 본받으려는 발심(發心)의 축제인 것만은 분명하다.

음력 7월 15일에 치러지는 우란분절(盂蘭盆節)도 축제라 할 만하다. 생전의 업장(業障)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진 조상의 넋을 구하기 위해 올리는 의식이다. 조상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나 역시 선업을 쌓아 극락에 가려는 바람을 담는 날이니, 경건함과 함께 흥겨움이 절로 우러나는 행사다. 조상만 아니라 나도 죽음에 대비해 죽은 뒤의 공덕(功德)을 미리 닦는 예수재(豫修齋)도 축제가 아닐 수 없다.

> **대중과 함께하는 문화 자리**
> **유교의 엄숙주의와 대조돼**
> **다양한 문화축제 개발 필요**

고려시대 때는 팔관회(八關會)나 연등회(燃燈會)가 때마다 열려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했다고 한다. 이런 아름다운 축제가 맥이 끊긴다면 흥겨움의 화신인 우리 민족으로서는 너무나 큰 손실일 것이다. 일부 재현되고는 있지만, 만인이 즐기는 축제로 거듭 나기를 기다린다.

요즘의 불교 축제로 새롭게 등장한 것이라면 뭐니 뭐니 해도 '산사음악회'를 빠뜨릴 수 없다. 처음 어느 사찰에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가을철에 맞춰 성대하게 열리는 산사음악회는 말 그대로 산사에서 즐기는 음악의 축제다. 인기 가수와 그 지역의 예술단체가 참가해 사부대중과 승가의 고승대덕들이 어깨춤을 추는, 승속일체(僧俗一體)의 걸판진 축제를 모르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고려팔만대장경의 탄생지 우리 남해에도 당연히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읍내에서는 법흥사에서 '보물섬문화한마당'이란 이름으로 예술 축제가 열린다. 올해는 10월 6일에 열렸는데, 잊지 마시고 내년에 꼭 한 번 찾아 흥겨움을 누리시길 바란다.

더 크고 신바람을 몰고 오는 산사음악회는 고현면에 있는 화방사(花芳寺, 주지 승언 스님)에서 펼쳐진다. 올해는 10월 19일(토) 오후 4시부터 개막된다. 올해의 음악회는 '호국문화제'란 이름 아래 열리는데, 호국영령을 위한 '진도 씻김굿' 공연도 있고, 국민가수 송대관 씨와 정율스님, 한가빈 씨 등이 출연해 방문객들을 맞이한단다.

이 산사음악회를 전후로 10월 12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고현면 일대에서 '대장경판각지 역사문화 탐방' 행사도 있고, 11월 8일(금) 오후 2시에는 읍내 유배문학관에서 팔만대장경과 '삼국유사'를 쓰신 일연(一然) 스님의 업적을 주제로 한 학술 심포지엄도 열린다.

나도 학술 심포지엄에 참여한다. 남해에서 태어나 남해를 공부의 장(場)으로 삼아 열공(?) 중인 김봉윤 선생의 논문에 질의를 맡았다. 김봉윤 선생은 일연 스님의 제자들 12분이 대장경 판각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동음이자(同音異字)인 스님도 17분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번에 공부하면서 일연 스님이 1249년부터 1261년까지 물경 12년 동안 이곳 남해에 주석(駐錫)하시면서 대장경 판각에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연 스님은 정안(鄭晏)의 초빙으로 남해 정림사(定林寺) 주지를 지내셨고, 이후 길상암(吉祥庵)에 계시면서 길상암의 요사채였던 봉소헌(鳳笑軒)에서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를 저술하셨다. 김봉윤 선생은 그간 남해가 대장경의 판각지였다는 사실을 연구한 글들을 모아 '팔만대장경과 남해'(고려대장경 판각성지보존회 간)라는 저서도 출간했다. 아주 재미있게 쓴 책이니,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공감하시기를 바란다.

너무 남해 자랑만 한 것 같이 겸연쩍지만, 어쩌겠는가!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우주 삼라만상도 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행사들이 궁금하신 분은 화방사 종무소(전화 055-863-5011)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선비들도 더불어 즐겼으면 좋겠네

불교의 다양한 축제와 잔치에 견줄 때 유교에서 여는 축제는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공자께서는 축제와 여흥을 무척 즐겼던 것 같다. '논어' 향당편(鄕黨篇)에 보면 공자는 "술을 마시면 한량이 없었지만, 술주정을 부리는 일은 없었다.(唯酒無量 不及亂)"고 했으니, 절제하면서도 흥겨움의 도락을 멀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유교는 '도덕군자(道德君子)'를 내세우며 엄숙주의에 빠져버렸다. 유교에도 엄연히 '강호가도(江湖歌道)'의 풍류가 존재하고 '음풍영월(吟風詠月)'의 낭만이 깔려 있으니,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육신과 정신의 무릉도원을 소요(逍遙)하는 여유를 가져도 좋았을 법하다.

대유학자인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 선생도 '낮 퇴계 밤 퇴계'가 달랐다고 하지 않는가. 사실 겉으로는 군자연하면서 축첩(畜妾)은 당연하고 기방 출입은 문턱이 닳아라 뻔질나게 들락거린 선비들의 위선(僞善)은 알 만한 사람이면 다 안다. 과(過)한 것도 문제지만 지레 자기 검열에 빠져 불급(不及)하는 것도 참된 도학자의 모습은 아닐 듯하다.

맹자(孟子)도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 해서 지배자들끼리만 재미 보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즐기라고 일갈하신 바 있다. 시회(詩會)니 수계(修禊)니 해서 행사가 없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그들만의 축제'였지 백성들의 동참은 불허했다.

시나브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다.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에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집안싸움만 하지 말고, 산으로 들로 사찰과 암자를 찾아 노래와 축제를 즐기는 지혜롭고 신바람 나는 삶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이런 공염불만 하지 말고 나부터 밖으로 나가야겠구나.

〈소설가〉

제 103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義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정, 법고)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나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강일 : 10월 첫째주 월요일
◆ 강의일시 : 매주(월)오후 1시 ~ 4시 30분
◆ 담임교수 : 기봉스님 (무형문화재 50호 전수조교)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102기 강의중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6시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선동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義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02)741-0495~6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02-2004-8200

1 불교의 현대화 —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2 불교의 생활화 — 생활 속의 지혜와 자비로꽃 피는 가르침
3 불교의 세계화 —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 을 검색하세요!
신문을 구독하시면 생활안내 / 불자정보(사찰, 포교당 양도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易理作名法
(당신도 作名大家가 될 수 있다)



이름을 한번 잘못 지으면 평생 후회하게 되고, 다시 개명(改名)해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주역을 전혀 몰라도 능히 작명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설과 작명 방법을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였습니다. 30여년간 연구하고 개발한 저자의 역리작명법은 다른 작명법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본서에는 이름에 쓰면 절대로 안되는 불용문자(不用文字)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작명과 개명하는데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법원이 선정한 인명용한자(人命用漢字) 8,142자 전부를 수록하였습니다.

易理作名法(503쪽) 著者 : 孫中山 會長 (전, 대구미래대학 강사)
서점판매가 : 40,000원 (스님 판매특가 : 25,000원)
■입금계좌 : 기업은행 530-002326-01-014 (예금주 : 손상용)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10-9391-5699

권위·형식 타파한 '喝' 외친 선지식

〈할〉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⑱ 임제 의현과 임제종 선풍

임제의 행적과 기연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는 밥을 먹어야 하고, 정신적으로도 충족되어야 한다. 그 정신의 충족이란 무엇으로 주식을 삼는 걸까? 필자는 '자유'라고 생각한다. 역사 이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어느 나라나 투쟁과 혁명이 있었다.

물론 자유는 인간으로서 기본 가치를 찾고자 한 것이지만, 불교에서는 번뇌로부터 벗어난 해탈, 정신적 자유를 말한다. 이 자유를 선어(禪語)로 멋지게 개념화한 선사가 임제 의현(臨濟義玄, ?~867)이다. 임제는 관념적인 전통이나 사상적 권위, 형식과 타성의 굴레에서 과감하게 벗어난 인간 해방을 부르짖었다.

임제에 의해 개산된 임제종은 선종 5가 가운데 위앙종에 이어 두 번째로 산문을 열었다. 임제종은 조동종과 함께 오늘날까지 종지(宗旨)가 이어지고 있는 선종이다. 백양사에 주석한 서옹 스님이 생전에 주창하던 '참사람' 운동은 임제의 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임제가 선풍을 펼치는 시기는 사회적으로도 혼란한 시대였다. 당대 안사의 난(755~763)과 회창파불(845~847)이 거듭 발생해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면서 인간의 삶까지 피폐해졌다. 또한 문화적으로는 한유(768~824)·이고(?~844) 등을 주축으로 유교에서도 인간 본질에 관한 탐구가 전개되던 시기이며, 정치적으로도 권력이 수도권의 황제 중심에서 지방 호족들의 권력으로 이동되었던 시대에 임제는 활동하였다.

임제는 조주(曹州)의 남화(南華, 현 산동성) 사람으로 호는 임제, 휘(諱)는 의현이다. 임제는 어려서부터 특이한 성품에 효자였다고 한다. 출가해 처음에는 불교학 연구에 몰두했으나 불도의 길에는 교학으로 미칠 수 없음을 통렬히 깨닫고 선에 전념하였다. 스승 황벽을 만나 간명직절한 기연(機緣)으로 깨달음을 이루었다.

또한 임제의 깨달음에 빼놓을 수 없는 선사가 있는데, 대우(大愚)이다. 황벽이 상당(上堂)해 법을 설하는 중,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는 대우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

임제는 대중에 머물다가 스승 황벽의 말을 듣고, 대우를 찾아뵙기로 하였다. 임제는 대우를 찾아가 말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왔습니다."

그날 밤 임제는 대우 앞에서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경전의 내용을 마음껏 말했다. 대우 스님은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다음날 아침 임제에게 말했다.

"멀리서 찾아온 자네를 생각해서 어젯밤에는 자네의 말을 들어주었네. 그런데 자네는 예의도 모르고 허튼 소리만 계속 지껄이더군."

대우는 말을 끝내자마자, 몽둥이로 몇 차례 때려 문밖으로 내쫓았다. 임제는 황벽에게 와서 그대로 이실직고를 하니, 황벽이 말했다.

"대우는 자네에게 훌륭한 선지식이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 말에 임제가 또 대우를 찾아갔으나 대우는 "염치도 모르고 또 왔네"라고 하면서 몽둥이로 또 두들겨 팼다. 임제가 황벽에게 돌아와 말했다.

"대우 스님의 몽둥이질 속에서 깨닫게 해주신 은혜는 백겁 만겁에도 갚을 수 없습니다."

얼마 후, 임제가 또 대우에게 찾아가니 이전과 마찬가지로 몽둥이를 들었다. 임제도 이번에는 몽둥이를 막아내면서 대우를 넘어뜨렸다. 대우 스님은 임제의 이런 행동을 보고 말했다.

"내가 산속에서 일생을 쓸모없이 보내나 했더니, 오늘에서야 제대로 된 제자를 하나 얻었군."

임제는 대우로부터 세 번이나 찾아가 세 번의 몽둥이질을 받아 가면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근기가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법이다. 임제는 황벽과 대우의 기연으로 활안(活眼)의 종사로 선종사에 우뚝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또 한 명의 임제의 스승이 있는데, 진주 보화(鎭州普化, 860~874)이다. 보화는 반산 보적(盤山寶積, 720~814)의 제자로서 생사해탈의 전형을 보인 인물로 풍광(風狂)의 선사로 알려져 있다. 보화의 풍광이 담긴 행동과 언어는 임제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보화가 열반에 들기까지 임제와 가까이 지낸 도반이다. 임제의 법맥을 정리하면, 6조 혜능-남악 회양-마조-백장-황벽-임제이다.

황벽·대우 등 선지식 만나 깨달음
하북 임제원 주석하며 제자 양성
번뇌 벗어난 자유, 禪語로 개념화
〈임제록〉 후대 '어록의 왕' 칭송해



임제선사탑인 징영탑(澄靈塔). 임제 입적 후 세워졌다. 8각 9층탑으로 높이는 30.7m이다.

임제는 깨달은 이후 황벽 문하에서 얼마간 머문 뒤 여러 곳을 행각하다가 하북성(河北省)의 진주(鎭州) 임제원(臨濟院)에 머물렀다. 임제라는 법호도 그가 머물렀던 임제원에서 비롯된다. 선사는 선풍을 펼치며, 수많은 제자들을 길렀다. 임제는 867년 입적했는데, 시호는 혜조(慧照), 탑호는 징영(澄靈)이다.

인혹(人惑)

임제의 선사상은 이 같이 정리된다. 임제는 전통이나 권위를 부정하고 청정한 자성을 지닌 자신만을 자각하기 위해 인혹을 물리쳐야 한다고 하였다.

"도를 닦는 사람들이여! 그대들이 법다운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결코 사람을 미혹되게 하는 것(人惑)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안에서도 밖에서도 무언가 마주치는 것은 모두 끊어 죽여 버려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할 수 있다. 일체 사물에 걸리는 바 없이 철저한 해탈자재(解脫自在)의 경지를 얻는 것이다." –〈임제록〉

유교주의 국가에서 스승을 죽이고, 부모를 죽이라는 표현은 매우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오해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부모·친척·부처·조사 등에 얽매이지 않는 주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쓰인 강한 어조일 뿐이다. 수행자는 모름지기 '진정(眞正)한 견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관념, 즉 조불(祖佛)의 가르침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주체성을 확고히 지니게 되면, 반드시 해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임제는 인혹과 관련해 출가에 대해서도 '출가는 구도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부모와 친척을 떠나는 것이요, 출가한 이후에도 부처나 아라한의 권속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출가 이전보다 못한 것이니 참된 출가는 인혹을 철저히 끊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자유(自由)

임제는 자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 불법을 배우는 구도자들은 무엇보다도 진정견해(眞正見解)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그대들이 진정한 견해를 얻는다면 생사에 오염되지 않으며 거주(去住)의 자유를 누릴 것이다. 다시 특별한 진리를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위대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임제가 의도하는 바는 삶과 죽음에 물들지 않는 진인(眞人)이 거주의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진정견해'란 〈임제록〉에서 자주 반복되는 말로서 수행의 결과를 의미하며, '거주'란 인간의 삶과 행위를 총결하는 표현이다.

임제가 말하는 자유는 존재 가치를 결정해 가면서도 현실 그대로에 적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느끼는 진실된 자각이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서는 곳마다 진리의 땅이 되게 하라(隨處作住立處皆眞)'는 뜻이며 현실긍정의 입장을 나타내기도 한다.

참사람, 무위진인

다음은 어느 누구나 차별 없는 참사람이 있다고 하는 무위진인에 대해 살펴보자. 무위진인(無位眞人)·무의도인(無依道人)·무의진인(無依眞人) 역시 인간의 본원적인 자유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인간 존중 사상과 일치한다. 무위진인에서 '인(人)'이란 지금 목전에서 그의 설법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부처이며 조사임을 말한다. 따라서 무위진인은 어떤 계위에도 속하지 않으며 분별심이나 차별의 위상(位相)이 없는 참사람으로 인간 누구에게나 본래부터 내재해 있는 절대 주체를 말한다. 즉 불성(佛性)·법성(法性)·자성(自性)·주체(主體) 등 그 자체를 말한다. 또한 마조의 즉심(卽心)과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임제가 법을 설했다.

"여기 빨간 몸 덩어리(赤肉團) 안에 한 차별 없는 참사람이 있어서 항상 여러분의 면문(面門)을 통해서 출입(出入)한다. 아직 보지 못한 사람은 똑똑히 보고 보아라."

그때 한 승려가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차별 없는 참사람입니까?"

임제가 선상(禪床)에서 내려오더니 그 승려의 멱살을 잡고 말했다.

"이르라, 이르라."

잠시 후 그 승려가 무엇이라고 대답하자, 임제는 그를 밀치며 말했다.

"이 무슨 똥 막대기 같은 무위진인인가!"

–〈임제록〉

'적육단'이란 사람의 심장을 가리키는 말로서 여기서는 인간의 육신을 말한다. 무위진인은 일정한 모습이나 형태가 있지 않으면서 스스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존재이다. '무위진인이 무슨 똥 막대기인가'라는 구절은 임제가 무위진인을 설하면서도 벌써 말로 표현된다면 어긋나는 것이니 일정한 틀에 고정화하지 말라는 경계이다.

붓다가 깨닫고 나서 보니, 중생들이 깨달을 성품을 지니고 있으면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탄식한 것처럼, 임제도 제자들이 불성을 구족하고 있으면서도 부처임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 과격한 행동으로 연출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대로 임제 선사상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근간 및 특징이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임제 사상에 일관(一貫)하는 점은 혁신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의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존엄성이 강조되어 있다.

둘째는 전통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현실적인 삶에 입각한 불법을 주장하면서 철저히 자신만을 믿는 신념이다. 이는 '마음이 부처'라는 철저한 자각의 종교임을 강조하는 선사상으로 하북의 무인(武人)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다.

셋째는 임제의 제자 교육은 당시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선종사에서 임제의 제자 교육방법은 훌륭한 교육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임제할 덕산방'이라는 말이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로 임제는 제자를 교육할 때, 소리를 지르는 할(喝)을 행했던 대표적인 선사이다. 〈임제록〉은 선사상의 이론을 체계적이며, 통쾌하게 설해져 있어 후대에 '어록의 왕'이라 불리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동국대학교 미래융합 교육원
정행스님의 융합 가족세우기
2급과정 수강생 및 청강생 모집

- 불교의 새로운 수혈 상담기법과 실천법 -

■ **대상** : 제한 없음, 누구나 관심 있는 분
■ 상담사 및 강의하실 분, 창업하실 분 모집
■ 마음공부에 부족함을 느끼는 분
■ 내면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
■ 자신의 문제에 접근 해결 하고자 하는 분

■ **교육내용** : 가족과의 관계에서 얽힘을 풀어내는 집단상담 개인상담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내면의 고민이 현상학적으로 드러나고 고민과 직면할 수 있으며, 치료 및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조직상담, 기타

서울 동국대 미래융합 교육원 학술관 279호에서
매주 화요일 19시 ~ 21시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습니다.
안내 간사 **010-5212-7949**
집중워크숍 : 매월 둘째 토요일 오전 10-17시 참여가능
내담자는 접수순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

◈ 가족세우기 각 지부 모집 ◈
도시에 위치하고 수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 된 곳
안내전화 **010-8634-7851**

부산 수영지부
전철 남천역 2번4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주소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72-19호 학마을 명상 선원에서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합니다.
안내 : **051)754-3375 / 010-8634-7851**

새로운 가족 **동대구 지부 (융합명상심리상담 아카데미)**
전철 반야월역 1번출구 할리스커피 옆 건물 오토바이가게 2층
주소 : 대구시 동구 안심로 251번지 (2층)에서 **9월 29일 일요일 10시** 첫강의가 펼쳐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 내 : **053)-625-0089** / 반야행 : **010-9568-7447**

※관심이나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가까운 지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융합명상 심리상담 아카데미(학마을명상)

삭발에 가사장삼의 스님을 보면...

세상물정에는 좀 어두운 분....하며 어설프게 채워놓은 염불시설 때문에 한국 사찰의 스님들이 스트레스와 땜질보수로 이중고를 겪습니다.

최고 염불시설의 길!

앰프다루기 1초의 간단견본으로 법당에서 소리를 비교! ... 장난감 소리의 차이를 확인 후 현 법당시설비의 절반값에 견본 이대로의 시설만이 어설픈바가지 시설 때문에 받는 이중고에서 벗어나 평생 염불이 신명나는 가장 확실한 최고의 염불시설로 가는 길입니다.

▣ 설악 신흥사 및 토굴까지 일천여곳 형편따라 소리공학 맞춤시공 (방문시 명단제공)
▣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확! 달라지는 소리체험 후마이크만 구입 가능
▣ 본품은 시중에 없음...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이 글은 법적증서**)

▣ 사찰 전체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이백구십만원~삼백구십만원
▣ 제품 국산, 마이크는 이태리산, 무상A/S기간 7년, 할부가능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 하나만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방송시설 전문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Projector EPSON
MASS Concert MICROPHONES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HITEC 하이텍 미디어 대표 박공희

성불 탁마, 친구가 중요해



新 불교사자성어

㉟ 탁마상성(琢磨相成)

'탁마상성(琢磨相成)'은 '서로 탁마해서 불도를 이루게 한다(琢磨相成)'는 뜻으로 새벽 종송에 있는 말이다.

사찰에서는 아침저녁으로 예불을 한다. 예불은 부처님께 드리는 문안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예불을 올리기 전에 꿈나라 속의 대중을 깨우는 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 도량석과 새벽 종송(鍾頌)을 한다. 도량석은 목탁을 치며 천수경 등 염불을 외우면서 도량을 순회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새벽 종송은 '새벽 종(鐘)'으로 도량석이 끝난 다음에 하는 법식인데, 종을 치면서 귀감이 되는 명구를 염불하듯이 외우는 것을 말한다. 저녁 예불 때 하는 저녁 종송도 있다.

새벽 종송은 약 15분 동안 한다. 종송(鍾頌)의 글은 마음을 울리게 하는 명구들이 많다. 그 가운데 '오종대은 명심불망(다섯 가지는 잊지 말라)'이 있고, 그 속에 '탁마상성 붕우지은(琢磨相成, 朋友之恩)'이라는 말이 있다. 서로 절차탁마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해주는 벗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뜻이다. 벗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문구라고 할 수 있다.

'탁마(琢磨)'는 '절차탁마(切磋琢磨)'를 뜻한다. 유가의 〈시경(詩經)〉에 있는 문구인데, 옥(玉)을 자르는 것을 '절(切)'이라 하고, 다듬는 것을 '차(磋)'라 하며, 옥을 쪼는 것을 '탁(琢)'이라 하고, 돌처럼 가는 것을 '마(磨)'라고 한다(더 자세한 풀이도 있으나 생략). 절차탁마는 학문이나 덕행을 갈고 닦는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 한 인간의 인격이나 학문, 깨달음도 절차탁마하지 않으면 절대 큰 그릇을 이룰 수가 없다. 많은 세월 동안 반성과 성찰, 그리고 절차탁마를 거쳐서 한 인격이 형성되는데, 내 경험으로는 적어도 60세는 넘어야 어느 정도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더라는 것이다.

불교에는 '선우(善友)'라는 말이 있다. '좋은 벗', '착한 벗'을 말하는데, 세속에서도 친구를 잘못 만나면 인생을 버린다. 어떻게 하다가 좋지 못한 친구와 어울리게 되고 그러다가 돈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난겨울 북촌에 있는 초당 순두부 집에 가서 식사를 했다. 맞은편에 학교 동창쯤으로 추측되는 나와 나이가 비슷한 두 남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매우 관심이 가는 이야기라서 자세히 들어보았다. 두 사람 모두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서 퇴직금을 거의 날렸다고 했다. 그 일로 마누라에게 꼼짝 못하게 되었고, 하루 만원씩 용돈을 받아 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하루를 보낸다는 신세타령이었다. 만원이면 점심 한 끼, 소주 한 잔 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덧붙었다.

이와 같이 대부분 가까운 친구나 동창, 또는 친척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사기를 당해서 퇴직금을 날린 경우가 많다. 이렇게만 본다면 친구란 중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다.

빠알리 경전의 하나인 〈싱갈라경〉이 있다. 매우 교훈적인 경전인데 〈육방예경〉, 〈선생경〉이라고도 한다. 거기에는 나쁜 친구를 만나서 얻게 되는 여섯 가지 폐단을 언급하고 있다. 또 사귀어서는 안 될 사람과 사귀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나쁜 친구와 어울리는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과오가 생긴다. 술주정, 폭음, 과식, 사기, 거짓말, 폭력…… 싱갈라여! 이 여섯 가지는 나쁜 친구를 사귀는 까닭에 일어나는 과오이다." 과식을 제외한다면 모두가 다 사회악에 속한다. 사회악은 지탄의 대상이다. 게으름에 빠지는 것도 친구를 잘못 만나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고 말씀하신다.

"게으름에 빠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과오가 생긴다. '춥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덥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너무 이르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배고프다'고 하면서 '배부르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다. 해야 할 일은 매우 많은데도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는 없던 재산이 갑자기 생길 리가 없다. 또 이미 모은 재산도 곧 없어지게 될 것이다. 싱갈라여! 이것이 게으름에 빠진 사람에게 생기는 여섯 가지 과오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조수가 쳤다면 설두 점검 없었을 것



격절록 강설

㉟ 조수한국 2

[評唱 2]

宗師家見僧 便問便勘. 看他是箇漢 別機宜 辨賓主. 一問便知落處. 這僧棗樹見來 似有衲僧氣息 便問 "近離甚麼處" 僧云 "漢國" 樹云 "漢國天子還重佛法也無" 僧云 "苦哉 賴值問著某甲 問著別人則禍生也" 棗樹是作家宗師也 不忙却道 "作箇甚麼" 僧云 "人尚不見有 何佛法可重" 這僧擔一擔禪來. 棗樹當時若便打 免見雪竇點檢. 也好老婆心切 却問 "闍黎受戒來多少時" 這憒懂漢 却云 "二十夏" 棗樹云 "大好 不見有人" 捉他空處便打. 是則是 犯手傷鋒了也.

종사(宗師)는 스님을 보면 바로 질문을 던져 바로 감변해 낸다. 종사가 이 사람이 교화하기에 알맞은 근기인가(機宜)를 구별하고 손님과 주인(賓主)을 가려내는 것을 보라! 한 번 물으면 바로 낙처(落處, 핵심)를 아는 것이다. 조수를 보러 온 이 스님에게 납승의 기백이 있는 것 같아, 바로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한나라에서 왔습니다."

"한나라 천자는 불법을 중하게 여기는가?"

"(말하기가) 괴롭습니다. 다행히도 제게 물으시는군요. 다른 사람에게 물었다면 화를 입으셨을 것입니다."

조수는 작가종사라서 느긋하게 다시 물었다.

"어떻게 하는데?"

"사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불법을 중하게 여기겠습니까?"

이 스님은 소위 일담선(一擔禪)을 한 짐 짊어지고 왔던 것이다. 조수가 당시에 만약 바로 쳤더라면 설두의 점검을 면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수는) 참으로 노파심이 간절해서 다시 물었다.

"스님! 계 받은 지 얼마나 됐지?"

이 어리석은 사람이 말했다.

"20년 되었습니다.

"조수가 말했다.

"대단하다! 사람이 있는 것도 보지 못하다니!"

그리고는 저 스님의 허점(空處)을 잡아 바로 쳤다. 옳기는 옳지만, 손도 다치고 칼끝도 상했다.

雲門勘僧 極是手親眼辨. 一日問僧 "你是甚處人" 僧云 "新羅人" 門云 "你將什麼過海" 僧云 "草賊大敗" 門云 "你為什麼在我手裏" 僧云 "恰是" 門云 "一任[跳-兆+孛]跳" 又北禪問僧 "近離什處" 僧云 "資福" 北禪云 "福將何資" 僧云 "兩重公案" 禪云 "為什麼在我手裏" 僧云 "一任和尚收取" 禪便休去. 看他古人句中辨別 臨時折倒 始為勘僧.

운문(雲門, 운문문언 864~949)이 스님을 감변하는 것은 지극히 수친안변(手親眼辨, 眼辨手親, 안목이 뛰어나고 솜씨가 능숙)했다. 하루는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신라사람 입니다."

"그대는 무엇으로 바다를 건넜는가?"

"초적이 크게 졌습니다(草賊大敗)."

"그대는 어째서 내 손안에 있는가?"

"흡사 그런 것 같습니다."

"날뛰려면 마음대로 날뛰어라."

또 북선(北禪, 寂悟空, 운문의 제자)이 어떤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자복(資福)에서 왔습니다."

"자복은 어떻게 지도하는가?"

"양중공안(兩重公案)이군요."

"어째서 내 손안에 있는가?"

"화상께 일임하겠습니다, 거두어주십시오."

(그러자) 북선이 바로 쉬었다.

저 고인이 말 속에서 변별하는 것을 보라!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꺾어버리고 넘어뜨려야 비로소 스님을 감변한다고 하는 것이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㉟ 이해의 길 15

행복에 이르는 8가지 방법

불교의 목적은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다. 붓다는 삶이 고통인 근본 원인을 집착에서 찾았고 이에서 벗어나면 열반, 즉 행복이 온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집착에서 벗어나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안내서가 바로 여덟 가지 바른 길(八正道)이다. 팔정도는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가리킨다.

먼저 정견(正見)은 바르게 보는 것이다. 이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내가 쓰고 있는 빨갛고 파란 편견의 안경을 벗어야 한다. 빨갛게 보인다고 해서 세상이 빨간 것은 아니다. 그저 착각일 뿐이다. 편견의 안경을 벗을 때 비로소 눈앞의 모든 것은 연기적으로 존재한다는 실상을 알 수 있다. 정견은 곧 연기적 세계관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정사(正思)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며, 정어(正語)는 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생각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바른 말과 행동이 나오는 바탕이다. 언젠가는 밖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意)을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 가운데 하나로 중시한다. 정어는 거짓말(妄語)이나 아부하는 말(綺語), 이간하는 말(兩舌), 험악한 말(惡口)이 아니라 진실 되고 곧은 말, 화합하고 부드러운 말을 가리킨다. 요즘처럼 TV나 신문, 인터넷 등 미디어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정론(正論)을 펼치는 것은 정어의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언론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것은 심각한 망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정업(正業)은 바른 행위다. 이는 곧 생명을 죽이거나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서로 베푸는 일이다. 한마디로 악업(惡業)을 버리고 선업(善業)을 짓는 실천이다. 정명(正命)은 보통 바른 생활로 번역되는데, 특히 바른 직업윤리가 강조된다. 예컨대 동남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정명에 어긋나는 행위다. 정정진(正精進)은 글자 그대로 바른 정진을 의미한다. 붓다의 마지막 유훈도 모든 것은 덧없으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것이었다.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 마음을 훈련하는 수행으로 정념과 정정이 있다. 정념(正念)은 바른 관찰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한자 '염(念)'은 정사(正思)의 '사(思)'와 그 의미가 다르다. 정사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이라면, 정념은 분명하게 '보는(觀)' 것이다. 즉,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이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위빠사나(Vipassana) 수행법이 바로 정념이다.

마지막으로 정정(正定)은 바른 선정을 의미한다. 이는 산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수행이다. 마음이 산란하면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바르게 볼 수 없다. 이는 마치 흔들리는 물결 속에서는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 요동치던 물결이 고요해져야 그 안의 사물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고요해야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는 훈련, 즉 삼매(三昧, Samadhi)가 강조된다. 정념과 정정은 '수행의 길'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지금까지 행복에 이르는 여덟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가르침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실천이다. 예컨대 양치를 하면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했던 거짓말이나 상처 주는 말을 함께 씻어낸다면 아주 훌륭한 정어 수행이 된다. 평소 욕을 많이 하는 이들에게 양치 수행은 매우 좋은 실천이다. 산책하면서 산란했던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면 이는 곧 걷기 선(walking meditation)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밥 먹고 일을 하며 잠자는 모든 것이 수행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팔정도는 출가자나 산속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곳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새 신행공간 마련한 쌍봉사

무설전 낙성… 맞배지붕 양식으로

화순 쌍봉사(주지 시공)가 9월 29일 경내 무설전과 공양간 낙성식을 열고 지역 포교사업에 나섰다. 낙성식에는 성호 스님(前 광주 관음암 주지), 영조 스님(쌍봉사 회주), 영명 스님(조계종 신행선원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신축 공간은 사찰의 종합 포교공간으로 활용된다.

목조건물인 무설전은 69평의 맞배지붕 양식으로 내부에는 비로자나불을 비롯한 삼존불과 지장 · 신중탱화, 신도들이 참여한 1천불이 봉안됐다. 향후 법회와 신도들 교육, 사찰의 다양한 문화행사가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다. 쌍봉사 회주 영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좋은 시설로 지은 법당에서 낙성식을 맞이하게 돼 기쁘고 감격스럽다. 쌍봉사의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호 스님은 법문에서 "부처님은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다. 모든 생명은 다 부처님이다. 그 불성은 차별이 없다. 수행을 하는 것은 닫혀 있는 불성을 열기 위함"이라고 불자들의 수행을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세친 유신 30송을 배우다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연수교육

재가불자들의 교육도량으로 활동해온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스님들을 위한 교육의 장을 개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2019년도 대한불교조계종 승려연수교육을 9월 30일~10월 4일 개최했다. 교육은 이만 동국대 명예교수가 '세친의 유식30송 강설'을 주제로 진행했다. 이만 교수는 유식학의 대가로 불리며 동국대에서 후학을 양성해 왔다. 연수에는 부산뿐 아니라 창원, 울산, 포항 등 여러 지역에서 스님들이 찾아왔으며 총 21명이 동참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38년 동안 재가자 교육으로 명성을 이어 온 부산불교교육대학이 이번 승려 연수교육으로 재가와 승가를 모두 아우르는 교육도량으로 도약했다"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되었고, 또한 부산지역뿐만 아니라 넓게 경남 및 경북지역의 스님들에게도 양질의 교육과 편의를 도모하게 돼 더욱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전국노래자랑 같은 구민 여가문화 장려"

Interview

'슈퍼스타 종로' 축제 여는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0월 10일 복지관 예선 진행
총 10개팀 31일 본선 진출해
"제2의 인생 막 올리는 계기"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고, 10월은 경로의 달입니다. 1년 열두 달 중 가장 날씨가 좋은 가을에 종로구민들이 자신의 끼를 펼치고, 새로운 여가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전국구 유명 행사인 전국노래자랑처럼 종로구만의 독특한 행사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10월 경로의 달을 맞아 종로 어르신들이 함께 즐기며 세대가 어우러지는 지역축제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를 개최한다. 10월 10일 복지관 4층 종로마루홀서 예선을 시작으로 문을 여는 이번 행사는 춤과 악기 연주, 가창 등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갈고닦은 끼를 뽐내는 자리다.

특히 단순히 어르신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1 · 3세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구민 모두를 배려해 눈길을 끈다.

종로노인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행사에 앞서 10월 2일 전화인터뷰를 통해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이 행사가 새로운 시니어 스타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는 본래 종로구청이 '종로구 어르신 노래자랑'으로 진행하던 전통 있는 행사입니다. 2010년부터는 복지관이 행사를 주관해 매년 10월에 진행해왔는데요. 약 10년간 '종로 실버 뮤직 페스티벌' 등 변화과정을 거친 뒤 2016년부터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라는 이름으로 정착됐습니다."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는 평소 자신의 끼와 재능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던 지역 어르신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접근성 높은 복지관에서 행사를 주관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행사도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확대되고, 참가부문도 늘어나고 있다.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는 예선을 거쳐 10월 31일 오후 2시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서 본선이 펼쳐진다. 본선에는 총 10개 팀이 진출하며, 1등 50만원, 2등 40만원, 3등 30만원을 비롯해 본선 진출팀에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또한 각 동별 응원상도 배정돼 있다.

"복지관 홍보대사인 '할담비' 지병수 어르신이 전국노래자랑에서 화제가 됐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기를 얻으셨는데,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도 비슷한 기회의 장입니다. 지난해까지 이 행사와 유사한 노래자랑에 참가한 경험이 없어야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인 발굴과 더 넓은 기회 제공에도 도움이 되고요. 제2의 인생의 막을 올리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미얀마에 깨끗한 물을"

빛고을나눔나무 미얀마 정수시설 건립 추진

광주불교연합회 부설 빛고을나눔나무(이사장 동현)는 10월 3일 광주 사찰음식점 수자타에서 후원행사를 열고 불교국가 아이들을 위한 정수시설 지원금 모연에 나섰다.

후원행사는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낫마욱 파리야티 사원학교(Natmauk Pariyatti Monastery School)에 대형 정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학교는 사원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현재 1,545명의 재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교실, 기숙사, 도서관 등 전반적인 학교시설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학생들의 식수 환경이 가장 취약해 재학생 1200여 명이 수인성 질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빛고을나눔나무는 이날 후원행사를 통해 기금을 모아 대형 정수시설을 설치하고, 오는 11월 중순 현지를 방문해 완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후원행사는 빛고을나눔나무 이사장 동현 스님, 상임이사 보응 스님, 소원정사 주지 도계 스님을 비롯해 이범식 광주불교연합신도회장, 서대석 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1부 기념식, 문화공연, 사찰음식 공양 순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는 2019 빛고을관등회 사진전시회, 수자타(대표 혜법)의 무료 사찰음식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불교단체의 자원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반야학술상 본각 스님 수상

11월 3일 통도사 반야암서 시상식



올해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중앙승가대 명예교수 · 사진)이 선정됐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제9회 반야학술상 수상자로 본각 스님이 선정됐다"고 10월 1일 발표했다. 연구원 측은 "본각 스님은 저서 〈화엄교학 강론(2018)〉을 비롯해 불교학자로서의 연구업적은 물론 한국비구니연구소장,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등 사회적 활동과 업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본각 스님은 1966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1977년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1976년 동국대 철학과를, 1979년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본각 스님은 일본 릿쇼대학과 고마자와 대학에서 유학하며 석 · 박사를 취득하며 본격적인 학승의 길을 걸었다. 1992년부터 2017년 정년퇴임 전까지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조계종 승가교육을 책임졌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불교학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불교학 발전에도 일조했다.

한편, 제9회 반야학술상 시상식 및 수상기념 강연은 오는 11월 3일 오후 1시 통도사 반야암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영성음악제 '華藏' 앙상블

구례 화엄사, 9월 27~29일 화엄음악제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 화엄음악제 '화장(華藏)'이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했다. 9월 27일부터 3일간 경내에서 진행된 화엄음악제에는 전통국악인 정가, 영산괘불대제, 화엄콘서트 등 독특한 음악세계와 영성을 주제로 매년 큰 화제를 일으키는 지역불교 최대의 음악축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자비의 쌀 회향한 관음사

콘서트로 마련한 쌀 1000㎏ 익산시에 기탁



익산 관음사(주지 덕림)와 관음사 청년회(회장 이강자)는 10월 2일 익산시청을 방문해 앞서 개최한 제2회 이웃나눔 공양미 콘서트로 모연된 자비의 쌀 1,000㎏을 익산시에 기탁했다. 덕림 스님은 "풍성한 가을, 이웃을 위한 쌀 나눔을 통해 자비를 실천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모실 대웅전 건립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천태수행자 스스로 점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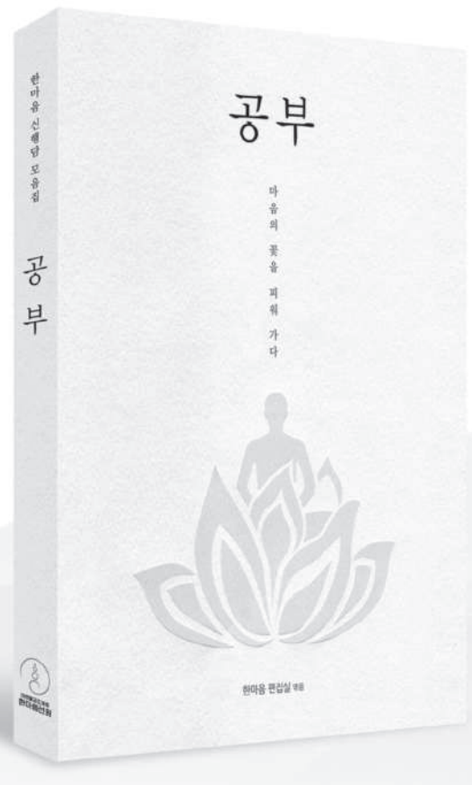
대구 대성사, 10월 1일 창립 52주년 법회



천태종 대구 대성사(주지 김영제)는 10월 1일 창립 52주년 기념법회를 경내 서원당에서 봉행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대성사 불자들이 신행공동체를 결성해 극락정토를 실현하는 도량으로 만들길 바란다"며 "천태수행자는 자신을 위해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판매처
●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 운주사 02-3672-7181
●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263호 | A13 | 전면광고

너희 비구는 모든 음식을 받았을 때에
마땅히 약을 먹는 듯 하고, 좋고 나쁜 것을
따라 더하고 덜하지 말며, 몸을 유지하고
주림과 목마름을 없애는 데에 맞도록 하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유교경》에서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간암, 묘터, 유산낙태 조상영가, 교통사고, 이혼수, 직장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명리구성학, 육임학, 성명학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 찰 행 사 전 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튜브」에서 **대명스님**을 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사찰건축전문

문화재기능962호

대웅전	한옥별장
요사채	재실
누각	산신각

펜션(육송 나무목재만 사용)
원명 010-4300-9104

허리병 고치는 법 발을분 배울분

저 서 |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 내 몸에 맞는 체조로 허리병 고친다

중풍예방. 디스크. 협착증. 불면증.
성인병 등 **각종 질병**
한번만 오시면 퇴치 가능

2대째 이어온 운동법 **발명 특허 획득**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검색
50년 전통 상담
010-3829-7582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책-검색★

①**인생최고의 깨달음**(참불교)
②**천기소설 예언자**(현존불)
③**기도와 명상**(최상수행법)
④**천등산**(신통해탈기도비법)
⑤**출세의 기술**(성공출세술)
⑥**평생돈벼락 운**(運재테크)

위 책이름검색 / 1권 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3263-6544
010-5270-8260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불교용품 고가매입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영통철학

영통철학 1개월 완성 (책임 지도)

• 고승비급 전수 •
동국대 대학원 졸업(석사)
정 광 합장
010-3936-2295

절일 도와가며 남은 인생 수행하면서 부담없이 같이 사실 분

60세 전후 운전면허 소유 남자
문의 010-8640-0108

소포장 동지팥죽

11월 30일 마감, 500g 3000원

사암법회용 100개단위
신도님께 법회후 판매도 가능
큰포장은 10L, 상담후 접수
문자접수 010-3410-0004
도평스님 043-744-9997
농협 356-0070-5251-33

동지팥죽 저작권 있습니다.

효보당108사주(모집)

한손으로 가장 쉽고 빠르게 인생을 푼다

- 왜왔는가. 현재의 궁금점과 대안책
- 과거/현재의 사주와 미래의 대안책

- 스님, 무속인, 철학인, 법사 대상
- 특별반/개인 5개월 과정모집(완전 이수됨)
- 출장 및 개인지도 가능

010-2901-8923

결혼신청안내

- 부모님께 효도를
- 꼭 짝을만나 행복을

광복사 결혼상담실
02-306-7988
010-5624-1365

대주스님의 특수비술기도

☎ 02)963-1148 / 011-741-0867

스님에게만 ? 전수합니다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후공부100%(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함

문의: 054-753-8228, 010-8852-0075

단원 정통 명리학

- 교육 : 수시접수 | 초급, 중급, 연구(격국)반 접수 | 1년 과정 — 수강료 : 360만원
- 단원 정통 명리학 : 실증철학 정규과정 수강생 접수 — 단원역리학협회 법인 자격증 제도
-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 학문

지현명리연구원 : 역학전문교육처 志晛 : 韓 基子(恩炅)
명리학 / 작명학 / 육효학 / 간지체성론과 육십갑자론(특허)

주 소 서울시 종로구 명륜4가 54-1 3층 웹사이트 cafe.daum.net/3332han cafe.naver.com/3332han

단원역리학협회 010-4470-6314

평행수기법(계곡수 치유)

계곡수(물)로 병든 몸을 치유하는법

❶ 만성피로 면역력이 떨어진 분, 고도비만인 분
❷ 면역력이 떨어져 항암치료를 받지못하는 분
❸ 수족마비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분
❹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 및 휴양이 하고픈 불자
❺ 평행수시 동호인 들은 공덕사로 오시면 안전하게 평행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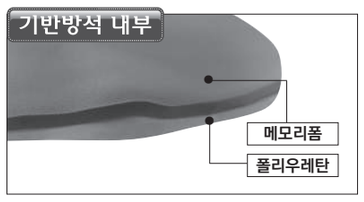
경북 경산시 하양읍 환성로 205 공덕사
010-3549-2270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샵 TEL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명리·육효강좌

•초보반 : 3개월 (월10만원) •실천반 : 3개월 (월20만원)

영가 찾는 법

•초보반 : 3개월 (월10만원) •실천반 : 3개월 (월20만원)

백암역리원 02)597-1101
(2,4호선 사당역 8,9번 출구)

사찰처사 (운전가능)님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010-9157-2276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전국 최다 사찰 가입

010-7344-1881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 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 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의 한 종류로,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 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희담석 108염주 세트 40,800원(무료배송)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계좌 안내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02)2004-8216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구입 문의 | 02-2004-8216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명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 때 꼭 필요해요.



다보명차 (유기농 야생녹차)

최고의 향, 맛, 빛깔, 효능으로 머리 시원, 몸 따뜻
수행 짱! 아랫배 단전에 기운 모여 손발 따뜻!
우수한 제조 비법 100℃ 물에 차잎 생생~ 떫은 맛 NO!



氣 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 힐링베개 스스로 딱 맞게 조절하는 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 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6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7㎝: 7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263호 | A14 | 전면광고

보시는 큰 부의 문이 되며
그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문수사리정률경》에서

삼보사찰안내

◎ 위치 : 경북
◎ 대지 : 8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34평
◎ 요사 : 34평
◎ 가액 : 12억

◎ 위치 : 부산
◎ 대지 : 196평
◎ 법당 : 30평
◎ 요사 : 35평
◎ 가액 : 6억 8천

❖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절대 비밀보장 ●
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포교원양도

- 위치 : 서초구 양재동 5층 중 3층. 약 40여평
- 월세 : 1백 3십만원(근처 시세 10평 미만 원룸도 6-70만원)
- 내용 : 10년 이상 운영. 건강때문에 양도
- 조건 : 명리 및 작명. 건강 관리 등에 능력있는 분에게는 시설비 및 보증금 없음
- 최상의 위치와 조건

02-571-919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백병길 171)
- 총 5,830평. 대웅전 1동. 요사채 및 종무소 1동. 극락전 1동
- 특징 : 백병산 중턱의 남한강을 바라보는 전망좋은 기도사찰. 교통편리
- 입주조건 : 매수 또는 장기 임대 가능
- 가액 : 현장답사 후 협의결정

주인직접 010-4225-0012(주,야)
02-403-3333 / 031-772-1251

광진불사

◎ 위치 : 경기도 시내
◎ 대지 : 6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6억5천

◎ 위치 : 서울신도시
◎ 부지 : 4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매가 : 14억 5천만원 정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 신행상담, 사찰순례,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원 전세 안내

-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루원시티(인천전철2호선 5분거리, 서울7호선 연말개통)교통편리
- 주변재래시장 인근 유동인구 최다, 20년 운영중인 포교원
- 3층건물 : 반지하 1층 요사채(방2개, 공양간, 야외화장실) 2층 주지실, 상담실겸 서재, 거실 3층 법당, 제반시설 완벽하고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 산신, 소불, 인등)
- 주차장 및 도시가스 시설 완벽, 몸만 오세요
- 전세 사신 후 저렴하게 양도가능, 투자가치 확실
- 전세보증금 : 2억(절충가능)

문의전화 010-5002-7392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 부지 : 1648평(대지 927평)
- 대웅전(25평). 지장전(15평). 독성각(5평). 목조건물
- 요사채 : 조립식 건물 25평. 황토방 7평. 5평
- 납골당 5000개 가능
- 가액 : 12억 5천(가격절충가능)

010-5421-1536

절터안내

- 위치 : 경북 김천 구성면 용호리 836번지
- 836번지 : 약 300평
- 평당 11만원
- 암자 지어서 수행하실 분 (깨끗한 약수샘물 나옴)

010-7628-9997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찰안내

- 위치 : 창원역 15분. 마금산 온천 5분 거리. 신도시 개발지 인접 ● 대웅전(단청완료). 삼성각. 주지상담실(황토방). 요사채. 공양간. 대형 저온창고 대형창고 2개. 차고. 주차장 500평 ● 총면적 : 6,200평 ● 사찰 총 불사비용 35억 투자함 ● 가액 : 16억(대출금 5억 포함) ● 계약 시 5억 주시면 등기부등본 넘겨줌. 나머지 6억은 10년간 연차적으로 불사금으로 완납 가능 ● 신도시 개발로 4차선 공사 착공. 사찰연결

010-9647-0723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219-1
- 대웅전 23평 목조. 산신각 8평 목조
- 요사채 60평 2층. 조립식 방사 15평
- 하천부지 약 40평. 총 1680평
- 가액 : 6억

010-8697-8568
010-9044-7347

사찰안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 법당 / 요사 : 329.4㎡
- 창고 / 기타 : 약 25평
- 대형 불상 및 석등,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 좋음
- 가액 : 6억 9천

011-9143-0098

토굴(급)안내

- 위치 : 경남 산청(황토벽돌 전원주택)
- 총 412.6평 중 대지 200평(답·도로)
- 방2. 거실. 욕실. 주방. 창고
- 20평 허가되어 있어 건축 가능
- 유실수 100여주 심어져 있음
- 1000여평 국유지 사용가 (현재 텃밭으로 사용 중)
- 가액 : 2억 4천

010-9411-5302

전국사찰안내

- 사찰 / 사찰터 / 암자 / 포교당 수익성 부동산 거래하실 분
- [30년] 전문 경험으로 연결하겠습니다.
- 망설이지 마시고 편안하게 연락주십시오.
- 보물불감(작은 법당. 3존불 조각) 30년전 천만원 매입. 개인사정 급하여 파격으로 거래(상담환영). 원통지름 12㎝×높이 25㎝

불자공인중개 공신공인중개사

010-3382-0555

아름다운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소재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m*5m)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 (정원조성 잘되어 있음)
- 진주 합천 중간지점(각20분 소요)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벽면)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언제등 양도가능

스님 직통 010-2607-7114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북 포항 오천
- 2층 상가 60평. 거주가능
- 삼존불. 탱화. 시설완비
- 다량 주차가능.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천 / 월세 20만원
- 시설비 1천만원

010-2857-2811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 대지 : 약 100평
- 건물 : 법당 30평. 스님방. 주방. 화장실 있음
- 산신각 : 3평(용왕당 별도 있음)
- 가액 : 6억 5천
- 대출 : 1억 7천

010-9042-7799

서울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강동구 암사역 1번 출구 도보 1분 거리
- 37평. 2층 법당. 종무소. 방1. 공양간. 차실. 남여 화장실. 주차타워
- 보증금 3000 / 월 80만원
- 시설투자 : 5000 중 1700만원(협의가능)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010-3061-4402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회원구 내서읍 (내서IC 3분거리)
- 대지 100평. 법당 25평
- 요사채. 스님친견실. 산신각 대형주차장
- 가액 : 2억 8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전원주택/사찰

- 위치 : 경남 거창군 남상면 지방도로 변
- 거창읍에서 6분 거리. 정남향 집 뒤 북쪽 소나무산
- 총 1200평 중 대지 329평 전 489평. 기타토지
- 주택건물 35평(황토방1) 창고 57평(황토방1)
- 암반우물1. 자연우물1. 소나무 정원
- 가액 : 3억 8000만원

010-3848-245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내 대단지 아파트 뒤 산속. 차량 진입 불가
- 3만평 중 5천평 지분 등기가능
- 가액 : 4억 6천(조정 가능)
- 무허가 건물 ● 종무소. 삼성각 용왕전. 다실. 창고 각각 한동
- 1층 화장실(해우소) / 2층 공양간 / 3 층 법당(큰법당)

011-9394-8511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교통요지. 지하철/버스 2분 거리
- 대도로 변 3층 건물 3층. 약 50평
- 옥상 사용 가능. 주변 주차시설 양호
- 보증금 500 / 월 45만원
- 시설비 1500만원

010-4514-0384

암자안내

- 위치 : 상주시 일원
- 대지 : 약 오백평
- 법당 약 27평
- 요사채 25평

010-5152-1222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금산 추부면 ● 종교부지 280평. 임야 50평. 총 330평 ● 법당 23평(철재경량골) ● 삼성각 : 30년된 목조기와 7평. 단청 ● 요사채 : 철재스레트 30평 ● 방5개. 거실. 주방. 화장실(실내 1, 실외1) ● 사찰 뒤는 산, 앞은 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좋은 곳
- 가액 : 2억(융장 6천만원)

010-3875-630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강북 수유역 5분(주변 재래시장)
- 64평(총전체). 도심 포교 최고입지(재기도 많음)
- 3000만원/월150만(주변 시세보다 저렴)
- 시설비 4천 9백 소요(급 지방 이전으로 먼저 계약 하신 분께 5백만에 무조건 양도)
- 도봉산, 삼각산 조망권 최고
- 주차 및 시설 완벽. 직접 오셔서 확인하세요.

02-6053-9797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
- 대지 : 360평 ● 사용 가능 부지는 약 500평(하천 부지 포함)
- 법당. 삼성각. 약사여래. 3층 탑. 석탑 요사채 2개. 창고 3개. 주차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3억 8천만원

010-4583-4895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봉곡동 상가 2층
- 약 80평. 법당 완비
- 보증금 250만원 / 월 4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55-238-6772
010-9422-123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에서 20분 거리
- 사찰 총 500평. 종교부지 350평. 임 150평. 법당 20평(원통 보전). 요사채 3동
- 바다가 바로 앞에 있고 주차장 넓음
- 도량 내 많은 나무와 잔디로 조경
- 스님 타계로 급매
- 가액 : 4억 5천(절충가능)

010-5430-467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구로4동 남구로역 5번 출구 5분 거리. 시장 2분 거리
- 3층 건물 중 2층 전체
- 법당. 공양간. 상담실. 주지실. 실내 화장실
- 약 35평 단독 계단 사용. 시설 완벽함
- 가액 : 보증금 1천 / 월 1백만원
- 시설 및 집기일체 : 1천2백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413-4268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만수소방소 건너편)
- 평수 : 단독건물,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110여평
- 건물 : 지하1층-창고형, 1층-공양간 (방3개, 화장실), 2층-방3, 화장실, 3층-법당, 3존불, 지장불상, 칠성, 산신
- 가액 : 3억3천5백(사찰연력:40여년)
- 답사 하실분만 연락요망

010-8360-8259

사찰안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6억(절충가능) ● 조건: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불상,불화등기타) ● 주변 주차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쪽

010-3128-2399

◑ 입종안내 ◐

〈불교조계종〉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T 02)511-2026~7 | F 02)511-2028

사찰안내(포교원)

- 위치 : 경남 양산시 주남동 701-10번지
- 2층주택 : 대지 200㎡,1층 100㎡, 2층 64.26㎡,삼존불,천수천안불
- 가액2억1천만원,도시가스
- 법사님,보살님,기도성불 이루지 못한분, 꼭 필요한 인연을 기다립니다. 원효스님이 주석하신 천성산의 명당자리를 내어드립니다.

010-2647-5532
055-364-5532

사찰 임대합니다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근처에 있는 사찰
- 대지 700평 : 대웅전. 지장전. 관음전. 산신각. 요사채
- 전세 5천만원 / 월 50만원
- 공양주가 있어야 함

010-3636-6477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나주 동강면
- 대지 230평(임대)
- 법당 20평. 산신각 10평
- 요사채 2동. 범종각
- 영산강 전망이 좋음
- 가액 : 3500만원

010-7637-1250

사찰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 대지 : 355평
- 대웅전. 삼존불. 목불. 목후불탱화. 목조단청12평. 요사채. 방3개. 목조단청19평. 공양간. 방1개. 7평 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포교당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상대동 도심속 큰 포교당 운영하실분
- 32평. 3층중 2층
- 삼존불. 신중탱화. 산신당. 침실및 공양간 있음
- 보증금500/월35만원/ 시설비2500만원
- 즉시 법회 가능

010-7476-9002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5길 21호(호원동)
- 대지 28평. 건평 35평
- 2층 법당. 조립식 20평. 칠성. 산신. 영가단. 지장소불 108불
- 집기 일체 양도. 몸만 오세요
- 가액 : 2억 3천만원. 절충가능

010-8900-4874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서구 3층건물 2층 약 4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소불 108불. 방2칸. 공양간. 실내화장실2칸. 냉난방시설완비
- 시장 가깝고 지하철 도보 5분거리
- 보증금 500만원 / 월세35만원
- 시설비2천만원. 도량이 참하고 완벽함

010-3152-273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 농지500평. 건평 30평. 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 대지 : 90평
- 건평1층. 70평 중 45평. 황토방 편백나무
- 2층 30평. 법당
- 주차편리. 교통편리. 최상시설
- 용도 : 포교. 교육. 사찰. 명상. 쉼터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148-2번지, 북여주IC. 동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기도터로 좋은 대지.전답(650평)
- 토지 : 2148㎡
- 건축물면적 : 135.49㎡
- 가액 : 4억5천

010-9506-2549

포교당안내

- 위치: 창원시 마산 합포구
- 3층건물에 2층 60평
- 법당 30평,(방 2개)
- 요사 30평.(주방,거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 월세5십만원, 시설비1천만원

010-5114-070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 5권 묶음판매에 동참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묶음판매를 종료합니다.
본 광고 이후 〈불서총판 운주사〉에서 전국서점에 공급합니다.



깨달음의 시작에서 완성까지
3일만에 깨치는 야포선
석호 지음
218쪽
값 12,000원

깨닫기 위한 3일의 실천과 그 뒤의 삶을 빛나게 하는 지침



금강경이 소설로 - 금강경 장편소설
하늘다이아몬드
석호 지음
292쪽
값 13,000원

물질만능시대 - 물질을 버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황폐해지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이루는 메시지

○ 매순간이 기적이다. 이 사실을 사무쳐 느끼는 자. 나는 그를 깨달은 이 - 붓다라고 부른다. <석호>

보급처 : 불서총판 운주사 ☎ 02) 3672-7181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25길 21호(호원동)
- 대지 28평. 건평 35평
- 2층 법당. 조립식 20평. 칠성. 산신. 영가단. 지장소불 108불
- 집기 일체 양도. 몸만 오세요
- 가액 : 2억 3천만원. 절충가능

010-8900-4874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시 서구 3층건물 2층 약 4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가단. 소불 108불. 방2칸. 공양간. 실내화장실2칸. 냉난방시설완비
- 시장 가깝고 지하철 도보 5분거리
- 보증금 500만원 / 월세35만원
- 시설비2천만원. 도량이 참하고 완벽함

010-3152-2732

사찰안내

- 위치 : 경북지역 일월산자락 아담한 현대식 목조건물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스님 공부하시는데 아주 좋은 도량
- 대지500평. 농지500평. 건평 30평. 법당은 토목공사 완료
- 가액 : 2억3천(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찰안내

- 위치 : 경기 파주 지역
- 대지 : 90평
- 건평1층. 70평 중 45평. 황토방 편백나무
- 2층 30평. 법당
- 주차편리. 교통편리. 최상시설
- 용도 : 포교. 교육. 사찰. 명상. 쉼터
- 가액 : 4억 7천만원

010-4012-5500

사찰·기도(터)안내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주록리 148-2번지, 북여주IC. 동곤지암IC에서 10분거리 기도터로 좋은 대지.전답(650평)
- 토지 : 2148㎡
- 건축물면적 : 135.49㎡
- 가액 : 4억5천

010-9506-2549

포교당안내

- 위치: 창원시 마산 합포구
- 3층건물에 2층 60평
- 법당 30평,(방 2개)
- 요사 30평.(주방,거실)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 월세5십만원, 시설비1천만원

010-5114-0703

포교원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정류장 앞, 옥상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1,900만원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99만원

02-957-0824
010-7409-0490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2004-8216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門外不出 백제관음상, 23년만의 외출

내년 3월부터 두 달간 도쿄국립박물관서 공개



23년 만에 바깥나들이를 나서는 백제관음상. **사진출처=위키피디아**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나라현 이카루가(斑鳩)에 소재한 호류지(法隆寺). 고대 한일 불교사에서 중요한 사찰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사찰이다. 이 호류지가 자랑하는 성보 '백제관음상'이 23년 만에 외부에서 전시된다고 9월 24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등의 주요 언론사가 대서특필했다.

도쿄국립박물관은 기자회견에서 "내년 3월부터 약 두 달간 특별전 '호류지 금당벽화와 백제관음'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박물관 측은 "이번 전시회에서는 특별히 고대 불교조각의 걸작인 백제관음상을 도쿄로 이운해 전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1949년 화재로 소실된 금당벽화에 대해서도 "모사도를 특별히 한자리에 모아 소실전후의 모습을 소개할 것"이라고 전시내용을 설명했다.

전시회의 공동 주최자인 호류지는 "훼손된 금당벽화와 부재들을 모아 사찰의 수장고 안에 재현해 두고 있다. 2015년부터 금당벽화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위원회를 발족해 수장고의 공개관람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진행가운데 금당벽화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높이고자 훼손전의 금당벽화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시의의를 전했다.

특별전의 중심이 되는 백제관음상은 녹나무로 조성된 높이 2.1m가량의 채색 보살상으로, 고대 백제에서 조성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관음상이 외부에서 전시된 것은 1997년 파

세계문화유산 호류지 소장한
성보 백제관음상 외부 전시
내년 3~5월, 부대행사 마련
금당벽화 모사본도 함께 해

리 루브르 박물관 특별전과 같은 해 도쿄박물관의 특별전뿐이다.

호류지를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온 후루타니 쇼카쿠 스님은 "최근 세계 각지와 사회 곳곳에서 불행한 일들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부디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세상이 평화로워지길 바란다"며 백제관음상의 외부 전시를 결정한 계기를 말했다. 백제관음상과 동시대에 조성된 비사문천상과 길상천상도 함께 전시된다.

한편 전시의 또 다른 축인 금당벽화는 4면의 여래상과 8면의 보살상으로 이루어진 12면의 벽화로 고대 불교미술의 중요한 회화로 손꼽히고 있다. 도쿄박물관 측은 "호류지의 역사성과 미술적인 가치로 금당벽화에 대한 모사가 중세부터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원본은 화재를 입은 이후 벽면에서 분리, 재건된 금당에는 모사도가 원본을 대신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1884년과 1922년 당시 최고의 화가들이 원본크기로 모사한 모사도중 9면의 그림이 전시된다. 공개되는 그림 가운데엔 금당벽화에서 가장 걸작으로 꼽히는 제10호벽의 석가설법도와 제6호벽의 아미타정토도, 12호벽의 십일면관세음보살도가 포함됐다. 또 다행히 화마를 면한 20면의 비천상 벽화도 일부 출품될 예정이다.

특히 6호벽의 아미타정토도에 대해 도쿄박물관 측은 "호류지 화재당시 살수된 수압으로 벽화의 본존인 아미타불의 상호가 심하게 훼손되는 사고가 있었다"며 이번 모사도 전시를 통해 "지금은 볼 수 없는 모습을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시는 내년 3월 13일부터 5월 10일까지 계속되며, 4월 중순 전시품이 일부 교체될 예정이다. 전시기간 중 관련된 부대행사와 학술대회가 함께 마련된다.



스리랑카 불교축제에서 학대 논란의 대상이 된 코끼리 '티키리'가 결국 숨졌다. **사진출처=코끼리구호재단 페이스북**

'학대 논란' 스리랑카 코끼리, 결국 숨져

스리링카 불교축제서 제외됐지만 상태 악화

앙상한 뼈를 드러낸 채 불교축제에 동원돼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던 스리랑카의 코끼리 '티키리'가 결국 숨졌다. 지난달 코끼리구호재단(Save Elephant Foundation)을 통해 세간에 알려지며 당국이 축제에서 티키리를 배제했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숨진 것이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레크 차일러트 코끼리구호재단 창립자는 지난 9월 24일 SNS에 티키리의 사진을 공개하며 "티키리의 고통은 이제 끝났고, 그의 영혼은 자유로워졌다"고 적었다.

티키리는 약 한 달 전 코끼리구호재단이 페이스북에 올린 몇 장의 사진으로 동물학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당시 사진 속 티키리는 '페라헤라' 축제에 동원되기 위해 화려한 장식의 의상을 걸쳤지만, 다른 사진에서는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모습이었다. 페라헤라 축제는 스리랑카 칸디에서 매년 열리는 대규모 불교축제로, 장식된 코끼리 60마리가 볼거리로 동원된다.

이에 전 세계에서 비판이 일자, 축제를 주관한 사찰 측은 "티키리가 소화 관련 질병 때문에 체중이 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스리랑카 관광부는 티키리를 축제에서 제외 조치했다. 하지만 티키리는 상태가 점차 악화돼 축제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숨을 거뒀다.

코끼리구호재단 측은 "축제(에 동원된) 후 티키리는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고립된 채 지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정현 객원기자

게임유저들 몰려든 日 린센지

국민게임 드래곤퀘스트 이벤트지역으로 설정돼 사찰 동의 없어 논란도



게임 속 랜드마크로 설정된 린센지 산문. **사진출처=조에쓰시 관광정보 홈페이지**

유명 스마트폰 게임에서 일본의 모 사찰이 이벤트 지역으로 무단 설정되면서 도량 분위기가 어지러워져 소동이 일고 있다. 사찰 측은 "게임사로부터 통보 받은 것이 없다"고 밝히며 단순 게임을 목적으로 경내 무단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문을 게시했다고 9월 25일 일본의 'J-캐스트 뉴스' '라이브 도어' 등이 보도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사찰은 일본 니이하마현에 소재한 린센지(林泉寺). 약 500여 년 전에 창건된 선사(禪寺)로 지역에선 역대 영주들의 위패를 봉안해 격이 높은 고찰로 평가된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9월 12일 출시된 스마트폰 게임 '드래곤 퀘스트 워크(DQW)'였다.

DQW는 일본의 국민게임이라고 불리는 '드래곤 퀘스트'의 스마트폰 버전이다. 게임 개발사인 스퀘어 에닉스사(社)는 게임의 재미를 위해 실제현실에서 랜드마크로 지정된 지역에 직접 방문하면 지역 한정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그런데 니이하마현에 소재한 4곳의 랜드마크 가운데 린센지의 산문(山門)이 랜드마크로 지정된 것이다.

문제는 게임상 랜드마크인 린센지 산문이 입장료를 지불해야하는 경내에 있다는 점이었다. 린센지는 "일부 관광객들 가운데 '게임유저는 무료입장'이라며 무단으로 들어오거나, 아이템을 받고서는 입장료를 환불해 달라는 소동이 있었다"며 결국 안내문을 사찰의 입구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안내문에는 "게임에서 산문이 랜드마크로 지정된 것은 사찰과 관계가 없으며, 개발사 측의 연락을 받을 것도 없다"고 명시하며 "단순 아이템 입수를 목적으로 무단으로 경내에 들어오거나 입장료의 환불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 해당 사찰의 입장료는 도량을 정비하는데 쓰고 있기에 양해 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게임을 위해 이곳에 방문하더라도 경내에선 잠시 전자기기를 손에서 놓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서 진정한 모험과 여행을 즐기는 것은 어떠한가"라는 권유도 함께 실었다. 한편 "국민게임인 드래곤 퀘스트의 랜드마크로 설정돼 영광으로 생각한다"고도 전했다.

안내문의 내용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면서 게임 유저들 간엔 "규칙과 예의를 지키는 유저가 되자", "사찰에서 안내문을 붙일 정도면, 대체 얼마나 무례했던 것인가"라는 등의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안내문 내용에 대해 "불쾌한 상황임에도 게임유저들을 내치지 않고, 자비롭게 답하는 부처님의 마음"이라며 사찰 측의 현명한 대응을 칭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박영빈 객원기자

하와이 사찰서 절도… 용의자 1명 체포

전자장비 · 음식까지 훔쳐, 감시카메라에 적발



하와이 소재 일본사찰인 하마쿠아에서 절도 후 도주한 용의자들. 이 가운데 1명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출처=하와이뉴스나우 방송화면**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에 위치한 일본불교 사찰 하마쿠아(Hamakua)가 2명의 남성에게 절도를 당했다. 해당 남성들은 사찰의 CCTV, 냉각기 등 전자장비뿐만 아니라 음식도 훔쳤다. 이를 백업(back-up) 감시 카메라가 포착해 1명은 경찰에 붙잡힌 상태다.

지역매체 하와이뉴스나우(Hawaii News Now)는 9월 27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두 남성은 주지 스님과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나누고, 스님은 사찰을 소개했다. 그 직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했다.

사찰의 재산관리 담당자 샌디 타카하시는 "그들은 우리 사찰의 역사에 관심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당시 경내에 있던 주지 스님은 그런 그들을 환영하며 '밖이 더우니 차를 드시고 가라'며 차담까지 나눴다"고 분개했다.

타카하시는 "주방과 식당의 CCTV를 전부 해체해 녹화 장치, 카메라, 배선 장치까지 훔쳤다. 그들은 냉장고의 음식과 음료도 훔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CCTV까지 훔쳐 달아난 그들의 치밀함은 백업 감시 카메라에 잡혔다. 해당 영상에는 그들의 용모와 인상착의가 적나라하게 담겼다. 사찰은 이를 온라인상에 공개, 몇 시간 만에 지역 시민이 용의자를 발견해 신고했다.

타카하시는 "우리 절은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활동을 많이 한다. 이런 성스러운 곳에서 절도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해 스님들은 물론 신도들도 많이 안타까워한다"고 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

존 카밧진

〈3〉 수행의 핵심

의지 있다면 누구나 하는 명상



앉아서 하는 명상

앉아 있는 것에 대체 뭐 그리 특별한 게 있을까?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흔히 앉는다는 얘기를 할 때의 앉는 것은 그렇다. 앉는 건 그저 우리 몸이 두 다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하는 편한 자세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나 명상에 관한 한 앉는 것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 있다거나 누워 있다거나 걷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이 명상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앉아 있다면, 특히 바닥에 앉아 있다면, 금방 알 수 있다. 어떤 각도에서 봐도, 그 자세 자체가 깨어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특히 두 눈을 감고 있거나 얼굴이 고요하니 평화로워 보인다면 더 그렇다. 앉은 자세는 그 위엄과 견고함 때문에 마치 산을 보는 듯하다.

또한 앉은 자세에는 많은 것을 시사하는 안정감도 있으며, 그 안정감은 명상하는 사람의 안팎으로 발산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깜빡 잠이 드는 순간, 이 모든 건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 내면에서 마음이 무너지면, 그게 몸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앉아서 하는 명상은 곧고 위엄 있는 자세로 앉아서 하며,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곧은 자세를 취하는 건 비교적 쉬운 일이지만, 이는 이후에 계속 펼쳐질 힘든 과정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몸은 쉽게 앉힐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뒤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아무리 강력한 효과가 있다 해도, 앉아서 하는 명상은 단순히 몸에 대해 특별한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대해 특별한 자세를 취하는 명상이다. 결국 마음을 앉히는 것이다.

일단 자리에 앉고 나면 현재 순간에 접근하는 방법은 많다. 그리고 그 방법들은 전부 판단은 배제하고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게 특징이다. 다만 무엇에 집중하고 어떻게 집중하느냐 하는 것만 다를 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걸 단순화해서 일단 호흡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숨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느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당신 자신의 의식을 확대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인식, 충동 그리고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집중력과 마음챙김 상태가 의식 속에서 그 많은 대상들을 끌어안을 정도로 강해지려면, 또 그 속에서 길을 잃거나 특정 대상에 집착하거나 압도당하지 않을 정도로 강해지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호흡에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호흡을 닻처럼 활용해 당신이 다른 데로 떠내려갈 때 되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게 좋다.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얼마 동안 수행해야 하나

나는 명상을 얼마 동안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지금도 받고 있다. 우리는 병원에서 처음 명상 요법으로 환자들을 치료를 할 때부터 환자들이 비교적 오랜 시간 명상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사람들한테 많은 걸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스스로에게 많은 걸 요구하라고 요구한다면 많은 걸 얻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조금만 요구한다면 조금만 얻게 될 거라는 원칙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집에서 명상 수행을 해야 할 기본 시간을 45분으로 잡았다. 45분이라면 평온한 상태로 빠져 들어 매 순간순간 집중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적어도 완전히 긴장을 풀고 깊은 행복감을 맛보기에도 충분한 시간으로 보였다. 또한 45분이라면 우리가 흔히 피하고 싶어 하는 보다 도전적인 마음 상태들을 취할 기회를 갖기에도 충분한 시간으로 보였다. 물론 그처럼 보다 도전적인 마음 상태를 갖게 하는 것은 대개 지루함, 조급함, 좌절감, 두려움, 불안감, 공상, 기억들, 분노, 고통, 피로감, 슬픔 등이다.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는 게 밝혀졌다.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따로 시간을 내 명상을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 클리닉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적어도 8주 이상 매일 한 번에 45분씩 명상 수행을 하는 일을 기꺼이 해내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고 있다. 명상 수행이 쉬워졌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일, 그러니까 마치 구명 밧줄 같은 게 되고 있는 것이다.

수행시간 · 자세 · 호흡 등
명상에 관한 세세한 궁금증
명상하겠다 마음만 먹으면
얽매이지 않아도 명상 가능

그러나 사물을 이런 식으로 보는 것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순간 힘들긴 해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던 일이 다른 순간에는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길다' 거나 '짧다' 거나 하는 인식은 잘 해야 상대적이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들이 있는 미혼모의 경우 뭔가를 한 번에 45분씩 한다는 건 쉽지 않다. 그렇다면 그녀는 명상을 할 수 없는 걸까?

만일 당신의 삶이 끊임없는 위기를 맞거나 당신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혼란 속에 빠져 있다면, 설사 시간이 있다 해도 장시간 명상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에너지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당신이 하루를 시작하며 45분을 비워 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늘 무슨 일인가가 생겨 방해받는 기분이 들 것이다. 비좁은 집에서 다른 식구들과 함께 살고 있을 경우 불편한 감정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그게 매일 명상 수행을 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접근 방식이 도움도 되고 꼭 필요하기도 하다. 그리고 명상의 효과는 시간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걸 알 필요가 있다. 격식을 갖춰 제대로 하는 5분간의 명상 수행이 대충하는 45분간의 명상 수행보다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시간이나 분의 개념에서 벗어나 순간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다.

처음에 마음챙김 수행을 5분간, 아니 단 1분간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대단한 것이다. 당신이 이미 멈추는 일, 그러니까 잠시나마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일의 가치를 유념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잠시 곰곰이 생각해보자면, 각자 어떤 일을 하고 있든 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루 24시간 가운데 15분간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의 시간 여유도 낼 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 15분이 안 된다면 10분 또는 5분도 좋다.

명상 수행을 할 결심을 한 뒤 어떤 순간이든 한 순간을 잡아 그 순간을 내외적 자세 안에서 온전히 만나는 것이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이다. 긴 명상이든 짧은 명상이든 다 좋다.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기나 긴 여행도 사실 한걸음으로 시작된다.

정해진 길은 없다

내 경우 가족들과 함께 티턴 광야를 배낭여행하다 보면, 걸음을 내딛는 일과 관련된 의문에 사로잡히곤 한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은 어딘가를 딛게 마련이다. 길 따라 제대로 가기도 하고 길에서 벗어나기도 하면서 바위가 많은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 또는 가파른 경사로를 오르내릴 때, 우리의 두 발은 어디를 어떻게 디뎌야 하는지, 어떤 각도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으로 디뎌야 하는지, 또 뒤꿈치로 디뎌야 하는지 발가락 쪽으로 디뎌야 하는지, 돌아가야 하는지 바로 가야 하는지 등을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결정해야 한다. 아이들은 이런 질문은 절대 하지 않는다. "아빠, 발을 어디에 디뎌야 해요? 이 바위를 디뎌야 해요 저 바위를 디뎌야 해요?" 아이들은 그냥 발을 내딛는 것이며, 내가 보기엔 나름대로 자기 길을 찾아 간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어디에 발을 디딜 건지를 정하는데, 발 딛는 지점들이 내가 딛는 지점들과는 다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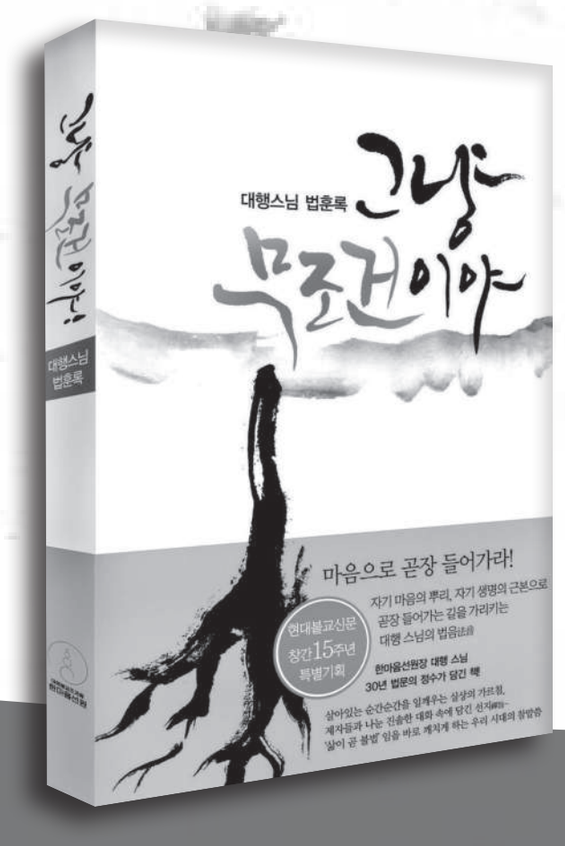
명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명상 수행의 길에도 위험한 함정들이 있어 잘 살펴봐야 하지만, 올바른 명상 수행 방법이 단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각 순간을 늘 새롭고 그리고 인식 속에 들어 있는 풍요로운 잠재력으로 맞는 게 가장 좋다. 그러니까 각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런 다음 마지막 순간에 집착하지 말고 그 다음 순간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매 순간이 새로울 수 있으며, 매 호흡이 새로운 시작이며 새로운 나줌이자 새로운 내버려둠이 될 수 있다.

바위투성이의 지형에서 걸음을 옮길 때처럼, 명상 수행의 길에도 '꼭 가야 할 길' 이 있는 건 아니다. 사실 명상 수행의 길을 가다보면 볼 것도 많고 이해해야 할 것도 많지만, 당신이 누군가에게 밀밭 위를 비추는 지는 해의 황금색 빛이나 산들 사이로 뜨는 달의 모습을 감상하라고 강요할 수 없듯, 이 또한 경요할 수는 없다. 그런 순간에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가장 좋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당신 자신이 그 장대한 풍경을 만끽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순간을 침묵 속에 보기를 바라는 것뿐이다. 일몰과 월출은 자신들만의 캔버스 위에 자신들만의 언어로 스스로 얘기를 한다. 침묵은 가끔 야성이 얘기할 여지를 남겨준다.

마찬가지로, 명상 수행의 경우에도 이것이 당신이 느끼거나 보거나 생각해야 할 것인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에 몰두하며 그걸 중요시하는 게 가장 좋다. 바위 길 위를 이동할 때 당신의 두 발이 알아서 몸의 균형을 잘 잡아줄 걸음 방법을 찾아내줄 것을 믿으면서, 어째서 매 순간에 대한 당신 자신의 경험은 믿지 못하는가? 당신이 만일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당신의 경험을 추인해주길 바라는 강한 습관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명상 수행의 길을 가는 동안 점점 심화되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발과 호흡은 매 순간 우리에게 걸음을 조심하고 집중력을 갖고 나아가며 편하게 마음먹으라고, 그리고 또 우리의 발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든 현재의 우리 위치에 감사하라고 가르친다. 과연 이보다 더 큰 선물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글은 존 카밧진의 〈왜 마음챙김 명상인가?〉 (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대행 스님

빛나고 굳센 우리 마음 하나가 우주 천하를 덮고도 남는다

어떻게 참선을 해 나가야 하는지요

질문 이 마음 도리를 알려면 어떻게 참선을 해 나가야 하는지요

답변 우리가 콩씨를 심어서 콩이 화해서 없어지고 콩 싹으로 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화두를 가지고 그 과거의 콩씨를 찾는다면 어디 가 찾아요? 자기가, 그 콩씨가 싹이 돼 버렸는데 어디 가 콩씨를 찾느냐고요. 싹이 있는 데 콩이 또 달리는 법이지 어디서 콩을 찾아요? 그거는 백 년, 천 년, 만 년이 가도 못 찾아요. 자기가 싹으로 돼 있으니까. 그 콩이 화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콩 싹이 화한 거를 알고 무조건 그냥 콩씨를 그냥 둘 아니게 먹어 치워라 이 소립니다. 자기한테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을 한마디 한 게 있죠. 수박을 놓고 굴리면서, 그게 "수박을 들고" 하는 건 "화두를 들고" 하는 비유를 한 겁니다. 수박을 들고 '이게 뭣고? 이게 뭣고?' 그러고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다 보니깐 세월이, 자기 젊은 세월이 다 갔단 얘기예요. 나는 그러지 말고, 못났든 잘났든 그냥 아, 죽으면 죽고 살면 살지 뭐 그렇게 겁이 나서 못 잘라 먹어 보느냐 이거죠. 그냥 먹어 치워라 이겁니다, 그냥. 먹어 보면 그 속에 씨도 있고, 그 속의 살이 맛이 어떤가도 알 수 있고 그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맛을 보고, 내가 그 씨가 있어서 영원하다는 거를 알게 되고, 그 씨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종자로 인해서 수만 수천이 벌어진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뭣고?' 하고 백네 날을 가지고 굴려도 그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그대로 화두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응아 하면 벌써 이것이 화두다. 그 화두를 누가, 어느 큰스님이 주신다 해도 그거를 이름으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라. 이름으로 받는다면 만날 들고 돌아다녀야 하고 마음으로 받는다면 그대로 둘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내면의 내면처와 또 주신 양반의 내면처가,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둘을 한데 합쳐도 그냥 하나의 주인공이죠. 만 불을 갖다가 하나로 넣어도 그것은 일 불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가서 빌고 기도하고 이럴 때, 여기저기 신중단이니 칠성당이니 독성각이니 또는 지장각이니 관세음이니 뭐, 그저 쫙 늘어져 있는데 그거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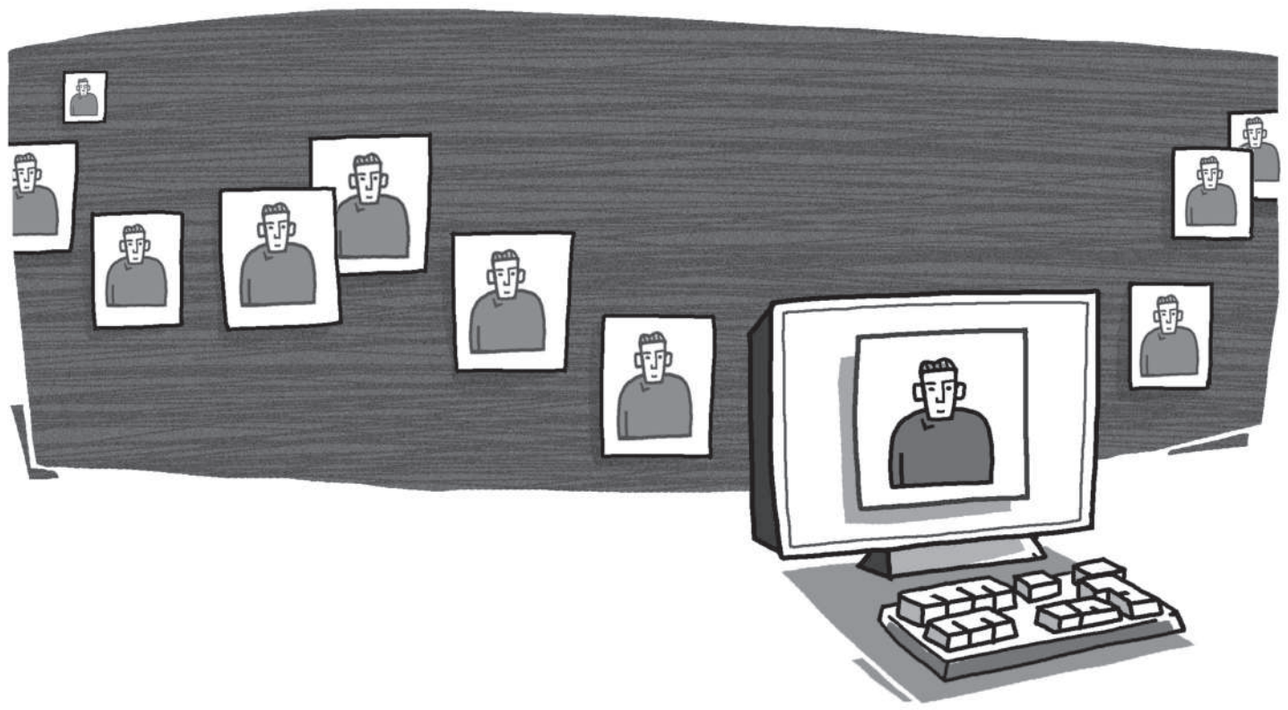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내가 아팠을 때는 약사가 돼 주고, 그러니깐 약사보살하고도 둘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리송하걸랑은 한 가정에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아들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형이 됐다가 아우가 됐다가, 친구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지죠? 그거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플 때는 약사가 돼 주고, 괴로울 때에는 관세음이 돼 주고, 또 명이 짧다 하면 칠성이 돼 주고, 좋은 데로 못 갔다 하면 지장이 돼 주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한데 그냥 뒤죽박죽을 만들어서 그렇게 부처님한테 가서 빌고 살려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주인공에 모든 것을, 아프면 아프다고 관하면 그것이 바로 약사로 화해서 나투어 주시고, 또 내가 가난하고 무슨 일이 생기고, 법원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거기다 관하면 그대로 그냥 관세음보살이 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공부할 때도 여러분 과목에 따라서 요거 배울 때 있고, 요거 배울 때 있고, 요거 배울 때 있죠? 한데 다 놓고 뒤죽박죽을 해서 배우는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그것이 필요한 것대로 화해서 그렇게 바꾸어 준다 이거예요. 바꾸어 주는 게 아니라 바뀌진다 이겁니다, 스스로 자동적으로. 우리는 본래 자동적인 컴퓨터기 때문에, 대뇌에 우리가 자동적인 컴퓨터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거기 들어가는데 안 됩니까? 용광로에 그냥 모든 걸 갖다 넣으면 저절로 재생이 돼 나가듯이,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달이다' 이런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졌다 했을 때 내가 만약에 달이 된다면, 내 마음이 이 달 속에 들어가서 내가 달이 된다면, 내 마음이 달이 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남을 해치지 않고 또 잘못되지 않게 할 수 있죠? 자기가 자기 죽이는 법은 없으니까. 내가 또 그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태양이 된다 이럴 땐 태양으로서 내가 맘먹고 들어갔기 때문에 태양이 타 버릴 리도 없고 부패될 일도 없지 않습니까.

또 지구 역시 그래요. 모두가 구멍이 뚫어졌다, 펑크가 났다, 에너지가 다 없어졌다 이러더라도, 내가 만약에 지구가 된다면 이 허공에 꽉 차 있는 에너지를 자동적으로 끌어들여서 쓸 수 있는 문제가 생기죠. 이 문제를 모두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제일 귀중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금 같은 마음이에요. 굳세고 금 같은 마음이요. 빛나고 굳세고 그런 마음이요. 그 마음 하나가 우주 천하를 덮고도 남아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도 남아요. 받치고, 덮고, 굴리고 해도 남아요. 저 스님은 엉뚱하게 저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거는 없다." 이럴 수는 없으니까요. 귀가 잔뜩 먹은 사람한테 "아! 지금 천둥이 쳤다." 이러면 아, 이거 천둥 친 거 없다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아닙니까? 귀가 뚫린 사람은 천둥 치는 걸 들었겠죠. 그래 소리는 들었으나 쥘 수도 없고 갖다가 보일 수도 없는 것이 천둥이고 종소리죠. 모두가 그래요. 그렇듯이 그렇게 갖다가 쥘 수도 없고 갖다 줄 수도 없고 보일 수도 없지만 있어요. 갖은 소리 다 하게 하고, 갖은 각색으로 움죽거리게 하고, 갖은 각색으로 배우게 하고, 갖은 각색으로 먹게 하고. 이거는 뭐, 말로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광대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사대 성인도 그랬어요. "못났든 잘났든 너 먼저 알아야 이 세상의 섭류를 알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가난해서 못 배운다, 바빠서 못 배운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죠. 와선, 좌선, 행선, 참선 이러는데, 참선이라는 것은 일을 하거나 눕거나 앉거나 자거나 할 때에 그대로 하는 게 참선이거든요, 갈라놓지 않고. 앉아서 하는 건 좌선인데, 앉아서 관하는 거나, 일할 때에 관하는 거나, 섰을 때에 관하는 거나, 누웠을 때에 관하는 거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관하는 근본에서 나오는 건 한 자리지 두 자리가 아니거든요. 몸뚱이는 이리 움죽거리고 저리 움죽거리고 해 봤자 그것은 몸뚱이를 치는 게 아니에요. 움죽거리라고 해 놓은 거 움죽거리지 못한다면 목석이지 그게 사람이오, 어디? 그러니까 움죽거리고 그러는 자체가 그 마음 근본에서 나오는 거니까 마음 근본에서 앉든지 서든지 일하든지 그건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선이라고 이름해서 부른다 이런 거죠.

바쁜 돈벌이 속에서도 참선이 될까요?

질문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인생을 의미 있게 살고 싶은데 가끔씩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도 참선이 될 수 있을는지요.

답변 우리가 넓게 생각을 한다면 풀 한 포기 하나도 스승 아닌 게 없어요. 부처님만 스승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나가려면 강도짓 하는 사람을 보고도 깨닫는 게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풀 한 포기도 돌 하나도 물 흘러가는 것도 다 스승이에요. 그렇게 스승 아닌 게 없으니까 그거를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그러는 거죠.

모든 일체 만물만생 또는 삼세, 과거 · 현재 · 미래를 한데 합쳐서, 삼심 · 삼세 모든 것을 한데 합쳐서 주인공이라고 한 거니까,

☞ A18면으로 계속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한의원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분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부처님의 마음을 빚는 불상 불단 조성 전문업체
한국불상조성원
상담문의 010-3665-6696

정성과 신뢰로 짓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에서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불상제작 방법을 전수받아 한국 불상의 전통과 맥을 이어가고 색바램없이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기술적 자질을 보유하여 다양한 불상을 조성하며 전통적인 표현양식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상판매 뿐만 아니라 사찰에 관한 모든 필요한 것을 일체 컨설팅과 자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불상조성원 대표 이 인 규 합장

불단, 수미단 | 닫집, 운각 | 특수불, 동불, 목불 | 단청개금, 순금개금 | 도금, FRP, 수지
소불, 대불, 모든 탱화 | 위패제작 | 건 축 | 맞춤 조성 가능 | 사찰 관련 컨설팅 및 자문

TEL 031-536-6696 | FAX 0504-398-6696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다 보면 곧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 A17면에서 계속

그 주인공 하나만 생각하면 뜻으로다가 그냥 둥글려지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세요. 이것저것 자꾸 생각하다 보면 곧장 들어갈 것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모으셔서 그 자리에 맡기고 지켜보는 그런 참선자가 되세요.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거기다 턱 맡기고 그냥 진짜로 아무 괴로움이 없어요. 돈이 많이 벌려도 걸림이 없고요, 돈이 안 벌려도 '너만이 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놓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모든 도리를 간단히 생각하세요. 돈을 수만 억을 번다 하더라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혼자 갖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번 것도 아니고, 혼자 가질 것도 아니고, 혼자 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많이 버니까.' 하고 '내가' 라는 생각으로 나를 내세우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지, 한마음이라는 주인공에서 본다면 그렇게 나가 많은데, 일체가 다 나 아님이 없는데 구태여 왜 거기 걸립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무조건 믿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시고 그러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몇만 냥을 벌더라도 또 욕심을 내서 '저걸 벌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나도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이 난 게 아니에요. 수십억의 의식들이 한데 모아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되고 안 되는 건 믿음의 문제 같아요

질문 되는 것도 법이고 안 되는 것도 법이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의 경험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실로 100% 믿는 일은 되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이 붙는 경우는 안 됐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옳은 생각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그것은 믿는 자에게만이 화해서, 더러운 게 깨끗한 걸로다가 화해서 나올 수 있죠.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만약에 서류를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 오고 가면서 그것이 흐지부지해지지 결정적인 문제가 되질 않듯이 결정적으로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질 않죠. 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 안 되는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양면을 다 놓고 그저 진실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말이지 열쇠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야 합니다. '되고 안 되는 건 너밖에 할 수 없다.' 내가 마음을 '되게끔 해야 내가 사니깐 너만이 할 수 있잖아?' 하고 그냥 맡겨 놓아야지, 맡기면서도 의심이 나고 또 맡겨 놓고 조금 지내다 보면 또 의심이 나고, 그래서는 맡길 수 없는 거죠. 맡길 수 없는데, 결정을 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저 자생중생들이 화해서 보살행을 합니까?

유마힐 거사가 병을 앓고 있는데, 병문안을 간 문수에게 어떠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다 잘 아시죠? 중생들이 병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다 작용을 해서 병이 나아야 내 몸뚱이가 건강하지 않아요?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어떻게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고 하니까 죄 외부의 중생들이 다 나아야 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잇속 없는 생각들을 하십니까. 내 자생 중생들부터 건져야 화해서 나투면서 웅신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하다못해 벌레들에게까지도 응해 주시는 것이 천차만별로 보살 응신으로서 나툰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 자생 중생부터 제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들고 나는 마음을 놓는 것도 여러 가지 있죠. 이 내 마음을 진짜로 믿고 거기다 놓아야 이 자생 중생들한테 통신이 되는 거예요.

> **진짜로 믿는다면 고꾸라지든지 가든지 오든지 그런 걸 상관 안 하고 근본 자리에 턱 맡기기 때문에 괴로운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지 않으면 통신이 되질 않아요, 절대. 통신이 되질 않으니까 작용을 못 해 주죠. 안에서는 안의 작용을 하고, 이 세포에서는 바깥으로 모두 나투면서 마음 조절을 하면서 작용을 해 주는데, 이건 신호가 들어가지 않는데 무슨 작용이 됩니까? 그러니까 "잘되는 것도 너의 마음의 법, 못되는 것도 마음의 법이니,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마음대로 해라. 자유다, 그것도." 이런 거죠.

자유라는 그 자체는 바로 누가 자유를 찾느냐. 그건 여러분이 모두 자유를 찾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누가 잘 먹는 사람이 대신 먹어 준다고 해서 내 배가 부르진 않거든요. 대신 먹어 주는 건 공덕이 하나도 없고 영원히 그 무명의 굴레에서 빠지지 못해요. 그러니깐 뭐든지 불바퀴에 그냥 놔 버리는 겁니다. 놔 버려요, 그냥. 놔 버리면 그냥 아무것을 다 놔도 불바퀴에서는 타 버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오면은 무조건 타 버려요, 믿고 놓으면. 무조건 그것이 타 버리고 무조건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생산은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금이면 금이 생산이 될 거고, 무쇠라면 무쇠가 생산될 거고, 넝마라면 넝마가 생산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예요?

관하는 것과 자신과 대화하는 것

질문 관하는 거와 자신과 계속 대화하는 것이 다른가요? 저는 나름대로 방에 앉아서 주인공과 대화를 하는데 너무 생각으로 짓고 있나 하고 약간 허한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그것도 그냥 거푸장스러운 생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광대하고 넓고 천차만별로 나투고 이러는 도리를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믿지 못하니까 허전하지, 믿어 보세요, 허전한가.

그런데 과학적으로 지금 벌어지는 일들, 그렇게 모르겠어요? 마음으로 하는 건 빛보다 더 빠르게 단축하는 거고, 지금 과정에 있어서 그거는 한계가 있는 거지마는 팩시밀리 왔다 갔다 하고 인공위성 띄워서 모두 전파가 되고 이러는 거 느끼지 못합니까? 그러면 그거 보이지 않는 데서 그렇게 해서 보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죽거리게 하는 거,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리고 또 대화를 누가 하랬습니까? 관하랬지!

자기가 있는 데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예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 놈이 있다면 절도 지을 거고 제 놈이 없다면 못 지을 거니까, 난 탕평 살았어요. 왜? 믿으니까. 제 놈이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 제 놈이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 어떠한 거라도 할 수 있다는 거를 믿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믿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왜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영원한 친구를 못 믿습니까, 자긴데! 자기 몸뚱이는 집이에요. 자기 영원한 친구의 집. 집하고 둘이 아니에요. 물건을 해서 끓여 내면 오븐에 넣어야 끓여 내죠? 그 오븐도 집이란 말입니다. 물건 해내는 집.

그러니까 대화를 하되 대화가 아니라 관하는 거 '야, 네가 있다면, 진짜 있다면 이거 지금 급한데 너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고 거기 맡겨 놓고 지켜보는 것. 그렇다고 해서 꼭 앉아서, 방 안에 들어앉아서 문 걸어 잠그고 지켜보라는 게 아니에요. 방 안이나 방 바깥이나, 들이나 산이나 똑같은 자리에요, 자기가 앉아 있는 자리가. 그래서 공부한다고 뭐, 저 산속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거는 거푸장한 짓들이라고 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저거 하다가는 그것이 100%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내가 믿지 않는 이상에 환자도 믿지 않게 되죠, 서로가.

옛날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넌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는 "색경을 일어나서 봐." 그래 색경을 보니깐 내 상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상판을 보니깐 똑같죠? 그래요. 이렇게 이게 거죽에서 볼 때는 똑같지만, 내가 너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고 할 수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는 수없이 바뀌지는 거. 바뀌진다 이겁니다. 화해서 바뀌지니까 너는 거기에 발끝도 못 쫓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알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말이지 아주 재주가 뛰어나고 묘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써먹지 못한다 하는 것은 이 모습 가진 나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모습 가진 나는 자가 되고 바로 보이지 않는 자기는 부가 되고, 자로 오면 자가 하나가 되고 부로 가면 부가 하나가 되는데 그건 무슨 연고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의 모습이 나로만 생긴 게 아니라 쓸모 있게 이걸 화해서 변경이 돼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이 소립니다. 마음이 산속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달라지고 들로 나오면 마음이 달라지나요? 마음이 있는 자리는 자기 몸뚱이 있는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의사로서 역부족을 느끼는데…

질문 저는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병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 산후 출혈이 너무 심해서 위험해지거나 분만 중에 진통을 견디지 못해 애한테 이상이 생기는 등, 이런 경우에 저도 간절히 관하지만 역부족일 때가 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지금 주인공이다 이럭하는 것도 이름이며 방편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거는 내가 한다 안 한다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런 건 위험하니깐 아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거 말입니다. 아주 관하고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라고 그거 단정 지어서 결정을 지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말입니다, 자기 공체에 들어 있는 자기 원소가 진짜로 자기라는 걸 믿고 알아야 되겠죠. 근데 딴 생각을 하면서 딴 데로 이렇게 빠지면 그대로 그냥 변경이 되고 바꿔지는 거죠. 바꿔져서 그게 실천에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깐 말로 할 수 없으리만큼 실천이 되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참 묘하다. 그건 도깨비장난 같구나." 이렇게도 선지식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깐 만약에 진짜로 선생님의 원소 자체 주인공을 믿는다면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게 없죠. '주인공.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이렇게 해.' 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죠. 어린앨 낳고 그렇게 해서 피가 나오는데 코로도 나오고 이게 전부 하혈을 하게 되니깐 다 죽게 돼서 여기다가 뭐, 숨 쉬는 거 꽂고 이러고는 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일 퇴원하겠느냐고 물었어요. 내일 퇴원시키겠느냐고. 그러니 미쳤다고 그러지 그거 성했다고 그래요? 그래 퇴원시키겠다고 그러고 그 병원에서 나와서는 바로 5분이나 됐나? 그게 다 멎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거는 다 알겠지만 그건 말로 해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선생님 한 찰나의 한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 속에서 나빠진 애들이나 거꾸로 되어 있는 애기나 그런 애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한번 돌아서 바로 서게끔 되는 것도 자기 원소가 다 해야죠. 그래서 그 "태교를 해라. 태교를 해라. 태교를 하면서도 자꾸 관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애기 원소한테 통신이 되면은 그 애기 원소가 애기가 아니니깐, 애기를 이끌어 주는 원소니깐 그 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자기를, 그 애기를 잘 나오게 하죠. 순산을 하게 하죠. 그런데 그렇게 순산하게 하는 것은 태반 옆에 애기의 그 발이 뒤꿈치가 거기에 딱 닿으면서 거길 누르고 나오거든요. 그래야 빨리 그게 산모도 힘이 생기고 애기도 힘이 나고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애 발뒤꿈치가 거길 닿아서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어린애가 스스로 그렇게 돼야지 억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스스로 그렇게 돼요. 관해서 통신이 되면은.

관해서, 즉 말하자면 애기의 원소하고 산모의 원소하고 그렇게 선생님이 관하는 그 마음하고 동시에 같으면 아주 그냥 애기가 힘이 생기고 절대로 나쁘게 되지를 않죠. 그리고 빨리 순산될 수가 있죠. 그러나 더디다 해도 더딘 대로 좋은 수가 있거든요. 지혜능단을, 지혜의 그 정신력에 대한 문제를 덜 가지고 넣어졌다 이러면 조금 쉬는 동안에 그 정신력을 거기다가 되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깐요. 이 정신력이 아니라면 우린 송장 됩니다. 이걸 말로 하려니깐 힘이 드는군요. 그게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불사용 장엄등 시공 • 임대

보련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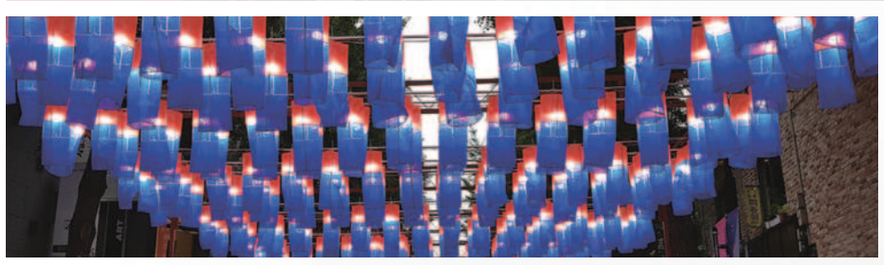
장엄등을 대여해드립니다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 시공

행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출

보관 · 사후관리 불필요











BORYEON 보련기획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 현불 논단 |

생명존중과 명상



선업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최근 곳곳서 생명존중행사 잇달아
생명 의미, 참가자에게 생생 전달

불교 계율 중 첫 번째가 '불살생계'
그만큼 생명존중을 중요 가치 여겨
자비희사 사무량관에도 그대로 담겨

자애명상 통해 분노를 자애로 대치
명상 후엔 범위 넓혀가며 통찰하길
자애 충만하면 존중 못할 존재없다

요즘 곳곳에서 생명존중행사가 열리고 있다. '살사(살며 사랑하자)' 그리고 '라이프워킹(Life Walking) 생명을 향한 한걸음' 등 행사의 제목도 신선하고, '생명사랑지킴이 서약식', '도전! 자살예방 4행시 짓기', '스마트폰 중독 점검하기(Log off, Life on)' 등 체험 부스의 프로그램도 참가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이런 노력들은 생명존중의 의미를 참가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걷기 행사의 경우도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고 소감을 전한 참가자의 말처럼 많은 이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계율의 첫 번째가 '불살생'인 불교는 생명존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생명존중에서 '존중'의 경우, 어원을 살펴보면 대상물을 되돌아보고 배려하고 숙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들을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인 것이다. '존중'이라는 말은 또한 어떤 사실을 나타낸다기보다는 사랑의 감정 · 정서 · 열망을 반영하는 가치어(value word)이다. 그러므로 '생명존중'이라는 말에는 이미 '생명체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불교의 생명존중사상은 수행방법에 그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비희사 사무량관이다. 특히 마음속에 분노의 가시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부처님은 자애명상을 권하고 있다. 중생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가시가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 가시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아신 부처님은 가시를 가진 이들이 스스로를 찌르고 괴로워할 때 분노를 자애로 대치하여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했다.

자애명상의 시작은 우선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내 자신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합니다"라고 명상한다. 그 후 한정되지 않은 대상을 향해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발원합니다", 또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발원합니다"라고 자애명상을 한 뒤, 그 후 자애의 느낌이 잘 일어나는 한정된 대상을 향해 명상을 한다.

예를 들어, 고맙고 존경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향해 먼저 자애명상을 한 후 자애심이 충분히 일어나면 차례로 가까운 가족, 중립적인 사람 순으로 대상을 넓혀나가는 것이다.

특히 용서의 과정을 통해, 싫어하는 사람에서 미워하는 사람으로 대상을 넓혀나간다는 측면은 비폭력에 기반한 생명존중의 좋은 본보기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라고 되뇌이다 보면 존중하지 못할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통찰하게 된다.

사무량관의 두 번째인 연민명상의 경우는 "당신이 몸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또는 "당신이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이라고 명상하면서 대상에게 연민을 보내면 된다. 이어서 함께 기뻐하는 '수희명상'과 '나다 너다' 하는 분별심을 제거한 '평등명상'을 계속하게 되면 더불어 함께하는 '평상심'으로 존중의 정신을 주변과 나누게 된다.

생명경시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생명존중 운동으로 회복시켜야 할 이 시기에 부처님의 명상법은 생명살림의 최고의 방법임에 틀림없다.

社 說

포교 행정력 강화 제도 필요

조계종 포교원이 9월 30일 새로운 포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그동안 포교환경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다. 2000년 초반의 포교환경보다 현재 포교환경은 더욱 열악하다. 탈종교화 사회에서 포교는 지상과제가 되고 있다.

개별로 분산된 사찰 단위의 포교로만은 이러한 포교지형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어린이 청소년 등 계층 포교와 새롭게 부각되는 뉴미디어 포교에 대한 접근 등은 종단 삼원 중 하나인 포교원 만의 일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동안 포교원은 역대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다양한 종책 사업을 진행해왔다. 결과는 어떠한가? 포교원 만의 구호에 그치지 않았는가? 그 결과는 300만 불자의 감소였다.

그 이유를 돌아보면 비단 포교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포교원이 좋은 종책을 개발해 내고 이를 집행한다고 해도 정작 일선 사찰의 호응이 떨어지고, 포교원이 강력하게 집행할 터전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아무리 매번 포교원 집행부가 바뀌고 좋은 종책을 내놔도 이를 하달하여 시행하는 사찰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교 · 전법 활동가 스님으로 구성된 전법단을 구성했지만 이 또한 역부족이다. 지역포교, 계층포교 등 다양한 포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찰단위의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불교는 위기다. 이 위기 극복은 바로 전법포교에서 나온다. 포교원의 종책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총무원과 교육원이 적극적으로 '포교'라는 주제에 머리를 맞대고 포교행정력이 담보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

수마노탑 국보 승격 기원한다

요즈음 정선에서는 "보물 제410호 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보 승격을 기원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선 지역 9개면 100여 단체에서 이 같은 현수막을 내걸었고, 이들 단체 중에는 개신교와 가톨릭 단체도 있다고 한다. 종교를 떠나 정암사 수마노탑의 국보 승격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다.

정암사와 정선군의 수마노탑 국보 승격 사업은 조금은 아픈 역사이다.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인데 2차례 실패를 맛봐야 했기 때문이다. 2번의 실패 후 정암사와 정선군은 절치부심했다. 당시 문화재위원회 부결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쳤다. 정암사와 수마노탑을 알리는 '자장율사 순례길'을 지난 6월 개통하기도 했다.

수마노탑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석탑이다. 고려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마노탑은 한국에는 드문 '전탑계 모전석탑'이다. '전탑계 모전석탑' 중 대표적인 것이 국보 제30호 분황사 모전석탑으로, 수마노탑도 분황사의 조탑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황사계 조탑 양식이 경상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그 만큼 한국 건축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진 탑이라는 것이다.

수마노탑이 국보로 승격되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정선아리랑과 함께 유 · 무형문화재가 공존하는 문화유산 도시로 만들겠다는 정선군의 계획도 주목할 만하다.

현재 정암사는 8월부터 국보 승격을 기원하는 100일 기도를 진행 중이다. 탑이 국보로 승격되면 순례객들의 신심을 고취시킬 신행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암사 대중의 기도가 국보 승격으로 이어지길 기원해 본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당신의 '물 소비량' 아시나요

우리집 싱크대와 욕실 샤워기는 오래 전부터 절수용으로 교체해 사용해 왔다. 변기 물을 한 번 내릴 때마다 13L의 물이 소비된다는 걸 알고는 변기 속에 벽돌 한 장도 넣었다. 평소 화장실을 사용할 때면 아들과 나는 볼 일을 보고 한꺼번에 물을 내린다. 엄마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으면 '나도 화장실 가고 싶었는데 잘됐다'라면서 줄을 선다. 그러면 아들까지 볼일을 본 뒤에야 물을 내리는 식이다. 그럴 때면 아들은 지구를 아낄 수 있다며 기뻐하곤 한다. 이렇듯 소소한 물 절약에도 불구하고 우리집 물 사용량은 전년 대비, 혹은 전월 대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집에서 아들이 키우는 물고기의 수조가 많아지고 화초들의 화분이 커지면서 물 사용량이 나날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나의 하루 물 사용량은 얼마나 될까? 관리비 고지서를 찾아 한 달 물 사용량을 가족수로 나눠 보았다. 지난달 기준으로 한 사람 당 하루 176L의 물을 썼다. 2L 페트병으로 계산하면 한 사람이 88병의 물을 하루에 쓰고 있는 셈이다. 어마어마한 양이다. 평소 고지서를 볼 때는 톤으로 표기된 단위 앞에 그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를 가늠하지 못했는데, 페트병의 개수로 수치화되니 조금은 감이 잡힌다.

88개의 페트병을 집 어딘가에 세워두었다고 상상해보라. 하루에 내가 쓰는 물 양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서울시민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286L라는 것이다. 무려 2L 페트병 143개를 하루에 쓰고 있는 것이다. 이 사용량은 도쿄 200~250L와 뉴욕, 런던 100~200L에 비해 훨씬 높은 것이다.

이렇게 많은 물 소비량에 대해 서울대 빗물연구센터 한무영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물맹'이라는 단어를 썼다. 글자를 모르면 문맹이듯 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물맹'이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자신의 물 사용량을 체크하고 공공기관부터라도 절수형 변기, 빗물 저금통 설치 등을 통해 '탈물맹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물 절약과 빗물 활용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한 교수는 서울대와 스타시티라는 건물에 빗물 저장고를 설치해 빗물을 활용해 왔다. 스타시티 건물 지하에 있는 3,000톤의 빗물 저장고는 인근 지역 홍수 방지, 조경수 활용, 화재 등 비상시에 사용돼 두루 주변을 이롭게 한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는 빗물인 셈이다. 이 건물 세대당 수도 요금이 한 달 평균 100원에 불과하다고 하니 '빗물이 곧 돈이고 자원'이라는 한 교수의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진다.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은 부족해지고 우리나라도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지금, 촐촐히 내리는 가을비 한 방울 한 방울이 새삼 아깝게 여겨진다. 잦은 태풍으로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이 가을, 빗물 저장고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집 베란다에 가득한 화분들도 빗물을 흠뻑 마실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집에 빗물 저장고를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물맹'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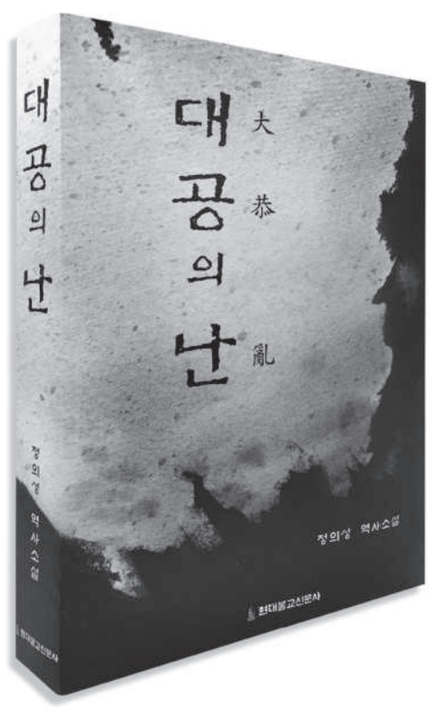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운명의 화살은 일직선으로 날아가는 법이 없더라"

불법이 꽃을 피웠던 통일신라,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더욱 밝게 열리듯이
법멸의 월식 기간이 있었으니,
그 시대를 건너야 했던 왕과 여왕,
화랑과 고승들, 그리고 천하제일을 다투는 검객들의
사랑과 운명이 밤하늘과 별처럼
오늘 우리의 가슴을 적신다.

작가 정의성 (鄭義成)

신라의 김대성 공은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를 지었고 현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지었습니다.
그 멋들어진 효성이 천이백 년이 훌쩍 지난 지금에도 남아있습니다.
저도 작게나마 부처님께 이 책을 지어 바쳐
부모님의 행복을 빌고자 합니다.



대공의 난
정의성 역사소설 | 신국판 | 704쪽 | 값 22,000원
현대불교신문사

현실을 꿈처럼 재해석하게 하는 불교적 환타지,
무협소설 같은 속도와 긴장,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지혜와 술수의 맞대결…

이 소설은 통일신라시대 중기에 일어난 대공의 난을 다루고 있다.
모름지기 소설은 첫째, 재미가 있어야 하는데 작가 정의성의 〈대공의 난〉은 그 첫째를 충족시키고도 남음이 있다. 암흑의 시기를 통과하는 청춘 남녀들의 사랑과 비극이 폭염 속의 단비 같고, 장마 속의 햇살 같은 신들린 작가의 손에 의해 반전에 반정을 거듭하며 절묘하게 펼쳐진다.
〈삼국사기〉,〈삼국유사〉가 갖는 비통일적인 특성들이 작가의 상상력에 의해 결합, 재창조되어 역사 속의 인물들을 더욱 생생하게 눈 앞에 되살려냄으로써 특별한 재미와 함께 인생사의 오묘한 이치를 사유하게 된다.
역사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대한 자료조사, 검술과 진법에 대한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갈고 닦은 내공이 작품 속에 녹아 있어 삼국지를 연상시키는 박진감을 선사하면서, 영화나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펼쳐진다.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 02)2004-8216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대표이사 서성우

"가정에 수호신을 모셔 주십시요"

달마대사께서는 부처님 다음으로 불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시며 선을 대표하는 인물이시고 깨달음의 징표이십니다.

중국 소림사 한국본부 문화원 운영위원장겸 미술원 원장이신 청곡 이한동 화백님의 작품으로 한점 한점마다 수호신이 되어 집안을 지켜줄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하고 가족의 건강과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7



8



9



남인도의 대바라문국의 셋째 왕자로 태어나신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부터 28대 조사가 되시는 분으로 인도에서 일어난 대승불교의 씨앗을 중국으로 가지고 와서 중국 선종의 초 조사가 되시는 분이시다, 양나라 무제와 결별하고 갈대 한가닥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 소림사에 은거하며 9년 동안의 면벽좌선으로 크게 깨우침을 얻어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내리고 중국 선종을 크게 부흥시키신 분이시다.

10



11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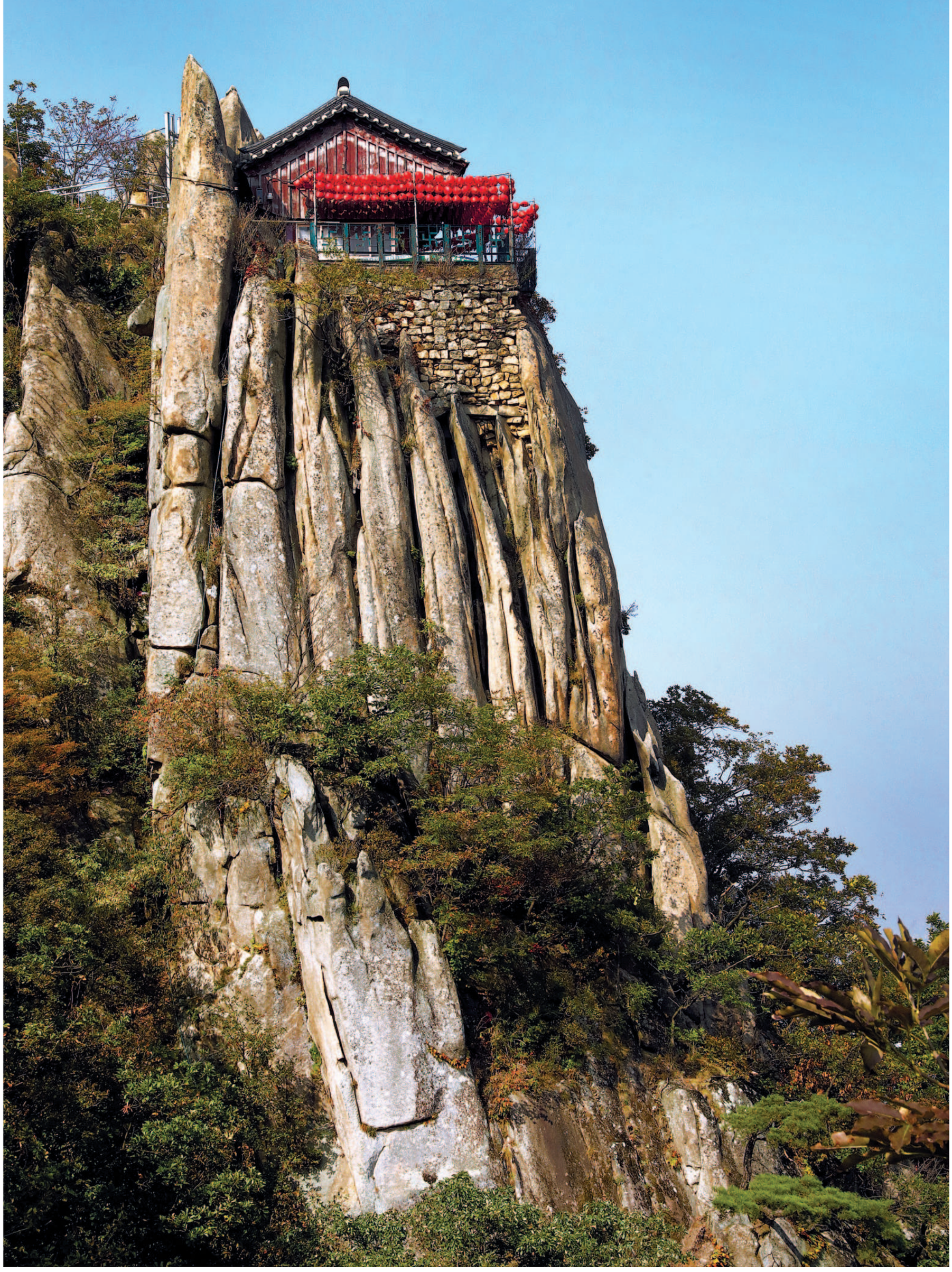


달마의 모습은 원래 왕자로 태어나 귀하고 잘생긴 모습이었으나 어느날 한 마을을 지나다가 어디선가 고약한 냄새가 풍겨나고 마을 사람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근원을 찾아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 죽어 썩어가고 있어 달마가 자기 육신을 벗어놓고 뱀속으로 들어가 뱀의 몸을 움직여 깊은 바다속에 버리고 돌아와 보니 그사이 험상궂게 생긴 신선이 지나다가 달마의 몸을 발견하고 자기 몸을 벗어 놓고 달마의 몸을 가지고 가버린것이다. 하는수 없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 것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달마의 모습인 것이다.

규격 : 54x120Cm 가격 : 100,000원, 2점 이상주문시 90,000원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TEL.02)2004-821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시대의 그리움 달랜 수행처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⑦ 과천 연주암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해발 629M 벼랑 끝에 오르면 속세의 모든 미련과 그리움을 끊어낼 수 있을까. 그 옛날, 사라진 고려를 잊지 못했던 고려의 마지막 신하 셋은 그 그리움을 끊어내기 위해 절벽 끝으로 올랐다.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흐른 어느 날에는 보위에 오르지 못한 조선의 두 왕자가 시절의 미련과 그리움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같은 곳을 찾았다. 하늘인지 땅인지 모를 그곳은 나한의 도량이었다. 기도가 전부인 하루와 멀어진 시간이 전부였던 그들은 나한의 품에서 한 시대를 잊었다. 그리고 시절과 함께 사라졌다. 도량은 관악산(해발 629M) 정상에 자리한 연주암이다. 그리고 도량의 끄트머리 기암절벽에는 마지막 그리움을 태우는 자리 연주대가 있다.

그리움으로 걷는 길

짙어가는 가을 하늘 아래 관악산 봉우리가 가을꽃처럼 피어있다. 10월에 접어든 하늘은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고 숲엔 단풍의 예감이 보인다. 산 밑의 등산로 입구에서 연주대가 있는 관악산 정상까지 가는 길은 약 3.5KM 길이다. 걸어서 약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정상으로 오르는 길은 여러 코스가 있다. 과천향교쪽 등산로에서 시작한다.

그 옛날 그리움을 끊어내기 위해 고려의 신하들과 조선의 왕자들이 걸었던 발자국을 따라 길을 시작한다. '먼 길' 이라고 생각하니 몸과 마음이 팽팽해진다. 길을 시작하면서 산 정상을 바라본다. 아직 암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은 벌써 암자의 마당을 거닐고 있다. 가슴 속으로는 법당의 향 내음이 다가온다. 백구나 황구도 한 마리쯤 도량을 거닐고 있을까. 스님의 염불기도소리, 응진전 나한의 분명한 눈빛들, 연주대에 서있을 누눈가의 그리움, 이 생각 저 생각이 마음속에 빼곡히 들어찬다.

한 걸음 한 걸음 산길을 오르며 그 옛날 고려의 신하들과 조선의 대군들을 생각해본다. 그 시절은 어디에도 없는데 그 옛날은 분명 길 위에 있었다. 그들이 품었던 그리움도 함께 따라가 본다. 고추잠자리 한 마리가 가을바람을 따라 숲으로 사라진다. 숲에는 가을이 오고 있다. 나뭇가지가 가벼워지고 나뭇잎은 늙어간다. 모든 것들은 이제 덜어내고 덜어지고 있다. 그리움을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다.

그 옛날 그들의 그리움은 시대가 만든 그리움이었다. 그리움이 되지 않은 시대가 있을까. 모든 시대는 언젠가 저물고, 저문 시대는 그리움으로 남는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절 속에서 소소한 그리움들로 살아간다. 숲의 한 시절도 저물어간다. 모든 것들은 이제 그리움이 되는 일만 남았다.

그 옛날 고려의 신하는 기울어가는 고려의 충신 강득룡, 서견, 남을진이었다. 세 신하는 연주대에 올라 고려의 도읍 쪽을 바라보며 저무는 한 시대와 한 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그리움을 이내 씻었다. 이들 셋이 그 옛날 연주암을 찾았을 때는 연주암의 편액이 '관악사' 였다. 연주대의 이름도 지금과 달랐다. '의상대' 였다.

두 왕자는 조선 태종의 두 아들 양녕과 효령대군이었다. 태종이 창녕대군에게 보위를 내주자 두 왕자는 왕좌의 미련과 왕조의 그리움을 끊기 위해 멀리 멀리 걸었다. 그 때도 역시 연주암은 관악사였고, 연주대는 의상대였다. 먼 길을 걸어왔지만 두 왕자의 그리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점점 더해갔다. 두 왕자는 할 수 없이 왕실이 보이지 않는 자리로 관악사를 옮겨 짓는다. 지금의 연주암 자리는 그 때 옮겨 지은 도량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두 왕자는 그리움을 끊고 싶었던 것이다.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빠옥 총림에서 생활 〈8〉

B4 책세상
용수 지음 〈용수 스님의 코끼리〉

B5 문화
동천 엄기철 제3회 서예 개인전

B6 학술
'性別空性' 새 선사 모델 보여준 대행선사

의상 세우고 민초들이 寺名 바꿔



지금의 연주암은 677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관악사가 시작이다. 효령대군이 조성했다고 알려진 연주암 3층석탑과 연주암 전경.



연주대 응진전에서 스님과 불자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677년 의상대사 관악사 창건
고려신하 · 효령 전설로 개명
고려충신 강득룡 · 서견 · 남을진
조선 양녕 · 효령 마지막 거처

해발 629M 절벽에 응진전
삼층석탑 효령대군이 조성
연주대 이성계 · 무학대사 조성

이성계 조선왕조 번창 기도
명성왕후도 중수불사 지원
억불시대서 불교 명맥 지켜

'과천 연주암' B1면에서 계속

하지만 위의 이야기는 그 어떤 사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전해오는 이야기일 뿐이다. 하지만 전해오는 이야기에는 어떤 시비도 없다. 문자로 남는 것만이 기록은 아니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기록은 오히려 튼튼했다. 불에 탈 염려도 없고 바람에 날아갈 일도 없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관악사를 연주암으로, 의상대를 연주대로 바꿔 부르게 된 연유가 들어있다.

관악사의 바뀐 이름 연주암은 고려를 잊지 못한 신하와 시절의 선택을 받지 못한 조선의 두 왕자의 심정을 후대의 사람들이 도량의 이름으로 바꿔 부른 것이다. '연주암' 은 그리움의 도량이다. 그것도 한 시대 한 나라를 잊지 못한 그리움이다. 그리움이 머물고 그리움을 끊어낸, 참으로 애틋한 도량이다. 후대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이다. 암자의 이름은 그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애틋하게 살아낸 자리라면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어 내일을 물어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의상대에서 의상의 시절을 지우고 대중의 그리움으로 바꿔 부르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의 연주암은 677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관악사가 시작이다. 연주대가 의상대였던 것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연주암중건기〉 등의 자료에는 의상 스님이 관악산에 의상대를 세우고 수행했으며, 그 아래에 관악사를 창건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존 유물이라든가 의상 스님 관련 문헌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존하는 경내의 3층석탑이 고려후기의 양식을 나타내고 있어 창건 연대를 최소한 고려부터 시작할 수 있다.

길은 어느덧 산문에 가까워진다. 남은 길보다 지나온 길이 더 많아졌다. 남은 길보다 지나온 길이 많아진다는 것은 뒤돌아 볼 것이 생겼다는 뜻이다. 뒤돌아 볼 것이 많아진다는 것, 그것은 그리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일 것이다.

연주대에 서다

가을꽃처럼 보였던 관악산 봉우리가 눈앞에 다가온다. 마침내 연주암이다. 마지막 돌계단을 오르면 바로 마당이다.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팽팽했던 몸과 마음이 꽃잎처럼 흩날린다. 백구나 황구는 보이지 않는다. 삼층석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4호)이 중심을 잡은 도량엔 스님의 기도소리가 들려온다. 산 정상에 열어놓은 아담한 도량은 단정하고 한가롭다.

연주암은 의상대사가 관악사로 창건한 이후 고려 말까지 거의 폐사되다시피 했다.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가 의상대와 관악사를 중수하고 조선왕조의 번창을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다. 연주대는 이성계가 무학대사의 뜻을 따라 의상대 자리에 석축을 쌓고 마련한 암자다. 연주암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다. 1868년(고종 5) 중수 때에는 명성왕후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1918년에는 경산 스님의 불사가 있었고 1928년에는 재운 스님, 1936년에는 교훈 스님의 불사가 있었다.

연주암의 백미 연주대로 간다. 연주대로 가는 길에는 효령대군의 영정을 모신 효령각이 있다. 전설 속의 양녕과 효령 이야기는 정사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효령이 불교에 마음을 쓴 것은 사실이다. 그는 배불의 조선 속에서 수륙재를 열고 회암사의 중수를 이끌고 흥천사 탑전을 보수하는 등 유학자들의 온갖 비난을 무릎 쓰고 배불에 동참하지 않았다. 연주암 삼층석탑을 조성했으며 원각사 조성도감도제조를 맡기도 했던 그는 1465년에 〈반야심경〉을 언해했으며 주로 사찰에서 칩거하며 수행했다. 배불과 억불로 나라를 이끌려 했던 조선은 끝내 불교를 버릴 수 없었다. 아니 불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니 불교는 사라질 수 없었다. 효령이 아니더라도 그 예는 조선사 전반에 걸쳐 꾸준히 있어왔다.

연주암 큰마당에서 약 400M를 올라가면 연주대다. 연주대 법당으로 들기 위해서는 바위틈으로 난 좁은 길을 통과해야 한다. 스님의 독경소리가 벼랑 끝에서 들려온다. 3평도 안 되는 응진전에는 스님과 불자들이 기도를 올리고 있다. 스님의 독경소리를 들으며 응진전 앞에 선다. 산 아래가 한 눈에 들어온다. 연주암도 한 눈에 들어온다. 한 눈에 들어온 세상은 왠지 다른 세상처럼 보인다. 아마도 전설로 남은 그들의 이야기 때문인 듯하다. 그 옛날 고려의 신하들과 조선의 왕자들은 이곳에서 그리움을 바라보았고 그 그리움과 작별했다. 그리움을 향해 달려가고 싶어도 달려갈 수 없는 나한의 품을 짓고 그 애틋한 시절을 끊어냈다. 그들은 이곳에서 그 그리움의 세상을 잘라냈다.

많은 산새들이 응진전 앞을 드나든다. 그 날도 새들은 날고 바람은 불었을 일이다. 그들이 들었던 산새 소리와 그들이 맞았던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리움, 그 필수불가결의 단어에 마음을 던진다. 중생의 삶에서 필수불가결인 그리움, 그것은 끊어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간직해야 할 것인가. 스님의 기도염불 소리가 산 아래로 내려간다.

연주암 가는 길

길은 많다. 방법은 하나다. 걸어서 가야 한다. 대표적인 코스는 과천 쪽에서 오르는 길과 서울대 쪽에서 오르는 길 두 가지다. 과천 쪽은 과천역 7번 출구에서 시작한다. 과천향교 쪽으로 이동해서 등산로를 이용한다. 서울대 쪽은 서울대입구역에서 내려서 버스로 서울대 공대로 이동해 등산로를 이용한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빠옥엔 스님·수행자 병원이 있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⑱ 빠옥 총림에서 생활 〈8〉


빠옥총림은 수요일과 일요일에 진료소가 개원한다. 모두 자원봉사로 이뤄진다.

수·일요일 정오 진료소 개원
서양·미얀마 의학 모두 다뤄
왕진 의사·약제사들 자원봉사

공양청서 스님 탁발공양 확인
정인들 이마에 발우 대고 건네
공양물, 신도들 보시로 이뤄져


공양청에서 정인들이 스님들의 발우를 받들어 이마에 대는 의식을 하고 있다.

간밤은 혼자 잤다. 2인1실의 방사에서 스페인 요기가 떠났기 때문이다. 밤 9시 좌선을 마치고 방에 돌아와 한 밤중까지 〈청정도론〉과 사무색정에 대해 다시 살펴보았다. 늦게까지 전등을 켜 놓아도 상관없다.

〈청정도론〉은 마하시 선원에 있을 때 인도에서 같이 공부했던 옷따라 스님이 자신이 영역하여 영국에서 수행자들을 지도한다며 주었다. 사무색정 모두에 편(遍, Kasiṇa)과 상(相, nimitta)이 쓰인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것이 실제 수행에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고하면서 잠들었다.

선정과 위빠사나에서 이 두 용어는 중요한 전문용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이 용어에 대한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늘 자신의 공부 상태를 경론으로 대조하는 점검이 필요하다. 이 곳 수행처에서는 도과 또는 과위를 인터뷰를 통해 요기들 각자가 알 수 있게도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경론을 근거하여 말해 준다는 점이 마음에 든다. 경론의 위차 또는 계위를 모르면 불도(佛道)에 있어 자신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도,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늦게 잠들었지만 의식이 명료하다. 기상 시간인 3시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났다. 정신이 생생하게 깨어있음을 느낀다. 간단히 세수하고 선방에 올라갔으나 바로 내 좌복을 보는 순간 후회하였다. 간밤에 좌선 모기장을 열어두고 내려온 것이다. 열어 접어 둔 모기장 안으로 모기나 벌레들이 들어와 내 방석에 서식하게 된 것 같다. 빈대인지 벼룩인지 2시간 넘게 좌선하는 내내 벌레에 물리고 간지러워 집중을 하지 못했다. 왜 이곳의 모든 요기들이 낮에도 밤에도 모기장을 열어두지 않은 지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오늘이 빠옥선원에 도착한지 8일째(2012년 1월 29일)이다. 처음 이곳에 도착하였을 때도 이런 저런 벌레에 물려 온 몸이 붉게 부어 처참한 몰골이었다. 마침 종무소에 온 한국 비구니 스님이 이를 보고 놀라워했던 기억이 난다. 생각해보니 마하시 선원에서도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아 똑같은 일을 겪었다. 당시에는 이를 안타깝게 여긴 한국 비구니 스님이 나더러 사용하라고 우리나라 물파스와 모기 퇴치약을 보시해주었다. 선원 입실 시에 두 번의 똑같은 경험에 일종의 신고식 같다는 생각을 했다.

확실히 숲속 계곡의 빠옥선원은 대도시에 위치한 양곤의 마하시 선원보다 기온이 낮다. 빨래를 널어보면 흰 수건의 경우 양곤은 한나절도 되지 않아 말라버리는데 이곳은 이틀이 되어도 완전히 마르지 않는 것에서 알 수 있다.

3~4일 전부터 체온이 낮아서인지 감기기운처럼 계속 헛기침이 나온다. 처음에는 미열도 느꼈으나 지금은 기침만 간헐적으로 나온다. 내가 좌선하는 선방도 1층 입구 쪽이라 아마 출입 시 찬 바람을 계속 맞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를 제대로 의식하지 못하고 이제야 알아차리고 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하루 분 기침약과 감기약도 다 먹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전 12시에 양의와 이곳 미얀마 의료진(우리의 한방 같은)이 와서 진료와 약 처방을 한다고 한다. 기침약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다. 밤에 잘 때도 총림의 담요도 너무 얇다. 이곳은 7~8월 여름방학이나 여름에 오면 나로서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본다. 숲속의 며칠은 따뜻한 아니 강렬한 햇볕이 새삼 그리워지게 한다.

공양청의 아침은 옥수수와 연잎 쌈밥 등이 나왔다. 국수와 쌀죽 그리고 옥수수만 받고 다른 음식은 그대로 반납하였다. 점심 공양 전에 한국의 젊은 요기가 왔다. 깡마른 모습과 차분한 몸가짐이 공부하는 사람 같다. 양곤의 쉐오민 수행처에서 왔다한다. 내가 전번에 그랬던 것처럼 점심 공양 때 좀 일찍 가서 식판을 받게 하였다.

공양청에 안내해 준 덕분에 스님들의 탁발공양 모습을 시작부터 볼 수 있게 되었다. 즉 스님들이 공양청에 입장하면 초입에 깝삐야(Kappiya)가 기다리고 있다가 스님들의 발우를 받들어 이마에 대고 난 뒤 발우를 다시 스님께 전해주는 의식을 치룬다. 깝삐야는 출가 스님을 특별히 돕는 재가신도를 말한다. 한역은 정인(淨人)인데 미얀마에서는 초기경전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시작으로 차례차례 줄을 맞추어 재가자들로부터 배식을 받는다. 이를 '사내탁발(寺內托鉢)'이라 한다. 탁발이라고 하지만 마을에서 거리가 있는 숲 속에 위치해 있어 시주자들이 음식을 사찰로 준비해 오는 것이다. 아니면 공양청에서 시주자의 식재료나 비용으로 준비한다. 오늘 공양을 올리는 사람은 근처에 사는 중국계 미얀마 신도로 가족들이 모두 와서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스님들의 공양에 예를 올리고 있었다.

이곳 총림에는 일요일과 수요일 12시에 의사가 왕진을 온다는 공지문을 보고 어떻게 진료하는지 보고 싶었다. 사실 5~6일 전부터 미열에 마른기침이 잦았다. 외국인 담당 스님을 찾아가서 어디로 가면 되냐고 물으니 왕진 장소를 가르쳐줬다. 가보니 플라스틱 의자에 많은 스님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다.

나 또한 의자를 빼서 기다리려하니, 한 스님이 먼저 진료 등록부터 하고 오라고 말했다. 이름과 나라이름, 방 번호를 기록하고 와서 일부러 햇빛이 비치는 쪽에 의자를 두고 앉아 기다리다가 바로 잠들었다. 잠시 후 깨어보니 몇 분의 스님만 남아있고, 마지막의 내 차례가 됐다. 아마 검진 받으러 온 재가자는 나 혼자 뿐인가 보다. 젊은 의사에게 마른기침과 약간의 미열을 이야기하니 옆구리에 체온계를 대 보고 다시 맥박을 잰다. 그렇지만 크게 이상은 없다고 한다. 의사에게 여기 와서 진료 보는 경비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 자원봉사라고 답했다.

진료실 한켠에서는 한 스님이 빠른 손놀림으로 약을 조제하고 있다. 나중에 알고보니 약을 조제하는 스님은 출가 전 30년 이상 정부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내 처방전에 따른 약은 5일분으로 복용법까지 충실해 적어주었다. 한국에서 가지고 온 약이 잘 듣지 않아 현지의 약을 먹어보려하는데, 인도의 경험으로 현지약이 훨씬 효과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나오면서 한국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니 이곳 약이 한국보다 독해 증상이 호전되면 계속 복용하지 말고 바로 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해준다. 오면서 의사에 처방 받으러 오는 스님들은 주로 어떤 의료적 문제인지를 의사에게 물어본다는 것을 깜박했음을 알았다. 아무튼 일개 선원에 일주일에 두 번이나 의료진이 내왕하여 수행자들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것이 놀랍다. 앞선 양곤에서 한국 스님이 감기몸살에 힘들어 병원을 같이 갔는데 진료와 약처방에 약 8000ks로 우리나라보다 비싼 편이었다.

갑자기 비구계 수계 시 질병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가 생각난다. 부처님 당시에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우 병이 나으면 환속해 버려 이를 막기위해 질병 여부를 심의했던 것이다.

약을 받고 처소로 내려오다 길에서 대학에서 내 강의를 들었던 한국 대승 스님을 만났다. 이곳에서는 같은 한국 스님이라 하더라도 회색의 대승 스님과 밤색의 테라와다 스님을 구분해 부른다. 나는 만나는 대로 양측을 번갈아 오가는데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로 소통하지 않는다. 내 방에 와서 스님과 차를 마시며 사마타와 위빠사나 수행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스님은 나에게 현재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다. 마하시와 달리 이전에 했던 방법과 여기서 제시해 준 방법에 따라 호흡의 감촉 지점만을 중심으로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다시 마하시와 빠옥의 차이에 대해 물었다. 그래서 빠옥의 사마타적 호흡법과 마하시에서 말하는 위빠사나적인 호흡법의 차이를 나름 설명해 보았다. 더 나아가 집중의 문제에 있어 일반인의 집중과 사마타 수행자 그리고 위빠사나 수행자의 집중의 의미가 어떻게 다른가도 심리학적 실험결과에 바탕한 이야기도 제시해 보았다.

여기 빠옥총림에서 말하는 한 점의 집중과 다른 것에 대한 무시(ignor)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그리고 왜 집중이 진리인식에서 또는 삶의 질적 전환에서 중요한지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사마타의 어원적 분석과 관련하여 samadhi, serenity 그리고 tranquility로 번역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에 스님은 상당히 공감을 느꼈다. 다시 말해 사마타는 앞의 3개의 단어가 갖는 모든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사마타를 기존의 어떠한 입장과 다른 이해의 계기를 갖게 되었다. 스님은 오래 이곳에 머물며 수행을 하시어 수행 이론과 실제 수행에 상당한 깊이를 가지신 것 같다. 스님의 여러 말씀 가운데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은 수행자들 가운데는 이론을 익혀 마치 자신의 경계나 경지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다시 점검해본다.

선방에서 나오면서 오스트레일리아 수행자를 만났다. 미소를 지으며 예불문을 다 외웠냐고 묻는다. 그는 전번에 나에게 아침저녁 예불문 등을 담은 책자를 구해 주었다. 아직 다 못 외우고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따라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다 외웠느냐 물으니 대답대신 그냥 미소 짓는다. 삭발한 머리에 흰머리가 많은 것이 60세는 넘었을 것인데 젊게 느껴진다.

마침 오스트레일리아에 수행처를 건립한 영국 출신의 아잔 브람(Ajan Brahmavamsa) 스님을 아느냐 물으니 안다고 했다. 다시 가봤는지 물으니 자신이 사는 곳에서 4시간 이상 걸려 아직 가보지는 못했다고 했다. 서구의 수행자는 다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유명하냐"고 물었다.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행 지도 스님이며, 30~40명의 핵심 제자와 태국 전통의 위빠사나를 지도하고 있다는 등을 친절히 설명했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20년 경험 성지순례자의 도반
YESGOOD.CO.LTD
마하연 여행사
문의 02-365-7747
전화 www. mahayeon.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 933호



천불천탑 미소의 나라
미얀마





8대 성지순례
인도 11일
사르나트-보드가야
-라즈기르-바이샬리
-쿠시나가르-룸비니
-쉬라바스티-상카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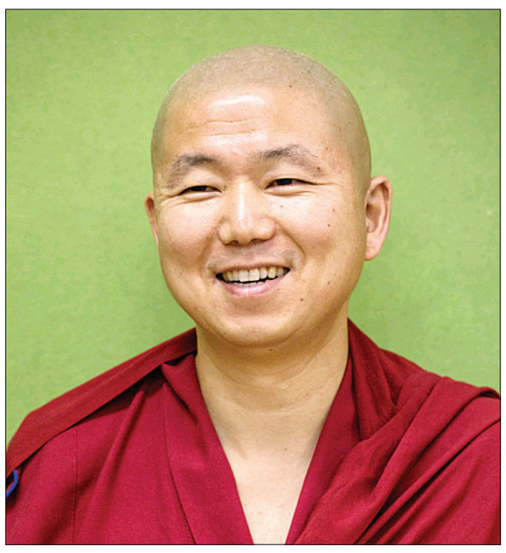


남방불교의 핵심
스리랑카
콜롬보-아누라다푸라
-미힌탈레-담불라-시기리야
-플론나루와-담불라-캔디
-콜롬보



4대 성지
중국
아미산 오대산
구화산 보타산

진정한 마음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용수 스님의 코끼리

용수 지음/스토리닷 펴냄/1만 3500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매일 아침 8시 30분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설 무렵이면 어김없이 개인 SNS에 장문의 글이 한글과 영어로 전달된다. 용수 스님〈사진 위〉의 아침 명상 편지글이다. 10년 넘게 지속중인 이 조그만 선물로 나의 하루 아침 일과가 시작된다. 글이 도착하자마자 바로 읽기도 하지만, 바쁜 날이면 오후까지 읽기를 미룬다. 그래도 꼭 읽는다. 수년간 해온 일과중 하나라 습관이 되서다. 좋은 습관이다. 용수 스님 덕분에 잠시나마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용수 스님이 아니었더라면, 바쁜 일과중에 내 자신과 만나는 시간 할애가 어려울때가 많았을 것 같다. 매일 오는 글을 빠트리지 않고 고박꼬박 챙겨 읽기도 어려운데, 매일 거르지 않고 쓰는 용수 스님은 얼마나 힘들까도 가끔씩 생각한다. 사석에서 만난 용수 스님은 언젠가 자신의 글의 원천은 바로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잔에 있다고 밝힌적이 있다.

글감의 소재가 모두 우리 중생들이 한번쯤 고민하고 생각해본 것들이라 익숙하고 공감이 크다. 짧고 잠언적 형식이어서 한번에 모두 읽기 보다는, 삶의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사전식으로 가끔씩 꺼내보면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듯하다.

용수 스님은 스스로를 인간 되는 중, 착해지는 중, 그리고 스님 되는 중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중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히 여긴다. 더불어 티베트 불교 명상은 친절하고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수행법이라고 소개한다.

티베트 불교를 알리기 위해 꾸준히 책을 펴내는 그는 〈안 되겠다, 내 마음 좀 들여다봐야겠다〉에서는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습관이 됐는지 풀어냈다면 〈용수 스님의 곰〉 〈용수 스님의 코끼리〉는 10년 넘게 매일 아침 SNS에 올린 티베트 불교 명상에 관한 내용 중 많은 이들한테 사랑받은 주제들을 골라 책으로 묶었다.

"마음공부 과정서 미친 원숭이가 착한 코끼리가 된다고 합니다. 착한 코끼리는 힘이 있으면서 매우 유용합니다. 불교에서는 코끼리가 마음을 상징합니다."

〈용수 스님의 곰〉을 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일깨우는 친절한 명상'을 전한 용수 스님이 그 후 1년만에 〈용수 스님의 코끼리〉라는 제목으로 '본래 나로 사는 지혜'를 이야기한다. 이번 책에는 우리가 살면서 한번쯤 고민하거나 부딪혀 봤을 삶의 문제들과 주제들이 티베트 불교 명상과 함께 소개돼 있다. 또한 부록으로는 유튜브에 있는 용수 스님의 법문과 명상법을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접할 수 있게 했다.

용수 스님은 책 말미 나오는 말을 통해 "저는 열등감이 심하고 사는 게 고달파서 무감각하게 살았어요. 제대로 하는 거 없이 인생 낙오자의 길을 가는 도중에 운명을 바꾼 그 날을 만났습니다. 서른 살에 우연히 달라이 라마님의 대중 강연을 들었는데, 이야기가 놀라우면서 신선했어요."라면서 인생서 불교를 만난 이야기와 그간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에 대해 솔직하고 과감없이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책속에서 자신을 인생의 낙오자로 표현하며, 마음의 승리자가 되는 과정서 얻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담았다고 고백했다.

본인이 이 세상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혹여 있다면, 이 책 속에서 마음만이라도 승리하는 비결을 많이 얻길 기대한다. 그런 솔루션들이 가득 담긴 책이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놓는다는 게 물건에 집착 않고 사람에게는 자유를 주고 상황을 구체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과 선한 마음을 기르세요. 수행은 불행의 심리를 내려놓고 행복의 심리를 기르는 것입니다. 지금의 불평불만 고통이 우리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족, 감사, 기쁨, 행복도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려놓는 게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알아차림은 힘입니다.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알아낼 필요 없어요. 해결할 필요 없어요. 정말요! 내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한 명상은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입니다.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마음이 비추는 것일 뿐인데 바깥에 영원히 딱딱하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생각과 감정에 엉켜서 헤매고 고통을 받습니다.

-누구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도 되지 마세요. 누구 되려고 하는 것이 힘들어요. 될 수도 없어요. 허망한 바람을 버리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점차 알게 돼요. 너무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요.

못하고 있는 자신이 싫어요. 별 개념 없이 그냥 사세요. 그냥 살고 있는 자신이 뿌듯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요.

"인문학은 자기 성찰학"



동화가 있는 서재

이일야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 4천원

오랫동안 철학 연구에 매진한 저자는 동화가 힘을 갖는 이유는 바로 아이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비록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 물리적인 힘은 약할지 몰라도 어른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솔직함과 당당함의 에너지를 지니고, 동화를 통해 발산한다. 지금 자본과 권력, 물질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다면, 이런 삶을 청산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솔직함과 당당함을 회복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동화의 이야기와 숨겨진 뜻을 찾아 인문학적으로 풀어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동화로 인생 깨달은 철학자의 30가지 이야기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된 인문학을 올바르게 배우고 깨우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그래서 저자는 "인문학은 자기 성찰학"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동화란 무엇인가? 이 책은 아이들의 눈과 마음으로 쓰인 동화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비유한다. 기원전에 쓰였다고 알려진 이솝의 우화나 몇천 년에서 몇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전래 동화 역시 대부분 교훈을 담고 있거나 그 사회의 시대상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 계속 녹아 있는 이유를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이제는 동화가 가진 힘에 집중해 볼 때다.

인생이 허무할 때, 동화 마주해
30가지 동화로 푼 내면 성찰서

어릴 적 읽은 동화는 그저 해피엔딩에 불과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가 어른의 삶을 비춘다 〈백설 공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흥부와 놀부〉 등 우리에게 익숙한 동화는 '모두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로 끝맺는다. 하지만 우리가 알던 결말이 과연 맞는 것일까? 권선징악과 해피엔딩이라는 흔한 결말과 교훈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통찰하고, 사회상에 맞대어 분석한다. 이 책은 〈선녀와 나무꾼〉을 통해 남편과의 삶도 좋지만 평생 그리워했던 하늘 나라를 택한 선녀의 자유, 부인에게 날개옷을 내어준 나무꾼의 양심을 생각한다. 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간의 욕구 탐욕으로 망가져가는 생태 환경을 짚어본다.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에서는 호랑이라는 권력과 할머니를 구한 연대의 힘에 대해 설명한다. 이처럼 저자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지혜, 사회에 대한 색다른 시선으로 동화 인문학을 써내려 갔다.

인생을 살면서 자본과 권력, 물질이 시키는 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가? 그렇다면 가을날 이 책을 통해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 것을 권한다. **김주일 기자**

▲저자 **이일야**는?

본명은 이창구이며, 일야(一也)는 필명이다. 전북대 철학과서 학부와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전북대, 전주교육대서 철학과 종교학, 동양사상 등을 강의했다. 보조사상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전북불교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 제13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을 수상한 〈아홉 개의 산문이 열리다〉 〈안다는 것, 산다는 것〉 〈불교란 무엇인가 불교란 무엇이 아닌가〉 〈불교학의 해석과 실천〉(공저)이 있고, 〈Hegel의 중국관에 대한 비판적 고찰〉 〈나옹선의 실천체계〉 〈진심과 오수의 구조〉 〈조선 중기 보조선의 영향〉 등을 비롯한 다수의 논문이 있다.

구마라집 역 금강경의 온전한 이해!

금강경 요해



각 분마다 그 대의와 맥락을 설명하고,
원문 문장 및 개념에 대해 상세하고 쉽게 풀이하며,
각 분의 마무리에서는 선적 일화를 제시하였다.
부록으로 과거칠불 및 삼십삼조사의 게송과 독송용 금강경 수록!

백납 노우 지음/신국판/336쪽/값 15,000원



중국 선종의 중흥조, 마조 선사의 가르침!

마조어록 역주

각종 선종 사서에서 마조선사 및 그 제자들과 관련된 기연어구를 뽑아냄으로써, 중국 선종사에서의 선사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록을 총망라하였다. 원문은 물론이고, 철저하고 꼼꼼한 번역과 주요 한자어에 대한 풀이, 그리고 원문에 버금갈 정도의 방대하고 상세한 주석이 돋보인다.

마조도일 지음/강승욱 역주/신국판 양장/592쪽/값 28,000원



불면증, 즉각 벗어날 수 있다

절망에서 길어 올린, 불면증의 실체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

생각 하나로 불면증이 사라진다!

"갑자기 잠이 달라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약들 다 버렸습니다." (-치유 후기 중에서)

김명주 지음/신국판/304쪽/값 15,000원/자유문고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추사가 '금강경'을 썼다면…

동천 엄기철 제3회 서예 개인전
'나를 찾아가는 동행, 금강경 특별전'
10월 16~22일 서울 한국미술관



엄기철 作, '금강반야바라밀경' 72x143cm.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다양한 서체와 형태의 '금강경' 서예 전시가 열린다. 서예가 동천 엄기철은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개인전 '나를 찾아가는 동행, 금강경 특별전' 을 개최한다.

엄 작가의 이번 전시는 2013년 서울미술관 기획초대전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열린 '법정 스님의 향기로운 글 서화전' 에 이은 세 번째 개인전으로, 〈금강경〉을 주제로 한 작품 23점을 비롯해 게송, 경구 등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총길이가 11M에 이르는 12폭 추사체 〈금강경〉 한문 작품을 비롯하여, 19M에 이르는 '한글로 풀어쓴 금강반야바라밀경' 판본체 작품 등의 대작과 더불어 작은 종이에 극세필로 쓴 깨알 같은 글씨의 〈금강경〉까지 다양한 형태의 〈금강경〉을 선보인다.

19M 대작에서 극세필까지 다양
신행과 수행이 된 '금강경' 쓰기

"처음에는 나 자신을 위해 가볍게 시작한 작업이 수행이라는 경건한 자세로 이어지고, 그런 결과 다양한 형식의 〈금강경〉을 쓰게 됐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도 〈금강경〉의 깊은 뜻을 일 만분의 일도 깨닫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한 작품을 쓰고 나면 또 새로운 서체와 형태의 〈금강경〉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쓰고 또 쓰면서 〈금강경〉의 깊은 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금강경〉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예는 이제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신행이고 수행이 되었습니다."

엄 작가는 부처님 말씀을 따르면서도 적극적인 신행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의 일상을 되돌아보게 됐다. 흐트러진 자신을 바로보고자 2012년부터 〈금강경〉을 쓰기 시작했다. 〈금강경〉을 쓰면서 부처님 말씀의 가치와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됐고, 〈금강경〉을 쓰는 순간은 단순히 글씨를 쓰는 시간을 넘어서는 신행과 수행의 시간이 되었다. 신행과 수행이 쌓이면서 엄 작가는 서예가로서 좀 더 많은 대중에게 〈금강경〉을 알려야겠다는 원력이 자라기 시작했다. 엄 작가는 다양한 서체와 형태로 〈금강경〉을 쓰기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금강경〉을 위한 전시를 기획하고 〈금강경〉 작품에 매진했다.

문예평론가 권상호는 "그의 붓길은 공(空)과 무아(無我)를 깨달아가는 수행의 길이다. 그의 연서(練書)는 부드러운 필검(筆劍)으로 금강처럼 견실한 획을 빚어내며 부처님의 변함없는 지혜를 캐나가는 구도의 과정이다"고 말한다. 엄 작가는 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선문한 내용을 두고두고 음미한다고 한다. 그리고 〈금강경〉을 쓸 때는 한 번 사용한 붓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 붓에도 영혼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엄 작가는 때때로 붓을 스스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하고, 종이 위의 괘선도 한 치의 오차 없이 일일이 붓으로 그린다. 문장에도 생명이 있다고 믿는 그는 특히 경문(금강경)을 쓸 때는 일필이 끝날 때까지 식음을 거르기도 한다.

그의 작업실은 실험실이며, 때로는 선방이며 때로는 법당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空)과 무아(無我)의 의미를 깨달아 가는 수행의 과정이다. 이번 전시는 다양한 형태의 〈금강경〉을 서예로 만날 수 있어 서예계는 물론 불자들에게도 유익한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 작가는 부친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붓을 잡았고, 붓이 커지면서부터는 줄곧 추사의 글씨를 따르고 있다. 이번 전시의 〈금강경〉은 추사의 글씨로 보는 〈금강경〉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엄 작가는 추사선생추모 전국휘호대회에서 장원(壯元), 초대작가로서 운영위원과 심사위원을 거쳐, 현재 (사)한국추사체연구회 부회장(副會長)을 맡고 있다. (02)720-1161

비상하는 거사들의 음성공양

선불남성합창단 제11회 정기연주회
10월 26일 오후 5시 나루아트센터



선불남성합창단은 지난 2003년 서울 조계사 어린이합창단 단원의 아버지들이 참여한 '거사 찬불가 교실' 이 모태가 되어 2007년 4월 창단한 남성합창단이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우리만의 날갯짓으로 더 높게 날아오르고 싶습니다. 감동이 강물처럼 흐르도록 그런 무대를 펼쳐 보이고 싶습니다."

선불남성합창단(단장 박주왕)은 10월 26일 오후 5시 서울 광진구 나루아트센터에서 제11회 정기연주회(지휘 민선희)를 개최한다.

'비상(飛翔)' 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찬불가, 가곡, 가요 3부로 펼쳐진다.

△1부는 찬불가다. 기존 찬불가를 남성 4성부로 편곡하여 연주함으로써 기존 불교합창계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다.

△2부 가곡에서는 3월 KBS국악관현악단 제250회 정기연주회 '역사 콘서트 기록-백년의 봄' 에서 공연했던 별, 하나 된 대한민국을 국악음악그룹 놀이터와 협연한다.

△3부 가요에서는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가요 명곡들을 선보이며 깊어가는 가을을 관객들과 함께 한다.

1부와 2부 사이에는 KBS국악대상 연주팀부분 수상에 빛나는 음악그룹 '놀이터' 의 초청공연이 있고, 2부와 3부 사이에는 BBS 국악대상 연주팀 부문 수상에 빛나는 음악그룹 '놀이터' 의 초청공연이 있고, 2부와 3부 사이에는 BBS불교방송합창단이 찬조 출연한다.

3부 공연 이후 앵콜무대에서는 익살스럽고 코믹한 트로트메들리와 BTS의 K-Pop 등을 선불남성합창

찬불가 · 가곡 · 가요 망라
'4성부 편곡' 첫 시도
BTS K-POP 선보여

단의 새로운 음성으로 선보인다.

선불남성합창단은 지난 2003년 서울 조계사 어린이합창단 단원의 아버지들이 참여한 '거사 찬불가 교실' 이 모태가 되어 2007년 4월 창단한 남성합창단이다. 2009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군장병 위문공연과 크고 작은 사찰의 음성공양을 해왔다. 2007년 10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국가브랜드 공연 '네 줄기 강물이 바다로 흐르네' 에 출연했으며, KBS국악관현악단, 아시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서울시 오케스트라,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경기도립국악단 등고의 협연을 통해 불교계 안팎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지난 3월에는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KBS 국악관현악단 제25회 정기연주회 '역사콘서트-백년의 봄' 에 출연했으며, 4월에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KBS 봄꽃음악회' 의 '봄, 국악을 더하다' 에서 KBS국악관현악단과 협연했다.

현재 30명의 단원이 활동하고 있는 선불교남성합창단은 테너, 테너 2, 바리톤, 베이스 영역으로 나눠진 합창단은 대학교수, 공무원,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02)2049-4700 박재완 기자

'창령사 터 오백나한,~'展 부산 전시

11월~2020년 2월 부산시립박물관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1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부산시립박물관 기증전시실에서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을 개최한다.

국립춘천박물관은 9월 26일 부산시와 전시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특별전으로 개최된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을 이어간다. 희노애락의 다양한 표정을 머금고 있는 나한상들은 지난 전시에서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시민들과 만나게 됐다. 전시기간 중에는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부산을 찾는 내외국인 및 국빈들도 오백나한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태 국립춘천박물관장은 "강원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거듭난 창령사 터 오백나한의 부산 전시는 고려시대 강원 불교조각품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강원 문화의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033)260-1500

박재완 기자



바위뒤에 앉은 나한.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 친환경적
- 단열효과 탁월
- 구조변경 용이
- 시공비 대폭절감
- 습기에 강함
- 내구성 우수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 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 (구,대진기업)
010-2628-9944

‘性別空性’ 새 선사 모델 보여준 대행선사

박소진 교수, 한마음과학원 제4회 학술대회서 주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 주인공 관법’ 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썼던 대행 선사(1927~2012)가 보인 행보와 법문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다.

박소진 신한대 교양교육원 교수는 9월 2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서 열린 한마음과학원 제4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대행 선사의 젠더적/젠더초월적 특성과 젠더 관련 법문’ 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불교여성학의 선행 연구를 분석한 박 교수는 안옥선의 ‘성별공성(性別空性)’ 논의를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안옥선은 ‘성별공성’ 을 트랜스젠더리즘과 비교하고 성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는 성관념의 허구를 드러냈다. 즉, 불교의 ‘성별공성’ 은 “이분법에 기초한 성정체성과 성별규범에서부터 좀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대행 선사는 ‘여성’ 이자 ‘비구니’ 로서의 외부 인식에 대해 젠더적이면서 젠더초월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주목했다. 이는 ‘성별공성’ 과도 연결된다.

이에 박 교수는 “외부인들은 대행 선사에게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되는 젠더적 특성을 부여하지만 선사는 젠더이분법적 틀의 어느 한쪽으로만 인식될 수 없다. 선사는 이를 뛰어넘는 젠더초월적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행 선사의 젠더/젠더초월적 특성은 불교의 ‘성별공성’ 개념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행 선사의 젠더 관련 법문을 분석한 박 교수는 선사가 젠더이분법적 인식을 부정했음을 조명했다. 그에 따르면 ‘여성불성불론’, ‘변성성불론’ 에 근거한 질문과 언설에 대해 대행 선사는 깨달음에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그러한 상(像)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비구와 비구니 사이의 차별적 위계 관계에 대해서 부처님 당시 인도의 상황 속에서 이뤄진 ‘시대적 방편’ 이었고 시대가 변하면 방편도 변해야 한다고도 설했다.

또한, 대행 선사는 여성, 비구니를 산하대지로 남성, 비구를 태양이나 하늘에 비유하면서 불이법에 근거한 남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에 박 교수는 “대행 선사를 여성이나 비구니라는 젠더이분법의 틀로 인식하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남녀 성품’ 의 평등을 강조한다”면서 “대행 선사의 비유는 젠더이분법으로 읽힐 수 있으나 법문의 핵심은 남녀가 둘이 아니게 이상적이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평등을 강조한다. 이는 여성학의 평등관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제고할 수 있는 사상적 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대행 선사가 보여준 ‘젠더/젠더초월적’ 특성은 새로운 선사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주장이다.



한마음과학원은 9월 28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서 제4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주제 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의 모습.

여성학적 관점으로 대행 선사 조명

“깨달으면 여자 · 남자 아니다” 강조

선사 보인 ‘젠더/젠더초월’적 특성

대승경전서 확인된 ‘성별공성’ 연결

비구 · 비구니 아우른 공동체 형성도

대행 사상 인접학문 접목 연구 발표

선원 사부대중 1000명 참석 ‘성황’

박 교수는 “독자적으로 깊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대중교화에 힘쓴 대행 선사는 비구 중심의 가부장적 계보 속의 선사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대행 선사가 보여주는 젠더/젠더초월적 특성은 새로운 선사의 모델”이라며 “비구-비구니의 엄격한 분리 전통을 넘어서 비구 · 비구니를 아우르는 독특한 수행공동체를 형성한 점도 새로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행 선사의 사상 · 가르침과 종교학 · 심리학 · 자연과학 · 교육학 등을 접목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비교종교학자 만프레드 후터(Manfred Hutter) 독일 본 대학 교수는 ‘물질 세계와 현대사회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서 받은 영감과 고찰’ 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분석했다. 특히 종교적 갈등에 대해 후터 교수는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은 종교가 발전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례의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서강대 교수는 ‘대행선사의 삶과 저술에 축적돼 있는 심리학적 통찰’ 을 통해 “대행 선사의 깨달음 경험 과정은 돈오적인 측면보다는 점진적 유형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수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며 “향후 선사의 깨달음 경험 연구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점수적 통찰을 심층심리학 연구와 연결해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스 욕 에플레(Hans-Jorg Epple) 독일 베를린 샤리테 대학병원 의학박사는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자연과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상과 의학’ 을 통해 대행 선사가 강조한 ‘업(業)정보의 변환’ 을 심성의학에 연결 · 고찰했다.

‘인류학, 인류세 이상한 친족 만들기, 크툴루세 - 대행선사의 법문과의 연관성 탐구’ 를 발표한 마르시 미들브룩스(Marcie Middlebrooks) 타이완 국립 중산대학 교수는 인류학 개념인 ‘인류세’ 를 소개하고 이를 대행 선사의 법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살폈다. 안정현 등 8명은 학교교육을 위한 주인공 관법 교수학습모형을 개발 · 제안하는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또한 동국대에서 올해 하반기 박사학위를 받은 혜교 스님은 자신의 논문을 축약해 ‘오공의 한마음’ 이라는 제하의 발표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재)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주지 혜솔 스님을 비롯해 전국 · 해외 지원장 스님,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장, 권탄준 대행선연구원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회에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선사께서 과학원을 설립한 뜻은 불신을 잠재우고 마음공부에 믿음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짐작해 본다”면서 “선사께서 내려준 법문의 진수가 과학원 회원들의 마음 속에 녹아져 자양분이 되고 나무가 돼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 열매가 다양한 꽃으로 만개하는 시절이 도래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화천 계성리사지서 최초 육각형 금당지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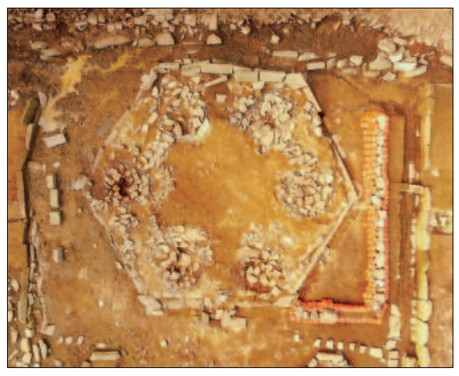
화천군 · 강원고고硏 발굴 결과
北 금강산 정양사와 유사 구도

일반적으로 사찰의 중심이 되는 대웅전(금당)은 정방형을 모양을 한다. 하지만 육각형 금당지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발굴 결과 확인됐다. 특히 육각형 금당은 국내에서는 최초로 확인되는 것이어서 학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화천군(군수 최문순)과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원장 지현병)은 10월 1일 발굴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화천 추정 계성리사지 유적 발굴조사에서 국내 최초로 육각형 모양의 건물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조사는 보물 제496호 화천 계성리 석등 정비사업의 하나로 시행됐으며, 중심 사역으로 확인된 구역에서는 정밀발굴조사가, 외곽 지역에는 시굴조사가 진행됐다.

조사의 최대 성과는 국내 절터에서 최초로 확인된 평면 육각형의 건물지의 발굴이다. 연구원 등에 따르면 고려 전기에 조성된 건물지는 가람배치 상으로 볼 때 본존불을 모신 금당으로 추정되는데, 육각형의 기단에 고맥이 초석(주춧돌)을 사용했다.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육각형 금당지. 화천 계성리사지 발굴조사 중 확인됐다.

기단 한 변의 길이는 약 5.4~5.7m, 적심의 지름은 약 1.8~2.2m이며, 면적은 기단을 기준으로 약 88.2㎡이다. 이후 조선 시대에 가서 평면 방형으로 재건되었는데, 정면 3칸, 옆면 3칸으로 면적은 약 132.7㎡이다.

건물지 중앙에는 평면 육각형의 쪼갠 돌(할석)이 깔려 있어 불상의 대좌가 놓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육각형 모양의 법당지는 현재 북한 금강산 정양사에서도 확인되며, 정양사의 육각형 법당지(현 약사전) 중앙에도 석조본존불이 배치돼 비교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제3호 건물지 내에서 확인된 궐수문(고사리 모양 무늬)이 조각된 타원형의 석조화덕시설은 그 동안 국내에서 확인된 고려 시대 화덕시설 중에는 가장 화려하고 격조 높은 시설로 고려 시대 차 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 특징적인 유구로 볼 수 있다.

계성사 창건은 고려 전기 문신 최사위(崔士威)의 묘지명에 계성사와 정양사의 창건에 각각 관여한 행적이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다.

계성사와 정양사 모두 육각형을 모형으로 해 법당 · 석탑 · 석등이 축조된 것을 감안하면 최사위가 두 사찰을 거의 같은 설계구도 속에서 대부분 건축물을 조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고고문화연구원은 “추정 계성리사지는 고려 전기에서 조선 후기까지 운영된 산지가람의 사찰로, 신라 말 고려 초의 일반적인 평지가람 배치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며 “조사 결과, 중심 사역은 남북축선을 기준으로 중문지, 석탑지, 동 · 서 석등지, 금당 추정 육각형 건물지가 위치하는 1탑 1금당의 가람배치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변 시굴조사를 통해 부속건물터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사세와 위상이 매우 컸던 사찰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면서 “사지가 북한 금강산의 정양사와 건축구조물에서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남북의 공동연구 주제로서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금산사 전해지는 점찰신앙 살핀다

조계종 제17교본사 금산사(주지 성우)의 점찰신앙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정토학회(회장 김광식)와 금산사는 10월 18일 금산사 보제루에서 ‘금산사와 점찰신앙’ 을 주제로 제23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점찰신앙 전반에 대한 연구 논문과 금산사에서 계승되는 점찰신앙에 대해 발표된다.

주요 논문으로는 △동국대 前 총장 보광 스님의 ‘금산사 점찰신앙의 재현 필요성’ △박미선 대림대 외래교수의 ‘점찰법회 유래와 〈점찰선악업보경〉 구성’ △김상영 중앙승가대 교수의 ‘금산사 점찰법회의 설행과 미륵신앙’ △이재수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의 ‘불교 점찰사상과 문화의 연관성’ △최현주 동국대 평생교육원 교수의 ‘불교 점찰사상의 보급을 위한 현대적 포교 프로그램’ △남원 영선사 주지 월공 스님의 ‘점찰법회 작법의 고증과 현대적 재현 방법’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GM since 2015 GMSOFT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

전통예술 | 자체제작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법고
법당천도법고
태 징
목 어
서 울
서울시 종로구 돈화문로 11길 12
02)3673-3442,764-2159
010-5264-3906
경기도
경기도 하남시 산곡북로 49-50
031)793-3906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www.yangjikukak.com



대안 스님의
24절기 사찰밥상
⑱ 추분(秋分)
더덕밥 · 가을아욱국 · 밤조림

기관지 도라지 위·장 밤 특효

점점 차가워지는 기온이 농작물을 거두는 손길을 바쁘게 한다. 수확의 기쁨도 좋지만 느닷없이 내리는 소낙비를 피하려면 널어두었던 작물이 마르기 무섭게 저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은 앞으로 점점 해가 짧아짐을 의미한다.

여름내 달궈진 지열 덕에 땅속에서 광물질의 합성에 의해 영양가 많은 토양으로 변해가는 시기다. 더덕이 굵어지고 도라지도 살이 찌는 시기, 또 마는 어떠한가. 더 깊숙이 뿌리를 키우고 있다.

돼지감자는 위로 아래로 기운을 나누느라 이파리가 푸르다 못해 검은빛을 내뿜는다. 울타리콩은 쉬지 않고 번갈아 콩을 채집하도록 허락하고 누렁퉁이 늙은 호박은 수확철이 다가옴을 암시하듯이 잎이 시들어간다. 찬바람에 나는 호박잎은 국거리로 반가운 식재료다. 고무장갑을 끼고 호박잎을 치대 여러 번 맑은 물에 헹군 뒤 된장과 들깨가루를 듬뿍 넣고 애호박을 수저로 떼어내어 함께 넣고 끓여내면 부드럽고 구수한 호박잎된장국이 완성된다.

어디 뿌리채소뿐이랴! 채전밭의 아욱은 줄기에 윤기를 내며 자라고 있다. 얼마나 귀한 음식이면 문걸어두고 먹는다고 했을까? 실지로 봄 아욱과 가을 아욱은 차이가 있다. 봄밭은 차가운 겨울을 지내느라 작물이 웃거름에 의해 자라고 가을밭은 웃거름을 하지 않아도 배추며 무며 각종 채소들이 실하게 자란다.

돼지감자는 캐서 바로 먹기보다 한 달 정도 숙성해서 겨우내 먹을 수 있는 저장음식이기도 하다. 미나리와 함께 고추장양념으로 초회를 만들기도 한다. 돼지감자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애칭을 얻은 식재료로 거듭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식재료를 접하다보니 자주 먹는 음식이 되지는 않는다.


더덕밥


가을아욱국


밤조림

이맘때 시작된 산행은 많은 즐거움을 얻게 된다. 코끝을 찌르는 더덕은 깊은 언덕에 뿌리를 내리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도 한다. 더덕 있는 곳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채집한 더덕은 모아서 한번에 껍질을 깐 다음 된장에 일주일 버무려 두었다고 된장을 훑어내고 고추장에 박아 더덕장아찌로 만든다. 저장음식을 그때그때 만들어야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늦게까지 열리는 가지 덕에 가지와 더덕을 쌓아 만드는 가지더덕구이는 귀한 접빈음식으로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물론 맛이 없으면 다시 먹기 어려운 게 음식이다.

불가에서 수행자는 음식을 주는 대로 먹고 맛을 따지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사찰에 사는 내내 이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면 맛없는 음식에 진심을 내지 않고 견딜 수 있겠는가? 이왕지사 채식음식이지만 제대로 맛과 품새를 갖추고 먹을 수 있다면 일반음식을 멀리할 수 있어서 유익한 수행이 되지 않겠는가?

'여도라지 남더덕' 이라고 하였다. 여성에게는 따뜻한 기운인 도라지가 좋고 남성에게는 하초를 시원하게 하는 더덕이 좋다고 하였다. 도라지는 식재료로도 좋지만 오래도록 먹으려면 정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유용하다. 조청물에 여러 번 익혀내는 도라지 정과는 잦은 기침과 천식, 감기몸살에 약보다 먼저 가까이하면 도움이 된다.

또한 대부분 밤은 쪄서 먹는 간식으로 유통되지만 사실은 위가 좋지 않거나 아이들 배앓이, 위경련, 장염으로 고생할 때 밤죽으로 만들면 효과가 좋다. 오래전 학인 때 지방 사찰에 들렀을 때 그 절 주지스님이 장염으로 고생한다는 상좌스님의 걱정을 듣고 방법을 일러주었다. 자고 일어나니 주지스님이 찾는다고 해서 갔더니 고맙다고 여러 번 인사를 하셨다. 밤죽은 밤을 껍질째 찌거나 구운 다음 껍질을 벗겨내고 으깨어 흰쌀죽을 끓인 다음 밤을 넣고 마저 끓이면 된다. 밤의 탄닌 성분이 위벽과 장벽을 감싸 통증을 완화시켜준다. 주변의 많은 이들이 효험을 본 사례이니 의심치 않고 해봐도 좋다.

더덕밥

재료: 더덕 2~3뿌리, 밥 2공기, 브로콜리 2꼭지, 생표고버섯 1~2개, 당근 30g, 청 · 홍고추 1개, 잣 1T, 참기름 약간, 소금 약간, 물 약간

1. 더덕은 껍질을 벗겨 손질한 뒤 반으로 갈라 도마에 올려놓고 나무 방망이로 살살 두드리며 펴서 잘게 손질한다.
2. 잣을 절구에 넣고 가루가 될 정도로 곱게 빻는다.
3. 더덕에 잣가루와 참기름, 소금을 넣고 버무려 무친 다음 다독여 놓는다.
4. 생표고버섯과 브로콜리, 당근, 청 · 홍고추는 조금 굵게 다진다.
5. 뚝배기에 참기름과 4의 다진 야채를 넣고 덖다가 채소를 아래쪽으로 펴주고 몇 번 더 뒤적여 물을 2수저 넣고 그 위에 밥을 넣는다.
6. 밥 위에 잣 소스에 버무린 더덕을 올리고 뚜껑을 덮고 10분간 뜸 들인다.
7. 먹기 전에 잘 섞고 기호에 따라 양념장을 곁들인다. (양념장: 청 · 홍고추를 곱게 다져 수분정리하고 집간장 1T, 채수물 1T, 참기름 1t를 섞어준다.)

가을아욱국

재료; 아욱 100g, 된장 1T, 고추장 ½T, 마른표고 3개, 다시마 5장, 들깨가루 1T, 들기름 ½t, 소금약간

1. 마른표고버섯과 다시마는 물 3컵을 넣고 5분간 끓여 채수물을 준비한다.
2. 부드럽고 연한 아욱은 그대로 쓰고, 억세면 줄기를 꺾어서 껍질은 벗기고 잎과 함께 파란 물이 나올 때까지 소금을 약간 넣어 주물러 씻어준다.
3. 채수물에 된장과 고추장을 풀어 양념장을 만들고 표고버섯은 꼭 짜서 곱게 채썬다.
4. 냄비에 들기름과 채수물을 약간 넣고 표고버섯을 넣고 덖는다. 된장 풀어둔 물과 나머지 채수물을 넣고 끓이다가 아욱을 넣고 끓인다.
5. 한소끔 끓으면 들깨가루를 넣고 약한 불에서 끓여 그릇에 담아낸다.

밤조림

재료: 밤 20알, 들기름 2큰술, 집간장 2큰술, 조청 3큰술

1. 밤은 껍질 있는 것을 깎아서 사용한다. 시중에 파는 밤은 방부처리로 색이 검게 변색된다.
2. 들기름과 집간장을 냄비에 붓고 밤을 넣은 다음 물을 끓인다.
3. 밤이 익을 즈음 조청을 넣고 윤기를 낸다.



류재환의 건강 100세
④ 운동과 노화(aging)

건강한 노년, 적절한 운동과 활동 중요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매우 큰 것 같다. 예로 최근 갱년기에 좋다는 하수오가 첨가된 건강식품을 들 수 있다. 진품 하수오가 아닌 수백억대 가짜 하수오가 유통되는 파동을 보며 건강에 대한 잘못된 관심이 걱정이 된다.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은 우리 모두를 한계적 상황으로 치닫게 할 수 있으며 질병 상태에서 생존하는 그 순간 힘겨운 치료 기간은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을 없애버릴 수 있다.

서술했듯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자체의 두려움과 더 나아가 죽음으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 때문에 건강을 챙기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된 것 같다.

여기서 건강에 대한 큰 관심은 고무적이나 역으로 건강에 대한 접근이나 지식 및 상식은 극히 빈약하고 잘못된 점이 많다는 것이 우려된다. 건강에 좋다는 것에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관심이나 구매 복용, 또 어떤 보약에 대한 맹신, 주사제에 대한 과신 등이다. 우리가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유지키 위해서는 건강해지고 싶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 여기서 건강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은 올바른 활동(운동)이다. 요사이 종합건강검진을 위해 찾아오는 사람 중에 예상 외로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많다. 가장 왕성한 세대일 것 같지만 대부분 문진 시 "술을 먹으면 잘 취해요", "술이 쉽게 깨지 않고 오래가요", "과거에는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요 사이는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맥을 못 춰요" 등 호소의 공통점은 몸의 상태가 예전 20대와 같지 않다는 이야기다. 아직 젊은 청춘이라고 느끼는 나이에 벌써 몸이 약해지다니 혹시 병이 생긴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에 종합검진을 받고자 종합병원을 찾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정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상기 건진자들의 몸에 대한 느낌은 왜 생기는 것일까?

의학적으로 인체의 노화는 성장발육이 끝난 시점, 즉 20대부터 시작되며 30대부터 노화진행속도는 진행되어 매년 0.9% 정도 기능저하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30대부터는 건강관리를 해야 하며 그대로 두면 과거 성장기처럼 온갖 신체기능이 저절로 회복되거나 증대되지 않는다. 최근 평균 수명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노화를 막는 방법은 아직 발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까지 노화와 관련된 여러 요인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제 성공적인 노화(successful aging)를 하느냐 아니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노화(usual aging)' 를 하느냐는 자신의 선택에 있다. 성공적 노화 즉 건강을 유지하며 활발히 활동하는 노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이나 활동이 제일 중요하며 더불어 금연, 적절한 음주, 식이습관, 주변 환경 적응 등도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 유지와 건강 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속적 운동 건강 좌우
유산소 운동 하루 30분

은 적절한 운동이다. 그 중요성은 65세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계단을 뛰어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동년배 다른 사람은 몇 계단 오르고 숨이 차서 쉬면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그럼 두 사람의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의 차이일 것이다. 꼭 노령기에만 비교되는 것이 아니다. 젊은 연령층에도 운동을 전혀 안하는 사람과 지속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100m 달리기를 시도하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운동과 적절한 활동은 건강유지와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동맥경화를 방지하고, 체중조절하며 비만을 방지하고, 당 대사를 조절하여 당뇨병 발병을 억제하며, 골다공증의 진행을 막아주고, 가장 중요한 심장 폐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더 나아가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어 불안증 우울증 발생을 감소시키며 스스로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향상시켜준다. 이유는 운동을 통해 체내 엔도르핀의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상기한 30대 전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에게 질문해보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정기적으로 몸을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다.

끝으로 바람직한 운동은 우선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활동)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

첫째, 운동은 기본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좋다. 유산소 운동이란 운동 시 산소를 소모하는 운동이다. 예를 들면 걷기, 수영, 조깅, 줄넘기, 배드민턴, 자전거타기, 테니스 구기 종목 등이다.

둘째, 운동 강도는 운동을 하면서 가볍게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의학적으로 최대 맥박수 기준으로 약 60%에서 85%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최대 맥박수 = 220-자신의 나이)

셋째, 하루 운동시간은 25분에서 45분 정도로 시작하면 좋다. 5분은 운동준비기(워밍업), 20분은 본격 운동, 5분 정도를 마무리 시간으로 구성한다. 한번 운동 시 300kcal 정도 소비할 정도가 좋다. 강도가 최대 맥박수 65% 정도면 하루에 한 번, 65% 이상이면 이틀에 한 번 운동하는 것이 좋다.

넷째, 40세 이후에 운동을 처음하게 되면 운동부하 검사 후 운동량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특히 비만, 고혈압, 천식, 협심증 등 동맥경화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갑작스럽고 무리한 운동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다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갑작스런 운동을 심하게 해서 오는 피로의 누적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볍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요령이다.

끝으로 지속적 운동과 정기적인 검진이 성공적 노화와 함께 안락한 노후 생활로 가는 첩경이 되겠다.

전국병원불자연합회장(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



GREEN EARTH

녹색지구를 위한 우리의 실천!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은 생명들이 살아갈 소중한 삶의 터전을 훼손시킵니다.
지구와 모든 생명의 삶을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와 분리수거, 에너지 절약에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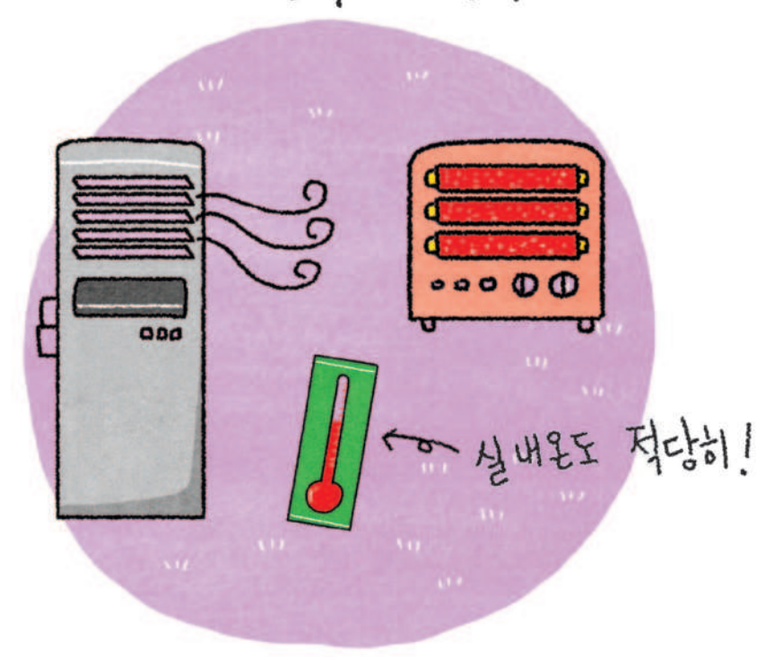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에너지 절약은 쉬워요!



'분리수거하기' 약속해요!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